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2022. 10. 7.(금) - 11. 20.(일)  
성산아트홀 및 창원특례시 일원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Oct. 7. 2022. (Fri.) - Nov. 20. 2022. (Sun.)  
Seongsan Art Hall, Changwon City District



목차

4 역대 비엔날레  
6 인사말  
10 서문  
18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37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95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133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171 특별전 2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177 후원 및 협찬  
178 크레딧  
180 전시장 정보

4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6 Greetings  
10 Preface  
18 Floor Plan & Artist Information

37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95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133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171 Special Exhibition 2  
*Art Salon without Borders*

177 Sponsors  
178 Credit  
180 Exhibition Venue

Contents

## 역대 비엔날레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에시메트리» 김영호 커미셔너 2010. 9. 8. — 10. 29.
2012	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꿈꾸는 섬» 서성록 총감독 2012. 10. 26. — 11. 25.
2014	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달 그림자» 최태만 예술감독 2014. 9. 25. — 11. 9.
2016	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 윤진섭 총감독 2016. 9. 22. — 10. 23.
2018	4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불각의 균형» 윤범모 총감독 2018. 9. 4. — 10. 14.
2020	5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김성호 총감독 2020. 9. 17. — 11. 1.
2022	6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조관용 총감독 2022. 10. 07. — 11. 20.

## 역대 비엔날레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i> Young-Ho KIM, Commissioner 2010. 9. 8. — 10. 29.
2012	1s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Dreaming Island</i> Seongrok SEO, Artistic Director 2012. 10. 26. — 11. 25.
2014	2n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The Shade of the Moon</i> Taeman CHOI, Artistic Director 2014. 9. 25. — 11. 9.
2016	3r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Eok-Jo-Chang-Saeng</i> Jinsup YOON, Artistic Director 2016. 9. 22. — 10. 23.
2018	4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The Balance of Non Sculpting</i> Bummo YOUN, Artistic Director 2018. 9. 4. — 10. 14.
2020	5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i>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2020. 9. 17. — 11. 1.
2022	6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Channel: Wave-Particle Duality</i> Kwanyoung CHO, General Director 2022. 10. 07. — 11. 20.

# 인사말

창원의 가을을  
조각예술로 물들이는 축제!

예향의 도시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조관용 총감독님과 추진위원님들,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을 환영하며, 이번 조각비엔날레에서 창원의 예술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향의 도시 창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인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비엔날레 개최로 조형예술의 도시 창원특례시의 국내외 위상을 드높여 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창원시 전역에서 전시·학술·부대행사가 열리는 만큼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감상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관계자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가 조각 예술에 대한 대중의 애정과 관심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현대의 미와 조형예술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창원시만의 도시 브랜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우리 창원은 균형의 조각가 문신을 필두로 김종영,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과 같은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배출한 조각의 도시이며, ‘가고파’의 이은상, ‘고향의 봄’ 이원수 등 걸출한 문학인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문학예술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시작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창원특례시 전체를 무대로 하여 순환과 소통, 그리고 나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합니다. 옛 창원, 마산, 진해 권역을 대표하는 명소들은 조각 전시장이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창원의 예술을 담담히 이어가고 있는 지역 작가들과의 만남을 마련하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축제와 같은 조각비엔날레의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조각이 곳곳에 어우러진 창원을 상상하니 다가오는 10월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보다 즐겁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부디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참여자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축제이자, 2022년 가을의 소중한 추억 한 조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 인사말

조각도시 창원을 널리 알리는  
대표 예술축제!

‘문명사적 전환기’를 선도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대한민국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로 조각 도시 창원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 예술축제입니다. 2010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필두로 2012창원조각비엔날레에 이은 12년의 시간이 오늘의 ‘조각 대표 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창원이 낳은 조각계의 거장들이 공업도시에서 조각 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마다 독자적인 예술세계와 가치를 남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예술자산의 가치를 드높여 나가기 위해 우리는 또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가을의 문을 활짝 엽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초청작가들의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장소를 창원, 마산, 진해로 확장시켜 창원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비엔날레를 통해 빚어낸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게 될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기고 예술이 일상에 녹아드는 예술축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창원을 세계적인 조각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온힘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신 창원시장님과 창원예총회장님 및 회원, 추진위원님 및 조관용 총감독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근

21세기를 지배하는 디지털 기술과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로 세상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시대를 담아내는 예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격변의 시대를 ‘4차산업혁명’이라 선포하고 지식사회에서는 ‘문명사적 전환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에 없는 변화는 인공지능과 로보테크놀로지 분야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연 환경 생명 생태의 바이오 개념을 예술계의 이슈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는 변화하는 세상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주제를 내놓은 총감독을 과감히 모셨습니다. 예술이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비엔날레는 그릇들을 모아 이념과 사상의 체계로 다듬어가는 실험실임을 예의 주시한 결정입니다. 조관용 총감독이 내세운 주제 «재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현대 양자물리학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현실의 시대상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준비된 전시와 프로그램들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한층 더 높이고 문화도시 창원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기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속적이고 특화된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으로 비엔날레를 아껴주시는 창원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엔날레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들과, 관객들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2022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김영호

# Greetings

# Greetings

Immerse Yourself in Sculpture This Fal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rtistic Director Kwanyong CHO,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all thos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t the same time, a warm welcome to our citizens and visitors from home and abroad to the creative, vibrant city of Changwon.

Changwon has produced many legendary sculptors, including Shin Moon who mastered the art of symmetry, and Chongyung KIM, Chongbae PARK, Sukwon PARK, and Youngwon KIM. It is also the hometown of Korea's greatest literary figures, such as Eunsang LEE, who wrote I Want to Go Home and Wonsu LEE, who wrote lyrics to the children's song Spring of My Hometown. The Biennale which began as the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2010 to elevate the city's artistic reputation worldwide, celebrates its sixth edition this year.

In particular, this year's event will bring the work of artists to several venues across the city and into dialogue with the public. Sculpture works will be displayed in key attractions in the old Changwon, Masan, and Jinhae areas to bring art closer to everyday life. The Open Studios program, which offers visitors the chance to meet local artists and watch them in action, is a testament to the Biennale's vision to create a joyful visual experience.

I look forward to the month of October and the clear sky and crisp air it brings. Hopefully, enjoying the works of sculpture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in the beautiful weather will leave a lasting memory in the minds of visitors.

Nampyo HONG  
Mayor of Changwon City

The Only Sculpture Biennale in the City of Ar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t the height of autumn. I extend my special thanks to the staff of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for sparing no efforts to make this gathering of the local art community a success.

Changwon has cemented its position as the host of Korea's only biennale focused exclusively on sculpture. Its reputation as the city of sculptur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time, support, and dedication of the organizers.

For this year's event, key locations across the city will turn into venues for exhibitions, academic programs and sideline events, giving visitors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 city.

Hopefully, the organizers' efforts will bear fruit and lead to an increase in public interest in art.

Lastly, I hope the exhibitions featuring the best of local and international sculpture will provide the people of Changwon with a chanc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contemporary art, and expect the Biennale to remain as the iconic event of the city.

Thank you.

Leekeun KIM  
Chairperson, Changwon City Council

Changwon's Landmark Celebration of Sculpture is Back!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s Korea's one and only biennale dedicated to sculpture and a standout event on Changwon's cultural calendar. Twelve years of history spanning from the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2010 and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2 to this year's Biennale has made the city what it is today: "the city of sculpture."

Changwon is home to some of the most iconic sculptors in Korean art history, such as Chongyung KIM, Shin MOON, Chongbae PARK, Sukwon PARK, and Youngwon KIM. The artistic achievements and cultural imprints they left behind have transformed the industrial town into a hub of sculpture art.

To carry on their legac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once again returns to the coastal city from October 7 to November 20, 2022. It will feature approximately 140 works by artists from home and abroad at different locations across Changwon, including Masan and Jinhae.

This year's event will help reinforce the Biennale's identity as a genuine celebration of art and creativity that brings together the public and the art community and integrate art into everyday life.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the Biennale a success and Changwon an international hub of sculpture.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convey my gratitude to the Mayor of Changwon City, the board and members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Changwon, members of the Biennale's Steering Committee, Biennale Artistic Director Kwanyong CHO, and staff members for putting together the wonderful exhibitions, as well as the people of Changwon for their support.

Ungkyun YIM  
CEO,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Biennale at a Turning Point in Civilization's History

As advances in 21st century digital technologies and natural disasters continue to shape the world and our views of the world, art, as a reflection of its time, is also changing. This turbulent time is describ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economists or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y scholars. This unprecedented wave of changes is driving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while triggering renewed interest among the art community in the concept of "bio" associated with nature, the environment, life, and ecology.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is delighted to welcome aboard an Artistic Director who proposed a theme that reflects the changing world and our response to it. This decision is in line with a belief that if art is a mirror of reality, the Biennale is a lab that where we put together different pieces of a mirror to create a refined system of ideas and thoughts. Director Kwanyong Cho's theme –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 embraces the reality of the times we are living in, based on the concept of quantum mechanics. I believe the exhibitions and programs organized under the timely theme will help reinforce the Biennale's identity and establish Changwon's vision as the city of culture.

I am grateful to the Mayor of Changwon City, members of the Changwon City Council, and Changwon citizens for their support to ensure the event's success,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warmly welcome participating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visitors. The Steering Committee will stay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the Biennale consolidates its position as the most prestigious cultural event in the region.

Youngho KIM,  
Chairpers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Steering Committee

#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 I.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린 시절 밤하늘에 무수하게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생각으로 뭉서리쳐 보았을 것이다. 무한한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먼지 한 톨 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죽은 뒤에 나란 존재는 조그마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질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2022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인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Channel: Wave-Particle Duality)'이다.

전시 주제인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채널'과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널(channel)'은 주파수 대역이나 방송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란 실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시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에 따라 주파수를 수신하여 펼쳐놓은 방송국의 영상이미지의 세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의 시각은 '나'란 실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입자'의 근원적 실체에 대한 탐구이지만 또한 매스(mass)를 통해 생명의 실체를 표현한다는 조각이론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매스는 생명의 실체를 표현하는 최적의 용어가 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E=mc^2$ 이며, 입자는 양자역학에 의하면 입자이자 파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대 물리학은 나의 개체(영혼)가 입자 알맹이에 담겨 사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sup>1)</sup>

그러면 '채널-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세계로 한걸음 더 다가가 보자.

## II. 나는 어디에 있을까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의 개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자 '정신'이라는 것, 달리 말해 모든 것들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합일되며, 순환하는 실체임을 의미한다. 즉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이라는 전시 제목은 '나'를 비롯하여 개별체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채널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의 개념을 대비시켜 해석해 본 것이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물질의 개념을 정신이자 물질의 개념으로 진화시킴으로써 예술, 현대 조각, 그리고 인간과 생명의 개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조각의 분야에 있어서 매스 중심의 개별적 입체 조형에서 융복합 관점의 탈장르적 입체조형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영역에서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에서 건축이나 풍경의 개념을 부정(not)하는 방법을 통해 조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적인 실체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매스(덩어리)'라는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지만, 그러한 질문은 조각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인문학 전체에 걸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조형의 형태(건축, 풍경 등)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조형의 내용(물리학, 생물학, 인문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한 조형 개념의 확장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창작 결과만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 중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개체와 전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창작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바츠키(H.P. BLAVATSKY)가 『비경(The Secret Doctrine)』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간의 관심과 교류를 통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유기적인 관계와 생태계의 순환의 관점, 즉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순환의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대한다고 할 수 있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Channel: Wave-Particle Duality)»은 동양의 일원론적인 생명의 개념을 양자역학의 관점을 차용하여 재해석한 것이며, 학제 간의 이론적인 논의들<sup>2)</sup> 예술가의 입체적 시각이미지로 펼쳐보아 탐험해보는 하나의 장(場, field), 즉 자연의 생명체들을 물건과 같이 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생명체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사색해보는 자리이다.

III. 결과에서 과정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전시는 각 개별들이 전체와 하나가 되는 순환적인 개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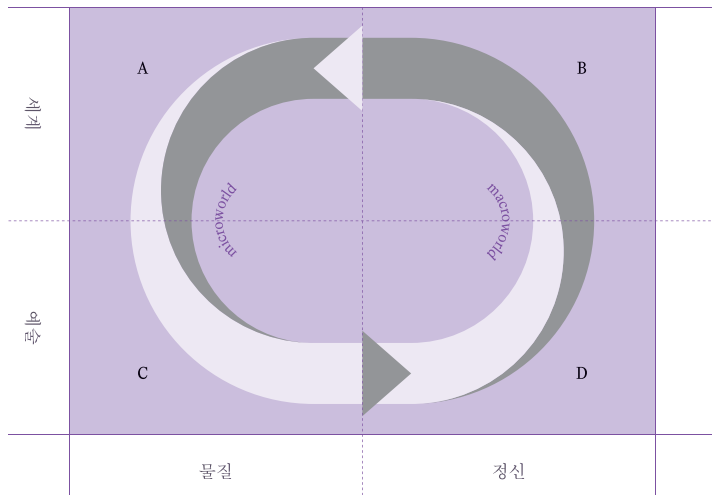
2) 캐린 배러드(Karen BARAD)의 상호 얽힘, 짐 알칼릴리(Jim AL-KHALILI)의 양자생물학



소유가 아닌 유목과 공유의 개념으로 본전시 1, 2와 특별전 1, 2로 기획하였다. 본전시 1과 연계한 해외작가 작품제작워크숍과 특별전 1의 오픈스튜디오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창작 결과만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전시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예술 향유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 제작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함으로써 작가와 관람자 상호 간의 소통을 심화하는 데에 있다.

본전시 1은 창원의 성산아트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산의 3.15해양누리공원, 창동예술촌아트센터, 진해 흑백다방과 진해 중원로터리로 확장하여 전시를 진행한다. 본전시 2는 해외작가가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창원시 일원에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며, 특별전 2는 해외 레지던시들이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웹, 가상, 온라인 레지던시를 통해 개인 작가의 스튜디오가 창작 및 교류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별전 1의 오픈스튜디오는 본전시 1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시이다. 관람자는 성산아트홀에서 마산과 진해로 전시 장소가 확장된 본전시 1의 작품들을 구경하며, 마산, 창원, 진해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수 있다. 마산, 창원, 진해에 펼쳐져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과정과 작가들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며, 마산, 창원, 진해의 문화를 흠뻑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A. 입자와 파동
- B.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의 전일성과 생명의 순환
- C. 조각적인 매스에서 개념적인 매스로 - 융복합적인 입체, 설치, 영상
- D. 창작 과정 중심의 교류와 체험 - 작품제작워크숍, 오픈스튜디오

이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천적, 참여적 측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민강좌, 아티스트워크숍, 시민체험프로그램, 국내 학술 심포지엄과 국제 학술 심포지엄등을 기획하였으며, 비엔날레 본 행사기간 전부터 시민강좌, 국내 학술 심포지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관람의 이해를 도왔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개인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와 하나가 되는 ‘나’에게로 떠나는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 I. Where did I originate?

We all had a moment as a child when we looked up at the countless stars dotting the night sky and shuddered at the thought that we were just an unimpressive speck of dust in the infinite universe. Then we would realize that when we die, we would be gone without leaving so much as a trace behind us. The them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or “Channel: Wave-Particle Duality”<sup>1)</sup> is a journey to find answers to these ideas.

The them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 “Channel,” and “Wave-Particle Duality.”<sup>1)</sup> The former, by definition, means a band of frequencies or a broadcasting station. It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I” as substance. The perspective of the “I” is not fixed. Instead, it resembles the world of broadcast video images created by receiving a preferred frequency. Therefore, the view of the “I” represents the “I” as substance.

“Wave-Particle Duality”<sup>1)</sup> is an exploration into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a particle. At the same time, it challenges the sculpture theory where the substance of life is expressed in the form of mass. Is the word “mass” best fit to portray the substance of life? According to EINSTEIN and quantum mechanics, the answer is no.

EINSTEIN suggests  $E=mc^2$  instead, and quantum mechanics says every particle is both a particle and a wave. This explains why modern physics considers it delusional to believe that one’s entity (soul) exists independently somewhere in the universe after death, contained in a particle.<sup>2)</sup>

Let’s take a step closer to the symbolic meaning of the Biennale’s theme this year.

1)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Korean theme is “Channel: The Moment a Particle Turns into a Wave.”

2)  
 As a particle ultimately turns into energy, all beings do not exist independently. See *The Secret Doctrine* by H.P. BLAVATSKY and *Philosophy of Vedānta* by Sunkeun KIM for theories that explain humans and other living things in the universe.

### II. Where am I?

“Wave-Particle Duality”<sup>1)</sup> is a poetic expression of wave-particle duality in quantum mechanics. The duality does not highlight the disparity between “spirit” and “matter.” Rather, it shows that an entity can be both “spirit” and “matter.” In other words, everything is united as one, instead of existing independently, and is a circulating substance. Therefore, “Channel: Wave-Particle Duality”<sup>1)</sup> is an interpretation of a channel which symbolizes every individual entity including the “I,” based on the dualism of particle and wave.

The theme of the Biennale offers a new perspective on art and contemporary sculpture, as well as the concept of man and life by transforming the concept of matter into the concept of both spirit and matter. This has three key takeaways.

Firstly, wave-particle duality signals an expansion from mass-based, three-dimensional individual sculpture to anti-genre, three-dimensional fusion sculpture. It expands the concept of sculpture by questioning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matter, instead of defining it by what it is not (not-architecture or not-landscape) as Rosalind KRAUSS did in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The dualit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mass” as a substance can exist independently. In fact, this question is not limited to sculpture, but applies to physics, biology, and humanities. Thus, the duality of particle and wave represents an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culpture by questioning its content (physics, biology, and humanities), rather than its form (architecture and landscape).

Secondly, the duality focuses on not only the result of creation, but also its process. Under the duality, an individual is not separated from the whole, so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hat can be owned individually. Then,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creation?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knowledge, it is to gain experience through interest and exchange between man and man and between man and object, as H.P. BLAVATSKY writings in *The Secret Doctrine*.

Lastly, the duality denies the separation of “spirit” from “matter.” Instead, it stress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the cyclic nature of ecosystems – that is, the circulation of the micro and macro worlds – in addressing man and every living being in nature. The Biennale is a quantum mechanical take on the Eastern monistic view of life and a venue to translate interdisciplinary academic dialogue<sup>3)</sup> into three-dimensional visual language. All things considered, it presents an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notion of treating living organisms as an inanimate object and contemplate on how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 III. From result to process and ownership to 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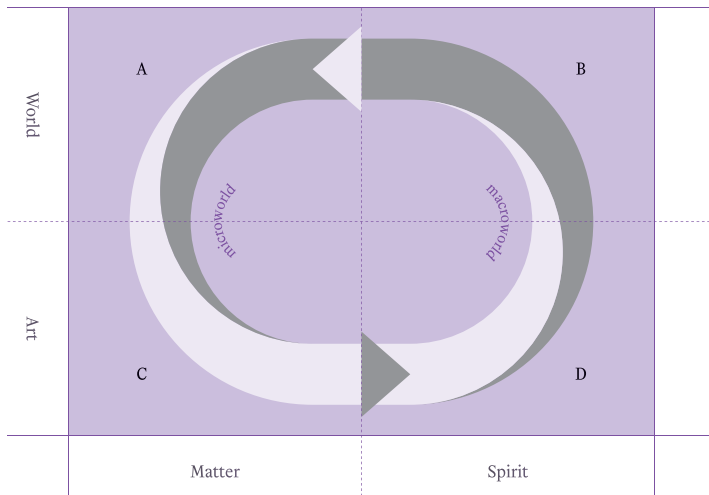
The Biennale consists of Main Exhibitions 1 & 2 and Special Exhibitions 1 & 2 where individuals elements become one with the whole, based on the concept of circulation, nomadism, and sharing. The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by international artists linked to Main Exhibition 1 and the Open Studios for Special Exhibition 1, the first of their kind in Korean biennales, are intended to give a glimpse into the process of creation,

3)  
 Karen BARAD on quantum entanglement and Jim AL-KHALILI on quantum biology

alongside its end result. The idea is to fos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viewer by showcasing to the public how artists create. This is a marked departure from conventional exhibitions that simply function to provide knowledge and display artworks for appreciation.

Venues for Main Exhibition 1 are spread across the city, including Seongsan Art Hall in Changwon, 3-15 Nuri Marine Park and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in Masan, and Black & White Alternative's Space and Jungwon Rotary in Jinhae. For Main Exhibition 2, exhibits are virtual in nature. Works from international artists are hypothetically placed in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Special Exhibition 2 studies experimental web-based, virtual, and online residency programs around the worl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hether an individual artist's studio can serve as a hub of artistic creation and exchanges.

Special Exhibition 1's Open Studios are closely linked to Main Exhibition 1. While visitors enjoy works of art for Main Exhibition 1 in different venues of the city,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artists' studios nearby to meet them in person, learn more about their processes, and get immersed in the local culture.



16

- A. Particle and wave
- B. Wholeness of man and other forms of life in nature, and circulation of life
- C. From sculptural mass to conceptual mass: Convergent 3D forms, installations, and videos
- D. Process-centered creative exchanges and experiences: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and Open Studio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s, several program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engage the public and the art community. These include public seminars, artist workshops, hands-on activities, and loc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s. The seminars and local academic symposium were held prior to the opening of the Biennale to help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s. “Channel: Wave-Particle Duality”<sup>1)</sup> will be a journey toward the “I” that is no longer an independent entity, but part of the whol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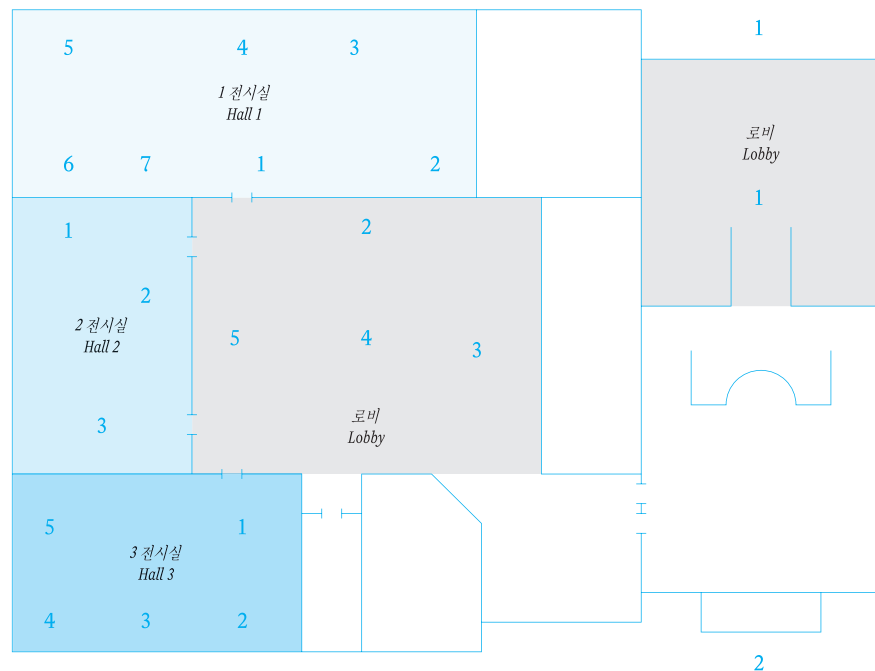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본전시 1은 입자, 즉 매스와 볼륨으로 이루어진 개체적인 생명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입자이자 파동, 즉 물질의 근원인 빛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순환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의 실체를 탐구한다. 전시는 성산아트홀을 비롯하여 창원특례시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다양한 명소를 전시장소로 선정하여 창원특례시 일원을 여행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한다.

Where did we originate? Main Exhibition 1 sheds light on the substance of life as a circulating being bridging the micro and macro worlds, comprised of light and energy which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that make up matter, rather than an individual life form consisting of particles with mass and volume. The exhibition extends beyond the walls of Seongsan Art Hall. Several historical and cultural attractions in Changwon were selected as venues to showcase the works. It is meant to offer viewers the chance to experience different corners of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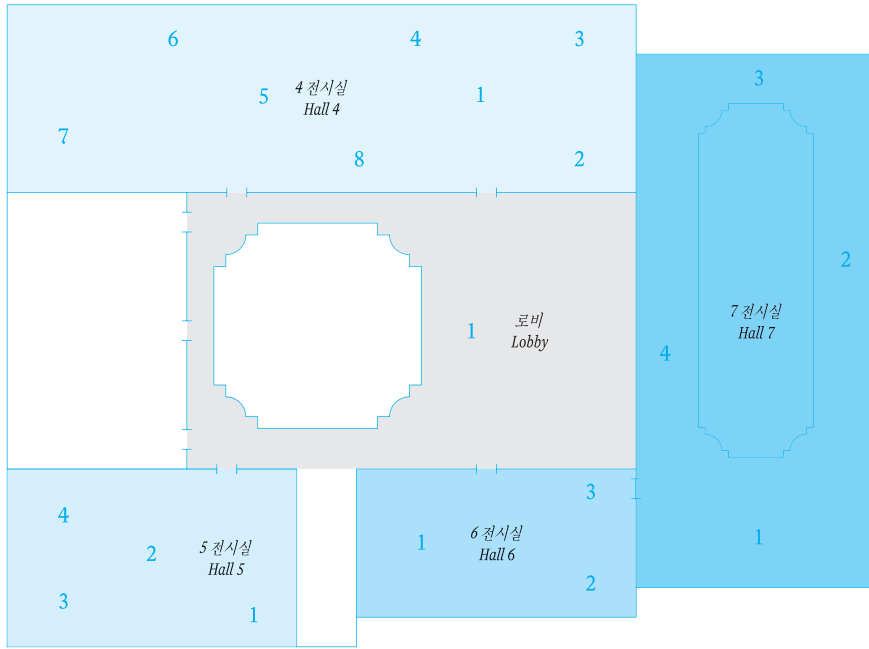
18



19

성산아트홀 1층				Seongsan Art Hall 1F			
로비		1 전시실		Lobby		Hall 1	
1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	1	알리시아 크바테	1	Alistair McClymont	1	Alicja KWADE
2	마이클 워틀	2	노진아	2	Michael Whittle	2	Jinah ROH
3	김진우	3	목진요	3	Jinwoo KIM	3	Jin-Yo MOK
4	이기일	4	벤하드 드라즈	4	Kiil LEE	4	Bernhard DRAZ
5	최수환	5	이완	5	Suwhan CHOI	5	Wan LEE
		6	배성미			6	Sungmi BAE
		7	김윤철			7	Yunchul KIM
2 전시실		3 전시실		Hall 2		Hall 3	
1	한진수	1	호 이 텅	1	Jinsu HAN	1	Hou I Ting
2	박열	2	카토 츠바사	2	Earl PARK	2	Katou TSUBASA
3	이용백	3	오정선	3	Yongbaek LEE	3	Jungsun OH
		4	오순미			4	Soonmi OH
		5	김혜경*진케이*최재필			5	Hyegyoung KIM* Jin Kei*Jaepil CHOI
야외				Outdoor			
1	차주만			1	Jooman CHA		
2	강원택			2	Wontaek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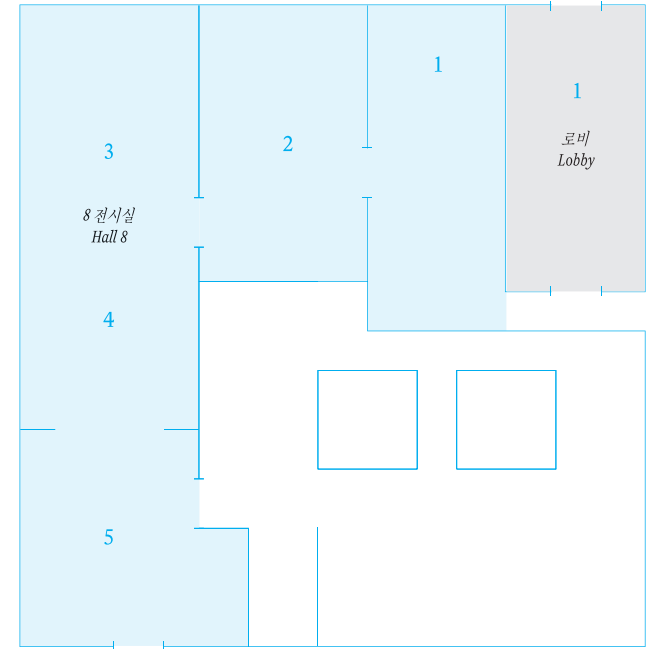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성산아트홀 2층		Seongsan Art Hall 2F	
로비	4 전시실	Lobby	Hall 4
1 백정기	1 에디 프라반도노	1 Jungki BEAK	1 Eddi PRABANDONO
	2 홍이현숙		2 Hyunsook HONG LEE
	3 시모나 호이먼스		3 Simone HOOYMANS
	4 정아사란		4 Asaran JEONG
	5 이연숙		5 Yeonsook LEE
	6 양정욱		6 Junguk YANG
	7 안씨 타올루		7 Anssi TAULU
	8 이준		8 June LEE
5 전시실	6 전시실	Hall 5	Hall 6
1 백정기	1 미칼 가비쉬	1 Jungki BEAK	1 Michal GAVISH
2 신승연	2 김범수	2 Seungyun SHIN	2 Beomsoo KIM
3 파레틴 오렌리	3 크리스 마이어	3 Fahrettin ÖRENLI	3 Chris MYHR
4 이창원		4 Changwon LEE	
7 전시실	Hall 7		
1 정순호	1 Soonho JEONG		
2 차주만	2 Jooman CHA		
3 김진희	3 Jinhui KIM		
4 강주연	4 Juyen GANG		

20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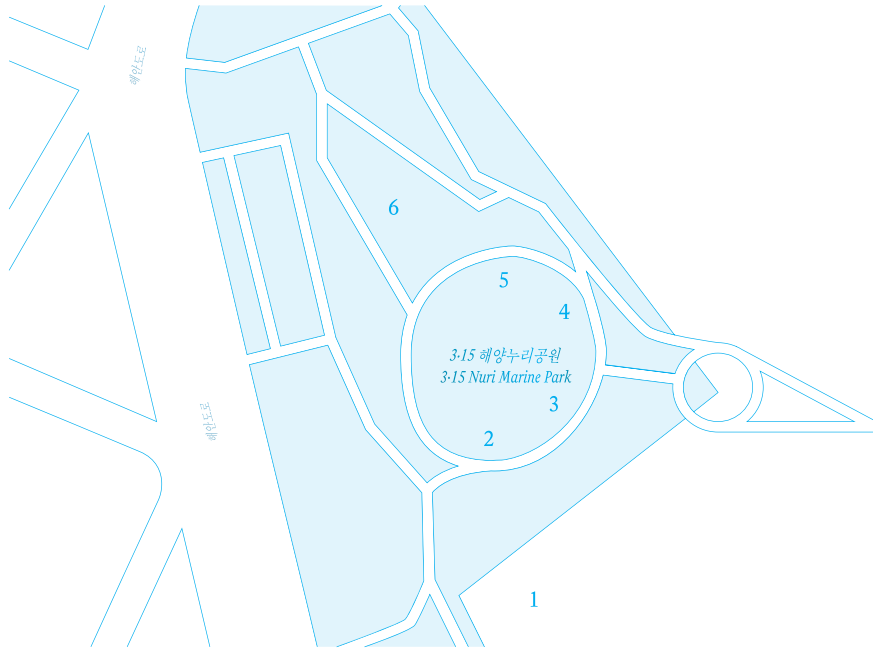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로비	8 전시실	Lobby	Hall 8
1 올리아 페도로바	1 심준섭	1 OIia FEDOROVA	1 Junseub SIM
	2 유르겐 스탱		2 Juergen STACK
	3 정혜경*키토 사길데벗		3 Hyekyung JUNG* Kito SAGILDEBEO
	4 김진우		4 Jinwoo KIM
	5 마르코 바로티		5 Marco BAROTTI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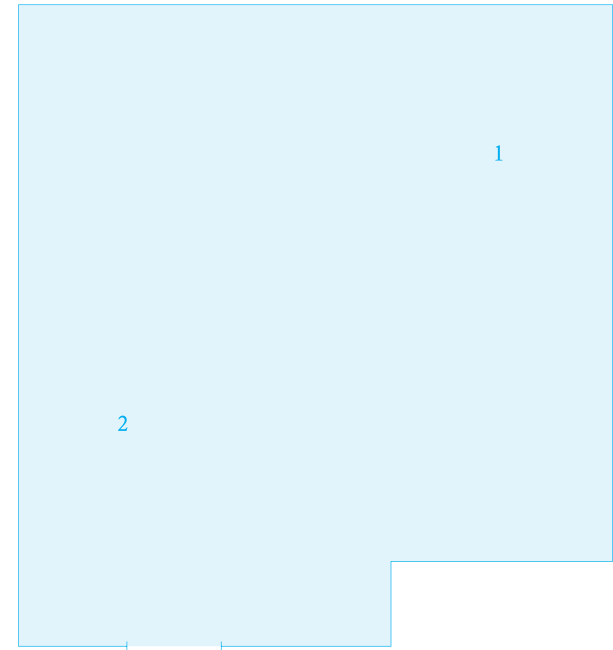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22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1 김진우	1 Jinwoo KIM
2 임형준	2 Hyoungjun LIM
3 유화수×이지양	3 Hwasoo YOO×Jeeyang LEE
4 이성욱	4 Sungok LEE
5 이문호	5 Moonho LEE
6 하석원	6 Sukwon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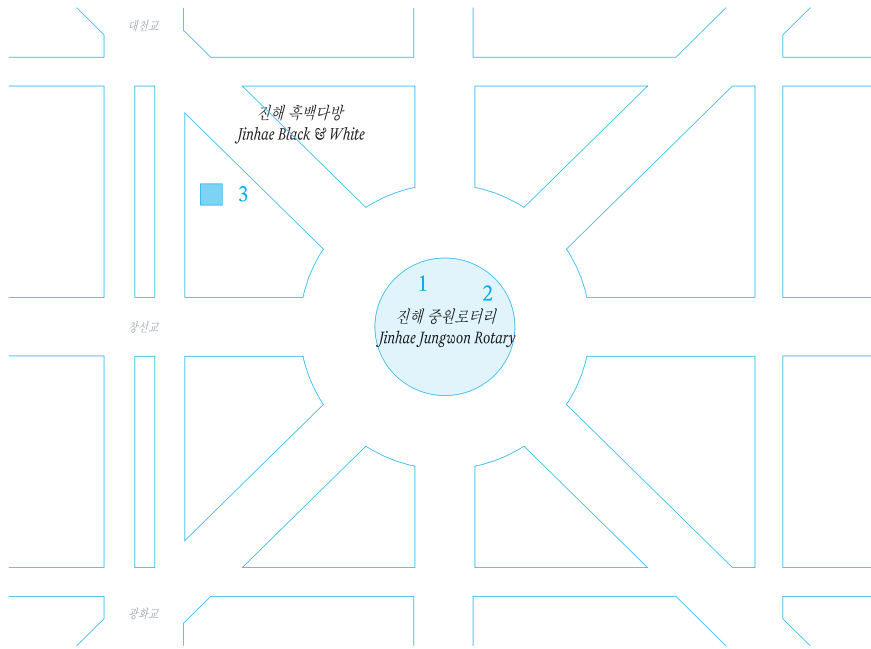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23

창동예술촌아트센터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1 옥현숙	1 Hyunsuk OK
2 양숙현	2 Sookyun YANG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진해 중원로터리	진해 흑백다방	Jinhae Jungwon Rotary	Jinhae Black & White
1 김근재	3 김주호	1 Guenjae KIM	3 Jooho KIM
2 이원우		2 Wonwoo LEE	

24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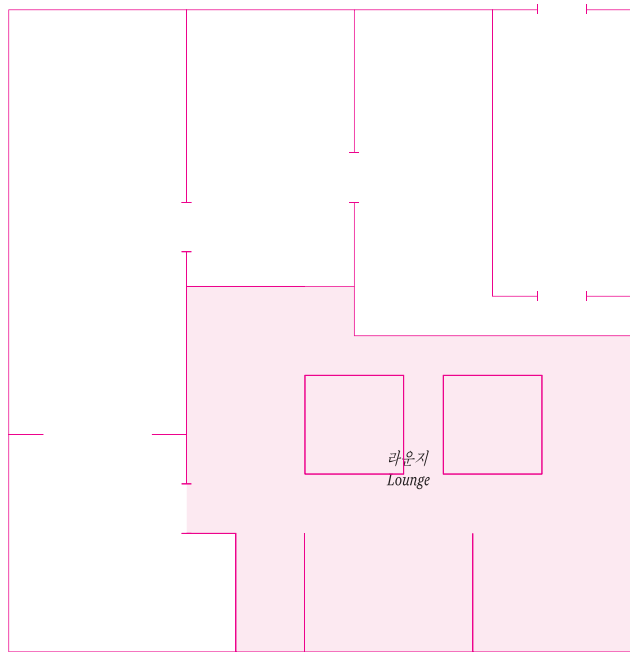
###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25

본전시 2는 특정한 고유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서 차용하여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로 개최되는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은 해외 작가들이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창원특례시의 다양한 장소에 영상, 사진, 드로잉, AR, 사운드, 인터랙티브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국가와 국가, 현실과 가상, 과거와 현재 간의 상호교류를 제안한다.

Main Exhibition 2 is inspired by a phenomenon where the vibration of an object, at its natural frequency, dramatically increases in amplitude and energy, in response to that of another object having the same frequency. Available in an virtual format, the exhibition features video, photography, drawing, AR, sound, interactive art, and other visual works from international artists. The works are hypothetically placed in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ogether, they facilitate interaction between a country and a country, reality and virtuality,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26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라운지		Lounge	
레히나 호세 갈린도	알피 아이딘	Regina José GALINDO	Alper AYDIN
파올로 라디	바네사 알버리	Paolo RADI	Vanessa ALBURY
스테파니 로텐버그 & 수잔 소프	로라 아코스타 & 산티아고 타베라	Stephanie ROTHENBERG & Suzanne THORPE	Laura ACOSTA & Santiago TAVERA
크리스틴 루카스	돈 에들러	Kristin LUCAS	Don EDLER
마크 리	캣 오스틴	Marc LEE	Kat AUSTEN
첸 리날도 & 에이미 영	페드로 올리베이라	Ken RINALDO & Amy	Pedro OLIVEIRA
아델 린	나오 우사미	YOUNGS	Nao USAMI
가이아 린드라	클레어 윌리엄스	Adelle LIN	Claire WILLIAMS
폴 맥레논	케이스 켄킨스	Gaia LEANDRA	Casey JENKINS
존 멜빈	데스피나 차리토니디	Pól McLERNON	Despina CHARITONIDI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	첸한성	John MELVIN	Han Sheng CHEN
마샤 바이츠만	시온 칼레스	Kerem Ozan BAYRAKTAR	Theun KARELSE
빅토리아 베스나	프레데릭 크라우케	Marcia VAITSMAN	Frédéric KRAUKE
쿠스 부이스트	키메라 로사	Victoria VESNA	Quimera Rosa
아감 슈레사	바비네 엘리켄 피앗시	Koos BUIST	Va-Bene Elikem FIATSI
캣 스콧	레이첼 핼	Agam SHRESTHA	[crazinisT artisT]
엘리사 스토렐리	이반 헤이케스	Cat SCOTT	Rachel PIMM
다미르 아브다직		Elisa STORELLI	Ivan HENRIQUES
		Damir AVDAGIC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27

현대미술에서 창작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작업의 주된 요소가 된다. 창원특례시 일원에서 작업하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시민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작가의 미술 창작 문화를 보다 가깝게 체험하며, 이를 통해 창원의 삶과 문화를, 그리고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창원 시민과 미술인의 저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Contemporary art values process as much as the end result. Special Exhibition 1 opens the studios of artists in Changwon to the public. This presents the opportunity to gain insight into the artists' process of creation and the vibrant and creative local art scene of the host city.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위치	이름	분야	주소	금	토	일	
창원 Changwon							
D1	1	감라영 Rayoung KAM	회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851-22	●	●	●
F2	2	강나현 Nahyun KANG	도예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32-18	●		
F2	3	강철석 Cheonseok KANG	회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93번길 10		●	
F2	4	강화자 Hwaja KANG	문인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30번길 15(중앙동)		●	
E2	5	권순화 Soonhwa KWON	회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129번길 24(명서동179) SOONASOO ATELIER (수나수아뜰리에)			●
F3	6	김기주 Giju KIM	서각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과동 123 - 4	●		
F2	7	김덕천 Dukchun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창이대로343번길13 지하 김덕천화실			●
F2	8	김미경 Mikyeong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신월동 64-4 반지하	●	●	
D1	9	김민성 Minsung KIM	조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851-22	●	●	●
G3	10	김성희 Sunghee KIM	서각	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67	●	●	
F3	11	김은주 Eunju KIM	회화	경남 창원시 남양동11동 302호	●		
F2	12	김재호 Jaeho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192번길6			●
F3	13	김화문 Whamoon KIM	서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언덕로 184번길 48(공단상가 4층) 경당서예 캘리그라피연구실		●	
F2	14	김희곤 Heegon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사림동 63-14 번지 김희곤 아뜰리에	●	●	
F2	15	박유종 Youjong PARK	회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61-11번지			●
F3	16	송광욱 Kwangok SONG	도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12 (사과동 20-1)번지 송광욱 도예연구실		●	
F2	17	송명주 Myeongjoo SONG	회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7-8 송명주 화실	●		
F3	18	신은순 Eunsoon SHIN	공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707번길 26-13 1층 신이의매듭세상	●		
F3	19	안령희 Yeounghee AN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14(사과동 2707번지) 안령희 갤러리	●		
F3	20	이소정 Sojung LEE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5, 현대오피스텔 816호 이소정 아뜰리에	●		
F2	21	이정희 Jeonghee LEE	회화	경남 창원시 봉곡동 101-8번지 이정희 아뜰리에	●		
F1	22	이현동 Hyundong LEE	서각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560-1			●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위치	이름	분야	주소	금	토	일	
F2	23	임덕현 Deokhyun LIM	한국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81번길 24(사림동)			●
F2	24	임채섭 Chae-seop IM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67-16			●
F2	25	장선자 Seunja JANG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16번길 21 장아뜰리에			●
F3	26	장인석 Inseok JANG	서각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17번길 24 안민복합상가 3층			●
F2	27	정혜연 Hyelyun JUNG	회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67-17			●
F2	28	최미정 Mijung CHOI	도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19-8 다미공방			●
F2	29	최선희 Seonhui CHOI	민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89번길 8 (신그림 숲)	●		●
마산 Masan							
D3	30	김명련 Myeongryeon KIM	민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서 6길 16-13 에원 민화교실	●		
B2	31	김영관 Younggwon KIM	서각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길 285-44	●	●	
D3	32	김옥숙 Oksuk KIM	한국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67 M오피스텔 1102호 가산아뜰리에	●		
D3	33	김옥자 Okja KIM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서4길 9 지하갤러리 액자전문점 김랑화실	●	●	●
D3	34	김은진 Eunjin KIM	회화·도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38 보리공방			●
D3	35	김준희 Junhee KIM	영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23, 미디어 mov			●
D3	36	김현숙 Hyeonsook KIM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 2층 김현숙 아뜰리에	●		
D3	37	남동화 Donghwa NAM	목공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5, 스크롤소양마을			●
D3	38	라상호 Sangho RA	사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6-41 창동갤러리/스튜디오			●
D3	39	류정림 Jeongrim RYU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6 GOLMOKGIL	●		
C4	40	박순훈 Soonheun PARK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460번지 박순훈 갤러리			●
B4	41	박재철 Jeachul PARK	도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호산정달로 160 단비도예			●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위치	이름	분야	주소	금	토	일
D3 42	서지희 Jihoe SEO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서 6길 16-15 상가 102호	●	●	
D3 43	송창수 Changsoo SONG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64-2 송창수 화실	●		
D3 44	안옥희 Okhee AN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40, 4층 드로잉미술	●	●	
D3 45	윤복희 Bockhee YOUN	한국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7 3층 윤복희 아트리에	●		
D3 46	이혜경 Hyekyung LEE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38, 2층 이혜경 아트리에	●		
D3 47	전귀련 Gwilyeon JUN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서 6길 8 2층 (전귀련 갤러리)	●	●	●
D3 48	전창환 Changhwan JEON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0길 74, 4층 전창환 화실	●		
D3 49	정순옥 Soonok JEONG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16 정순옥 아트리에	●	●	●
D3 50	정재훈 Jaehoon JEONG	공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7, 에코크래프트 공방	●	●	●
D3 51	정현숙 Hyunsook JUNG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38 2층	●		
D3 52	조영희 Yeonhui CHO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4-2	●		
D3 53	조은교 Eungyo JO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4-2 조은교 화실	●		
D3 54	조지은 Jieun CHO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13	●		
D3 55	주상완 Sangwan JOO	서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2-1 2층 삼천서예학원	●		
C2 56	허은주 Eunju HEO	회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상곡로 20, 백로상가 604호 허은주 갤러리(화실)	●		●
진해 Jinhae						
E3 57	곽순희 Soonhee KWAK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	●	
E3 58	김미성 Miscong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	●	
E3 59	김시윤 Siyun KIM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58번길 18-1			●
E3 60	김임숙 Imsuk KIM	문인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	●	
F3 61	김정희 Jungheu KIM	공예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2번길 35-1 정취공예연구소	●	●	

##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위치	이름	분야	주소	금	토	일
F3 62	김형집 Hyeongjip KIM	한국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71 (2층 김형집 화실)	●	●	
E3 63	문현주 Hyunju MUN	서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		
E3 64	박남순 Namsoun PARK	수묵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	●	
G4 65	박배덕 Baedeog PARK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62-19번지 박배덕 마당갤러리			●
F3 66	박선동 Sundong PARK	문인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633-1	●	●	
F3 67	이지영 Jiyoung LEE	한국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3 (404호 영아트리에)	●		
F3 68	이태호 Taeho LEE	한국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76-2 1층 현용화실			●
E3 69	최대식 Daesig CHOI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47-1(광화동 6-1)	●	●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작업실 위치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locations of the studios are checked on Naver Map via QR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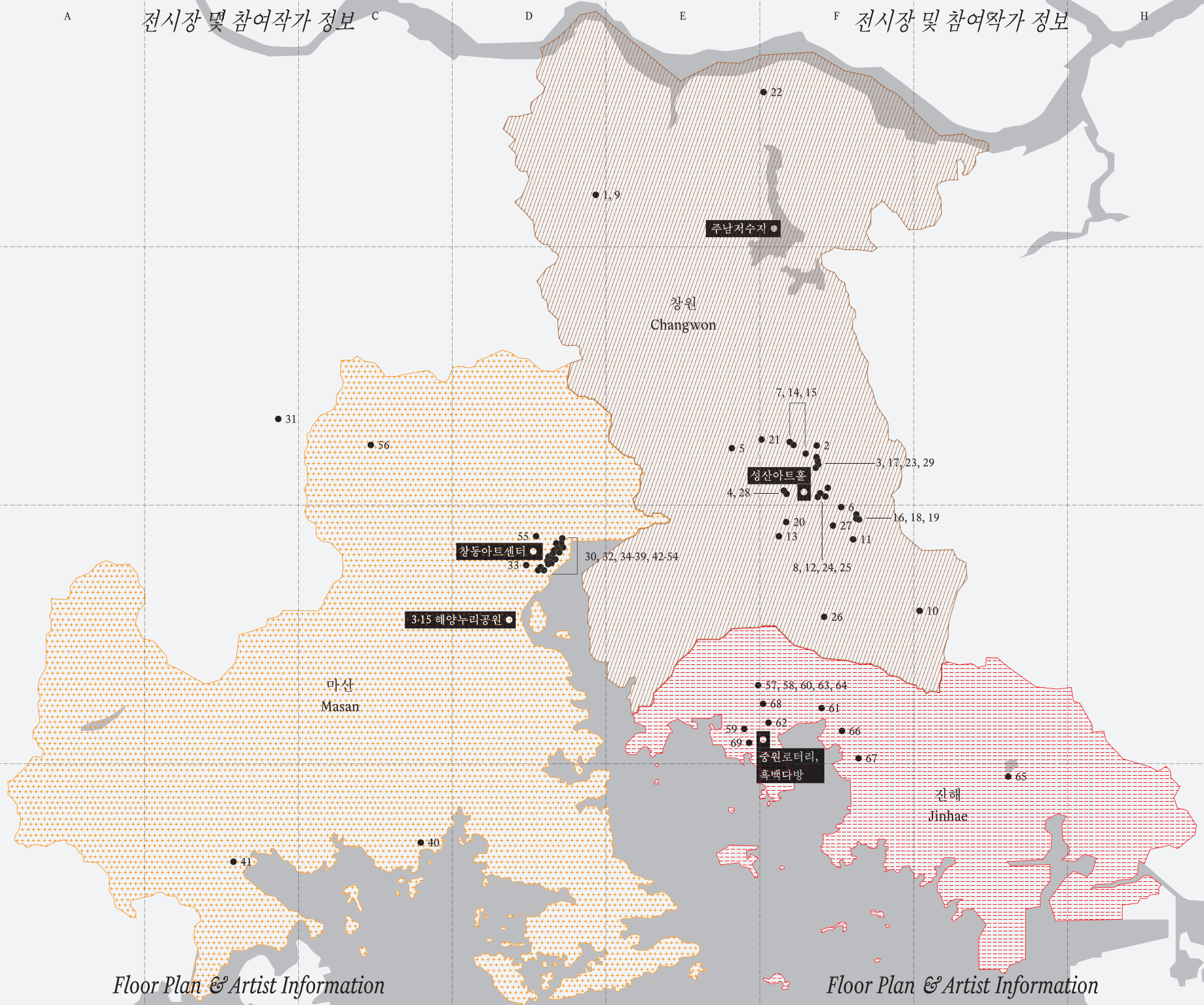


1

2

3

4



Floor Plan & Artist Information

Floor Plan & Artis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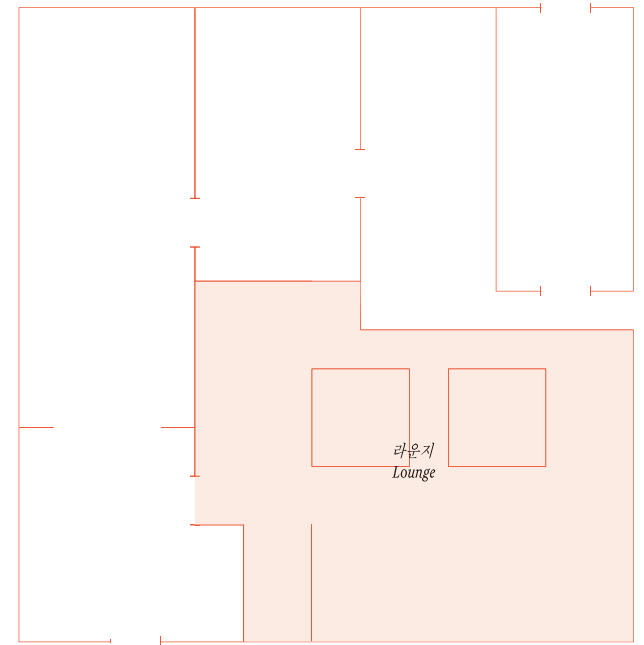
특별전 2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Special Exhibition 2  
Art Salon without Borders

특별전 2는 레지던시와 작가 스튜디오가 예술생태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탐색한다. 특별전 2는 레지던시의 개념과 변화, 팬데믹 이후 새롭게 부각된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스튜디오를 작품 제작 장소만이 아닌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위한 거점으로서 참여작가들 간의 상호 교환을 통한 거주 및 창작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영상과 자료를 통해 탐색해 본다.

Special Exhibition 2 delves into the meaning of residencies and artists' studios in the art ecosystem. It studies the emerging trend of virtual artist residency programs in the wake of the pandemic. Based on video footage and other displays, the exhibition examines how an individual artist's studio can be both a place of artistic creation and a hub of exchanges between artists participating in online residency programs.

34



35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라운지	Lounge
아니타 린드 (ZK/U 레지던시 코디네이터)	Anita RIND (Residency Coordinator, ZK/U)
박순영 (2022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	Soonyoung PARK (Artistic Director,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쥘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레지던시 큐레이터)	Giulio VERAGO (Curator, Viagarini Residency)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	Jinsuk SUH (Director, Ulsan Art Museum)
파트리샤 쿠버 (슬라브스 앤 타타르스 공동 디렉터)	Patricia COUVER (Co-Director, Slavs and Tatars)
크리스토프 탐너트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예술감독)	Christoph TANNERT (Artistic Director, Künstlerhaus Bethanien)
파울루스 푸저스 (소모스 예술감독)	Paulus FUGERS (Director, SomoS Art)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 2F 7  
A 1F 0  
A 1F 8



믿음만 있다면 건널 수 있다

I Can Cross If I Have Faith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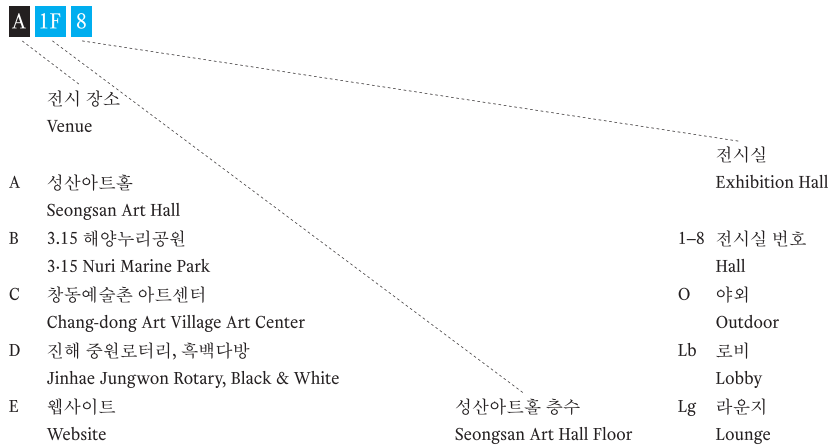
고무, 플라스틱 Rubber, Plastic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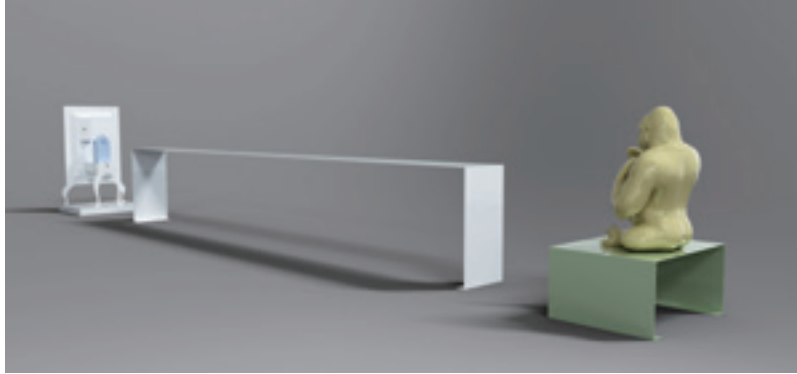
39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차주만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장벽에 주목한다. 성산아트홀 야외에 설치된 <믿음만 있다면 건널 수 있다>는 기둥을 가로지르는 견고한 철조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무로 제작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건널 수 있다. 작가는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통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장벽을 재고하고자 한다. 성산아트홀 내부에 설치된 <탈-경계 프로젝트: 너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전 세계 미술가들과 진행하는 릴레이 프로젝트로 물리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CHA delves into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barriers. Installed outside the Seongsan Art Hall, *I Can Cross If I Have Faith* displays a solid barbed wire fence across pillars. But the metal fence is actually made of rubber, and anyone can pass through it. The artist emphasizes the line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real, calling for a rethink of barriers that lie ahead of us. *Your Faith Frees Us* is an ongoing project participated by artists across the globe. The indoor installation is a collaborative effort to facilitate a global communication beyond physical barriers.





미스터 몽키씨의 일기

A Diary of MR. YELLOW MONKEY

2022

철, 파라핀 Steel, Paraffin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미스터 몽키씨의 일기>는 우편봉투, 서랍, 탁자가 결합된 사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영장류 동물이 바라보는 모습을 재현한 야외 조각 작품이다. 파란색으로 덧칠된 사물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외부의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의미하고,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존재는 전방위적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투영한다. 작가는 눈앞에 있는 걱정과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 그 대상과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기를 제안한다.

*A Diary of MR. YELLOW MONKEY* is an outdoor sculpture depicting a primate staring at spaced-out objects comprised of an envelop, a drawer, and a table. The blue coated objects represent the external material and psychological pressures placed on individuals, while the endangered mammal symbolizes a modern man living in the era of incessant, multi-faceted crises. The artist suggests rather than emotionally reacting to imminent issues facing us, we should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m from a distance, in hopes that tomorrow will be a better day.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40



In Winter I Will Fly

2022

플라스틱, 헤어드라이기 Plastic, Hairdryer  
700×200×200cm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41

작가는 비닐 소재의 대형 풍선에 헤어드라이어로 열풍을 가한다. 시원한 바람의 겨울날 풍선 입구에 고정된 드라이어는 풍선이 공중에 뜰 수 있을 충분한 열을 제공하며, 드라이어는 코드 길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중에 고정된다. 작가는 같은 방식으로 불확실한 원형이란 이름의 종이 모형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지녔고, 이곳에 바람을 넣어 원을 왜곡시킨다. 종이 양식의 물리적 과정은 표준 문자열 코드에 반영되며 작가의 홈페이지(standardstrings.alistairmcclymon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A hair dryer heats up a balloon constructed from plastic sheeting. In winter when the air is cool the hair dryer provides just enough heat to lift itself off the ground, its height constrained by the length of its own flex. The same hair dryer has been used to inflate a set of paper forms, titled *Uncertain Circles*, each with a unique unpredictable topology, distorting circles drawn with a length of string. The physical process of the paper forms is mirrored in code in the work *Standard Strings* which can be viewed at [standardstrings.alistairmcclymont.com](http://standardstrings.alistairmcclymont.com).





Butterfly on the Sun

2022

자외선방지 시트지 Printed Plastic (UV-resistant)  
창문에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on window

지난 150여 년 간 태양표면 흑점의 크기와 움직임을 학계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표면이 검게 보이는 영역인 흑점은 대개 쌍으로 나타나며 11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한다. 해당 도표를 처음으로 그린 천문학자 에드워드 몬더는 1904년 당시 그래프가 나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나비 도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작가는 나비 도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산아트홀 로비 유리천장에 대형 '태양 나비'를 만들었다. 나비 형태는 작가의 출생년도가 포함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총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For over 150 years scientists measured the size and movement of sunspots on the surface of the sun. These dark spots usually appear in pairs and are common during maximum solar activity every 11 years. When astronomer Edward MAUNDER first plotted these graphs in 1904, they looked like butterfly wings, hence the name 'Butterfly Diagrams'.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I used this scientific data to recreate a large 'Sun Butterfly' on the glass ceiling of Seongsan Art Hall. In this case, the butterfly wings are made using ten years of data from 1970 – 1980, the decade I was born in.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42

A JF Lb



총총나무 1298-1

Comus Controversa 1298-1

2022

나무, 볼트 Tree, Bolts  
1130×208×160cm

해발 400미터에 위치한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가 작가의 고향이다. 어렴풋한 작가의 유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가족이 서울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도시생활이 길어질수록 눈과 밭에는 작물 대신 나무와 풀로 채워졌다. 작가는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작업실 기초공사를 하며 50년간 자란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여 개인의 역사와 시간의 지표로 설정하였고 자연과 인간,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데 활용하기로 하였다.

The artist hails from Yeonban-ri, a small village in Jeollanam-do 400 meters above sea level. The village still reminds him of vague childhood memories. After his family moved to Seoul, rice paddies and dry fields in the area were covered with trees and grasses. He recently returned to his hometown to lay the foundation work for his studio. He decided to use a 50-year-old tree as a symbol of personal history and time, indica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and between creation and extinction.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43

A JF Lb



무중력

Zero

2022

혼합재료 Mixed Media  
가변크기 Variable Installation

두개의 소형 스피커가 마주 보며 설치되어 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는 서로 부딪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작은 무중력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들은 공중에 떠있고 외부의 바람과 진동에 반응한다. 작가는 물질 또는 비물질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형태를 만들 듯이 음파를 사용하여 무중력의 공간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형태를 구성하고자 한다.

Two compact speakers are set up to face each other. Sound waves from the speakers create new order by colliding with each other, which results in small and zero-gravity space. Things in the space stay in the air and react to wind and vibrations of outside. As forms are made through processing or restructuring materials or non-materials, invisible forms are designed in the space of zero-gravity by sound waves.



Hemmungsloser Widerstand

2020

세운 돌, 유리, 거울, 철 Found stones, Glass, Mirror, Corten steel  
100×69×109cm

‘억제할 수 없는 저항’을 의미하는 <Hemmungsloser Widerstand>는 서로 지탱하고 있는 네 개의 돌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돌은 바닥 프레임에서 대각선으로 뻗은 유리판을 관통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잡기를 완성함으로써 역경을 견디는 힘, 회복력, 지속성을 상징한다.

*Hemmungsloser Widerstand* (2021), roughly “Restless Resistance” in English as suggested by the artist herself, features four stones suspended against one another in an impossible balance. They appear to pass directly through the glass surfaces that extend diagonally from the sculpture’s base frame, evoking a sense of enduring strength, resilience, and continuity.

Courtesy: KÖNIG GALERIE Berlin | London | Seoul | Vienna



히페리온의 속도

The Velocity of Hyperion

2022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틱스 조각, 혼합매체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robotics sculpture, Mixed media

140×140×180cm의 조각, 가변 크기 영상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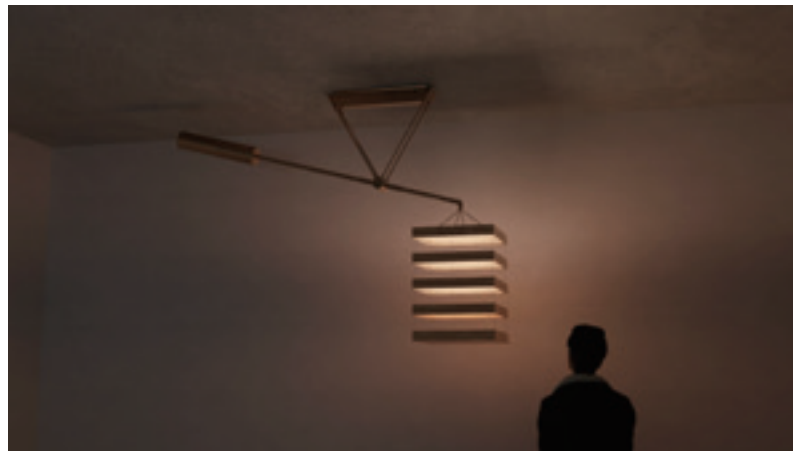
140×140×180cm sculpture, Variable size video installation

작가는 2009년 <미생물(未生物)> 작품을 통해 미시세계(미생물)와 거시세계(우주)의 유사성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히페리온의 속도>의 문제의식은 그 연장선에 있다. 관객은 우주 속 행성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미립자 같은 입자(Particle) 한 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기계 두상과 마주하게 된다. 기계 두상은 관객이 다가오면 눈을 뜨고 입을 벌려 관객과 대화를 한다. 히페리온은 그리스어로 '위에서 보는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보는 능력을 준 빛의 신이다. 히페리온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이 미시세계와 닮은 또 다른 우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Velocity of Hyperion* is a follow-up to ROH's 2009 work *Inanimate Organism*, which question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micro world (microorganisms) and the macro world (universe). Particles are floating like planets in space or invisible microscopic particles in the air. When the audience approaches, the mechanical head of Hyperion opens its eyes and opens the mouth to talk to the audience. A Greek god of light whose name means "he who watches from above." Hyperion contributed to mankind by giving them the ability to see. The artist hopes that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machine head of Hyperion will offer a chance to experience another universe that resembles the micro world.

46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Heavy Light on the Ceiling 2

2022

동, 알루미늄, LED Copper, Aluminum,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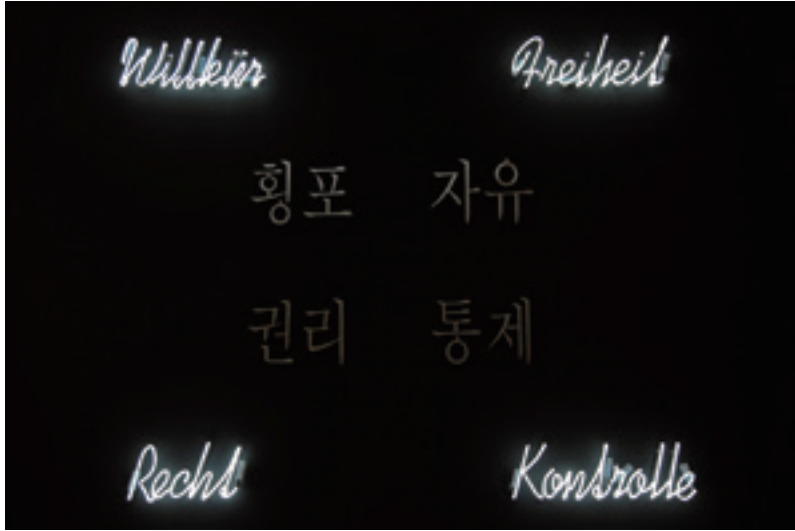
220×200×200cm

47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헤비 라이트>프로젝트는 빛이 무게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지는 조명 제작 프로젝트이다. 빛의 무게를 확인하는 일은 미시세계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작은 질량이나 사건이겠지만 작가는 이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작가는 빛의 무게를 상상해보았고, 그 상상이 구축한 이상한 가설을 일상의 환경부터 구현해 간다.

*The Heavy Light series* is a light project delving into a hypothesis that light has weight. This is an interesting idea that could be proved at the micro level, but the artist deliberately avoids approaching it from a scientific, logical or philosophical perspective. He simply experiments with the unlikely hypothesis in everyday situations.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Version 3)

2022

네온 문자, 강철 문자, 케이블 변압기  
White neon letters, Steel letters, Transformers  
220×185cm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한 사회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분쟁, 억압, 폭력 및 학대의 과거사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과 기제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는 한국과 독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횡포,’ ‘자유,’ ‘권리,’ ‘통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본 개념미술 작품이다.

“Transitional justice” covers the full range of processes and mechanisms associated with a society’s attempt to come to terms with a legacy of large-scale past conflict, repression, violations and abuse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serve justi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The conceptual art installation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deals with the similarities and contrasts of Korea and Germany as historically divided nations by means of the thematically concise terms “arbitrariness/despotism”, “freedom”, “law/justice” and “control”, whose meanings are interpreted differently in the two nations as well as in capitalist and socialist systems, takes up the theme in an abstract philosophical context.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48



고유시

Proper Time

2022

668개의 시계 668 Clock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고유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고유한 시계를 만든 작품이다. 시계의 속도는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노동시간, 임금, 물가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이를 통해 삶의 질, 경제적 자유도, 자본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시계의 서로 다른 속도로 표현된다. 한편, 수백 개의 시계 초침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아침식사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을 각자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사운드도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삶과 주관적인 삶 사이의 진동을 보여준다.

*Proper Time* features walls of clocks that represent the proper time experienced by individual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speed of each clock was calculated based on an interview where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their occupation, gender, age, residential area, working hours, wage, and local prices among others. Answers were compiled to assess th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which were expressed as varying speeds. The ticking sound of hundreds of clocks is overlapped with the participants’ voice recordings recalling their memories of breakfast, calling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a quantified life and a subjective life.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49





침묵 속에도 소리가 있다

There is a Sound in Silence

2022

혼합매체 Mixed media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침묵 속에도 소리가 있다〉는 수십여 개의 네모난 상자로 이루어진 설치 작업이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돈, 기름, 쌀, 철조망, 기계의 부속, 모호한 풍경의 일부를 확대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평소 지나치기 쉽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회의 단면이거나 미세한 지점이다. 배성미는 자연의 질감을 흐릿하게 지닌 결면과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내부의 모습을 통해 간극을 제시하는 한편, 부분을 포착하여 무엇인지 유추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사건과 사물, 자연의 단서들이 나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질문을 제기한다.

*There is a Sound in Silence* is an installation piece consisting of dozens of boxes. A look inside through a loupe shows an enlarged image of part of money, oil, rice, barbed wire, a mechanical part, and an ambiguous landscape. Each captures a cross-section or moment in busy modern life that we usually pass by without noticing. The box's subtle natural texture draws a contrast with the symbols of modern society found within. BAE encourages viewers to guess the object from the close-up image and explore their personal relationship with a set of incidents, objects, and natural clues.



태양들의 먼지 II

La Poussière de Soleils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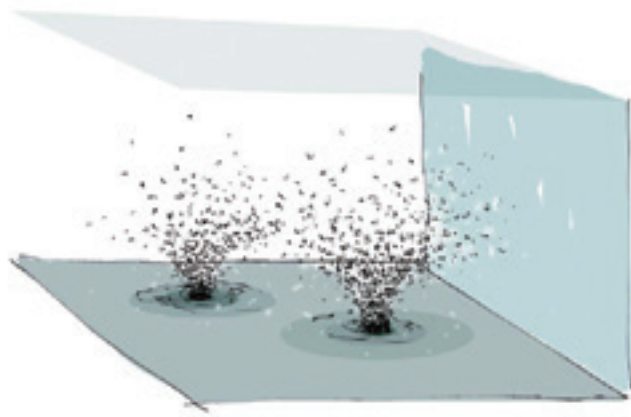
2022

LPDS 용액, 아크릴, 알루미늄, 모터, 마이크로 컨트롤러  
LPDS solution, Acrylic, Aluminum, Motor, Microcontroller  
260×150×100cm

〈태양들의 먼지 II(2022)〉는 프랑스 시인 레이몽 루셀의 희곡 〈태양들의 먼지(La Poussière de Soleils, The Dust of Suns)〉와 같은 제목의 작품으로, 인공과 자연이 융합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설치 작품이다. 땅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광물은 실험실의 용액들을 지나 전시장에서 하나의 빛이 된다. 고온의 열과 물, 그리고 음파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유체가 된 광물은 마치 혈관처럼 얽힌 튜브들로 연결된 패널에 담긴 채 끊임없이 순환한다. 영겁의 시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광물은 빛을 출렁이게 하는 주체가 된다.

*La Poussière de Soleils II* (2022), a nod to French poet Raymond ROUSSEL's play *La Poussière de Soleils* (*The Dust of Suns*), is a living sculpture that merges the artificial and natural. The mineral, which had been sleeping deep in the ground, passed through the vortex of the laboratory and became a light in the exhibition hall. Minerals, which have become fluids made up of small invisible particles through high-temperature heat, water, and sonic waves, are contained in a transparent panel connected by entangled tubes like blood vessels and circulate constantly. Minerals, which had been in the deep darkness for eons, became the subject of light oscillations.

A IF 2



우연한 꽃

Uncertain Flower

2022

송풍기, 비눗물, 안료, 철, 동, 플라스틱  
Blower, Bubble liquid, Pigment, Steel, Copper, Plastic  
300×600×500cm

〈우연한 꽃〉은 오브제 작업이 아닌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설치작품이다. 전시장 바닥에 전시 관람시간 동안 비누방울을 만들어내는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주변에 흔적을 남긴다. 관객은 작은 입구로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간적 어긋남을 유도하고 작품 공간을 초현실적이며 미래적인 분위기로 연출한다.

*Uncertain Flower is an installation that sheds light on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interaction with space, rather than an object piece. A bubble-producing device is installed on the floor to produce bubbles throughout the opening hours of the exhibition. Viewers pass through a narrow entrance to see the artwork, which results in a spatial distortion, leaving the space of work appear surreal and futuristic.*

52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 IF 2



The Walking Man II

2018(2022)

철 프레임, 알루미늄, 황동, 타이밍 벨트와 풀리, 모터  
Steel frame, Anodized aluminum, Brass, Timing belt & pulley, Motor  
273×110×110cm

53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The Walking Man II〉는 가장 인간다운 ‘걷기’ 행위를 가장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구현한 키네틱 설치 작업이다. 인간이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직립보행’이라는 특별한 보행방식은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다른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보행방식은 인간이 ‘인간적’임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연상 기제로 작용한다. 작품은 크랭크와 모터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계를 통해 ‘인간다움’에 대한 연상과 인식의 경계를 시험하는 시각적 탐색이다.

*The Walking Man II is a kinetic installation that embodies the concept of walking - the most human-like behavior - in the most mechanical mechanism. Walking upright is the very symbol of human evolution and involves a delicate balancing act where you need to transfer body weight from one leg to the other. It is also a strong reminder of what makes us human. The simple mechanism consisting of cranks and motors is a visual exploration that tests the boundaries of “humanness.”*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

NFT Museum (The Thinker)

2022

단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1분 30초 1min. 30sec.

작가는 최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변화 - 코로나, 셋다운, 전쟁, 메타버스 등 - 에 따라 예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유형이 요청된다고 보고, 원본의 부재와 예술작품의 표현대상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뉴폴더-드래그>, <피에타>, <NFT 미술관> 시리즈를 선보여 왔다.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은 블루스크린이 미술사적 의미를 지니는 예술작품을 덮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블루스크린은 점차 가속화되는 정보미디어 사회에서는 새로운 공포의 이미지이며, 이는 현대사회와 인류에 대한 경고를 암시하는 듯 하다. 3D로 제작된 이 영상작품의 2700프레임 중 한 프레임을 입체화한 조각은 예술작품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조각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LEE believes that recent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VID-19, lockdowns, war and metaverse, call for a new type of art. In response, he has unveiled *New Folder-Drag, Pieta*, and *NFT Museum series*, raising awareness about the absence of the original and the simulation of the subject of art. *NFT Museum (The Thinker)* is a video where a blue screen drapes over an iconic sculpture with historic significance and soon disappears altogether. A blue screen, which is displayed in the event of a fatal system terror on a computer, has become the new image of horror in the fast-paced digital information era. It appears to be a warning to modern society and mankind. The sculpture is a 3D representation of one of the 2,700 frames of the 3D-rendered video. It captures changes in the production of art, in a stark contrast to conventional sculptures.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54

A IF 2

인간사와 자연사가 맞닿은 진화과정은 두 역사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각 탐지기를 상징하는 <Sewing Fields: Anthropoid Bee>는 서로 다른 생물종과 공동체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상호협력적인 진화를 조명한다. 작가는 개인의 상상과 내부 경관, 여러 (소우주) 수준의 조사를 기반으로 감지된 시간과 측정된 시간을 병치함으로써 현지에서 발견된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해 탈이분법적·비선형적 접근법을 취하고, 그 속에 흐르는 역사를 이해하며 인류, 자연, 역사의 바람과 힘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imbricating human and natural histories has prompted us to consistently and repeatedly understand how these histories interact and influence each other in this dynamic relationship.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as a metaphor for a sensory detector, points to a collaborative evolution, which aims to foste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species/communities. Through individual imagination, inner landscape, and a survey of different (microcosmic) scales, the project juxtaposes sensed time and measured time to formulate a non-binary, non-linear approach from natural and man-made objects observed locally to understand histories, along with the desires and forces in and of humanity, nature, and historie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55

A IF 3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2022

캔버스위 디지털 프린트, 자수  
Digital print on canvas, Embroidery

60\*90cm





Anthem while Bound

2022

단체널 비디오, 스테레오 Single channel video, Stereo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Anthem while Bound>는 국가(國歌)를 매체로 한 집단 행위예술 작품이다.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이 강조한 것처럼 국가는 한 나라의 화합과 결속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가] 제창은 개성을 드러내고 상상의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현실화되어 매아리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얼마나 사심없이 보이는 동조(同調)인가! 우리가 국가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이들이 함께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심지어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상상의 노래가 서로를 연결할 뿐이다.” — 베네딕트 앤더슨 작 『상상된 공동체』에서 발췌

작가는 여러 공동체를 넘나들며 구축해 온 온라인 유대가 일종의 속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지나 정보의 포화 상태가 우리를 구경꾼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The medium for the collective action in this performance is the national anthem. As Benedict Anderson has shown, national anthems experientially tie together the nation and its citizens.

“Singing (the national anthem) provides occasions for personality, for the echoed physical realization of the imagined community. [...] How selfless this unisonance feels! If we know that others are singing these songs precisely when and as we are, we have no idea who they may be, or even where, out of earshot, they are singing / Nothing connects us all but imagined sound.”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We—who live simultaneously across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must recognize that these online bonds are a form of constriction. Isn't the image/information-saturated environment around us turning us into even greater onlookers?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56



담을 수 있다면... 담을 수 있겠지

If it Can Hold it... it Shall be Contained

2022

유리 Glas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푸른 기억의 잔상을 파도의 물결에 비유하여 표현한 설치 작업이다. 유리 캐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나의 유기적 형태의 덩어리에서 두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색의 깊이에는 기억너머 나에게 스며들던 푸르름의 순간이 그 깊이 안 어딘가에 각인된 채 빛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관객은 푸른 물결에 담겨진 순간의 조각들 사이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f it Can Hold it... it Shall be Contained* is an installation art in which the afterimage of the memory of all that is blue is metaphorically depicted as the waves of the sea. From one organic mass created using the glass casting method, the natural depth of colors created by the different thicknesses reveals the moments of the blueness, which permeated me, engraved somewhere beyond the memorie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discover their reflections among the fragments of moments captured within the blue wave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57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서울 활동

오순미

(1976, 한국)



봉인된 시간\_삶

Sealed Eternity\_Life

2022

거울, 단채널 비디오 Aluminum coating on the Glass, Single channel video  
각 7분 1초, 가변설치 7min. 1sec. each, Variable installation

<봉인된 시간\_삶>은 창원에서 촬영한 일몰과 일출 영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중앙에 설치된 거울에 의해 양쪽 벽면에 투사되고 반사되는 영상은 탄생과 죽음의 알레고리이다. 생명의 유한함을 상기시켜 주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지표가 된다. 작품은 어둠과 밝음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 영원할 것 같은 삶에 반성적 사고를 유도한다. 작품에서 일몰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밝음이 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자 앞으로의 미래이다.

*Sealed Eternity\_Life* is comprised of video recordings of a sunset and a sunrise in Changwon. The images projected on both walls by the central mirror are an allegory of birth and death. Time reminds us of the finiteness of life, serving as a passag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The endless loop of light and darkness encourages contemplation on seemingly eternal life. The sunset is interpreted as a time we need to wait out for light to come, rather than a time that makes everything disappear.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works in Seoul, Korea

Soonmi OH

(1976, Korea)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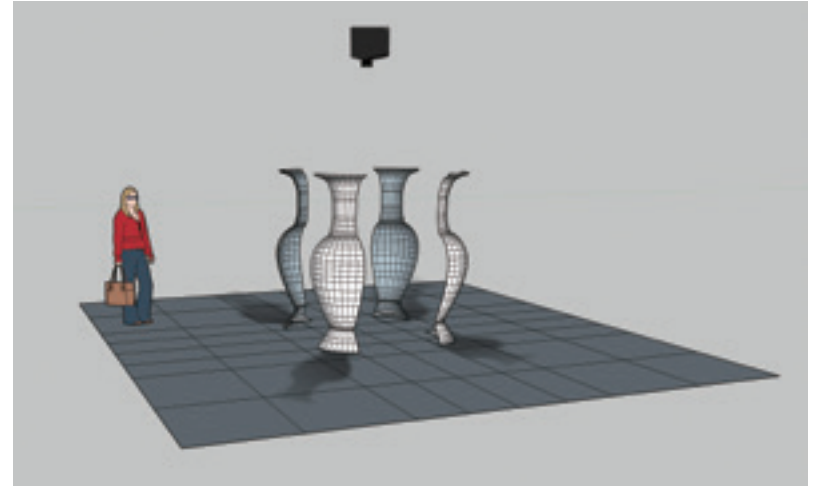
58

A I F 3

한국 김포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성남 거주 및 활동  
한국 정읍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김혜경×진케이×최재필

(1974, 한국)  
(1975, 한국)  
(1976, 한국)



픽셀: 시간과 공간을 잇다

Pixel: Bridging Time and Space

2022

브릭, 인터랙티브 미디어, 모션아트웍  
Bricks, Interactive media, Motion artwork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59

A I F 3

<픽셀: 시간과 공간을 잇다>는 전통예술 문화와 미디어 아트의 접목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지닌 현대적 요소를 디지털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형태의 브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미디어 예술로 재창조한다. 과거 매체와 현재의 뉴미디어를 잇는 프로젝션 매핑,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LED 인터랙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 빛과 사운드, 움직임을 가미해 관객에게 과거와 현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적 소통을 시도하려 한다.

*Pixel: Bridging Time and Space* explores the interface between traditional art and media art. Modern elements of beautiful Korean traditions are reinvented as bricks of pixels, which are the smallest digital uni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projection mapping, sound visualization, and LED interaction are combined with light, sound, and movement to facilitate a communicatio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Born in Gimpo,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ngnam, Korea  
Born in Jeongeup,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Hyeyoung KIM×  
Jin Kei×  
Jaepil CHOI

(1974, Korea)  
(1975, Korea)  
(1976, Korea)



Green Green Green Go Ahead

2022

일륜차, 나무 Trolley, Tree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이 작품은 도시녹화와 산림보호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작가의 초대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므로 도시녹화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비해,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도심 속 녹지공간은 토양 보호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토양이 안정화되면 우천시 빗물이 토양에 충분히 스며들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하려면 도심 내 녹지지역과 건축용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This work is about an invitation to greening of the city movement as well as the movement to maintain existing green plants. Greening in cities is needed to reduce global warming because green plants can absorb carbon dioxide(CO<sub>2</sub>) and release (O<sub>2</sub>) gas through photosynthesis. Carbon dioxide gas is a toxic gas that causes global warming, while oxygen gas produced by plants can increase the supply of oxygen that can be inhaled by our society to be healthier and tree from air pollution. Greening in the city has various advantage such as a protector of the soil. If it rains, the soil will absorb the water in the end there will be no flooding — therefore it requisies land division between green open land and building land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environment.



12m 아래, 어둠 속

2022

2채널 비디오 2 channel video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12m 아래, 어둠 속>은 비인간 존재와의 연대와 공생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집체 퍼포먼스로 담은 작품이다. 퍼포먼스 참여자는 인간동물로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공간에서 안내자와 함께 작가가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퍼포먼스에서 관객은 수동적 관람자가 아닌 주체적 수행자가 되어 마치 땅속 생물종처럼,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며 어둠 속의 다른 종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서로의 냄새와 촉감과 소리의 진동을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입자와 파동의 그 사이 공간과 시간 어디쯤에서 자신의 위치를 몸으로 확인해보는 것이다.

12m Down, in the Dark is a group performance piece that entails an artistic exploration into solidarity and co-existence with non-human beings. The performance proposed by the artist is presented by a human animal, alongside a guide in a pitch black space. During the performance, viewers become active participants rather than passive spectators, relying on senses other than vision to navigate the dark like underground organisms and encounter other species. This enables a special experience to re-perceive and connect with other beings through smells, touches, and the vibration of sounds. Viewers are able to realize their bearings in space and time, somewhere between a wave and a particle.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The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2022

비디오 설치 Digital animation Projection, Sound installation or Headphone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The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는 녹색의 기암괴석이 즐비한 어두운 동굴세계에 사는 반짝이는 생명체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작가는 생물 백과사전의 삽화와 독일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1834-1919)의 미생물 그림을 구체화시키고 개성을 부여하여 자신만의 생명체들을 탄생시켰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믿음 하에 전체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전달한다.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미생물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동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The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shows an animation of a cave-like universe made out of green soft shaped rock-formations where illuminated creatures are emerging from the dar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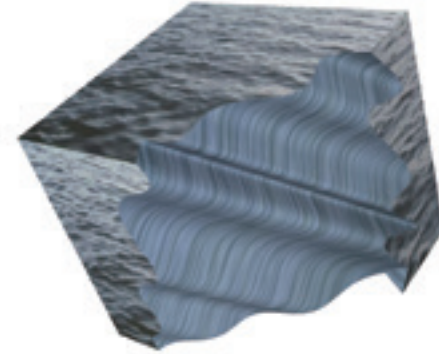
I developed the drawings further and gave character to the lifeforms. To be seen in scientific drawings from biology encyclopedia and from the drawings of Ernst HAECKEL (1834-1919) a scientist who illustrated the smallest lifeforms.

With this installation I like to trigger the sensibility of faith and the longing of humans to be part of a whole ecosystem,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organisms have equal value. Does it matter what form we are worshipping? Can even the smallest life forms give us a divine moment? When do we feel we are part of the natural system again?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62

A 2F 4



떨림의 흔적

2022

비디오 설치, 스티로폼,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Video installation, EPS, 3 channel video, Color, Sound

180×483×315cm, 각 5분, 5분, 11분 15초

180×483×315cm, 5min, 5min, 11min. 15sec. each

Trace of Tremor

<떨림의 흔적>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프리소스 이미지를 가공한 영상과 스티로폼 조각으로 이루어진 설치작품이다. 휘발되는 디지털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작가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 - 반짝이는 순간을 담은 바다, 호수, 강 등의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상의 3D 조형을 만든다. 이는 실제 세계의 조각과 유사해 보이지만 오직 시각적으로 감각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는데 비물질적인 디지털 이미지는 이러한 떨림이 없다. 작가는 떨림이 없는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써 고유한 진동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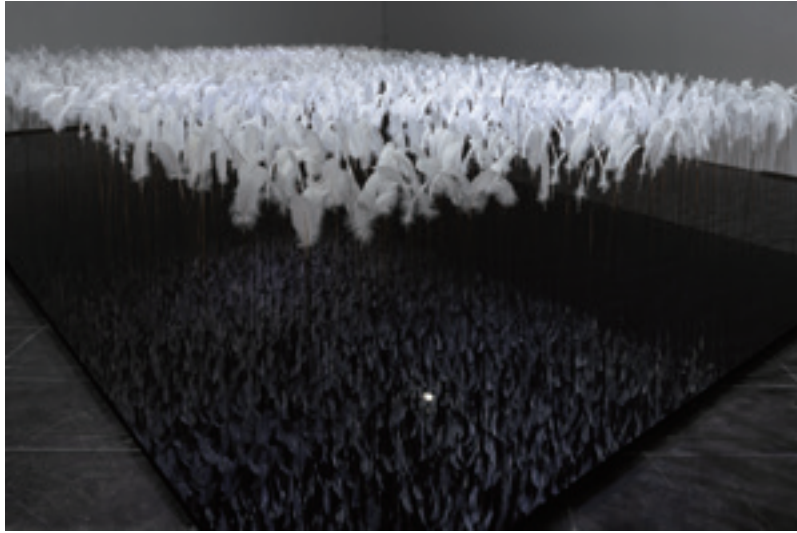
*Trace of Tremor* is an installation that combines a video collage of free-source images from the Internet with styrofoam sculptures. In the flood of digital images, JEONG carefully selected the ones that hold personal meaning — those capturing the glistening surface of a body of water, such as sea, lake, and river and recreated them into three-dimensional forms in virtual space. These figures may appear similar to real-world sculptures, but they can be only sensed through vision. In quantum mechanics, every matter has a specific frequency at which it vibrates. But digital images, which are immaterial, don't. The work exemplifies the artist's desire to assign an inherent frequency to these fleeting, non-vibrating image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63

A 2F 4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_2022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_2022

2022

깃털, 스테인리스 스틸, 아크릴판, 혼합매체  
Feather, Stainless steel, Acrylic sheet, Mixed media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이연숙은 어느 한때 방문한 잊지 못할 장소인 호주 중앙사막을 떠올리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_2022>을 선보인다. 녹이 쓴 철처럼 붉고 곁이 고운 흙과 각종 허브, 사람의 체취와 같은 냄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에서의 마들렌처럼, 작가에게 당시의 기억을 소환시킨다. 작가는 그곳에서 발현된 모든 감각을 재료로 삼아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으로 그곳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붉은 땅과 파란 하늘 아래서 만난 모든 존재가 제각기 의미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 곳을 관객도 함께 느껴보기를 제안한다.

사진: 김재범  
한국예술위원회와 아트앤테크 지원사업입니다.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_2022* is a recollection of LEE's unforgettable experience in the desert in central Australia. The silky texture of rusty sand and the smell of different herbs and body odor conjure memories in the outback for the artist, like the madeleine in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Sensory simulations including visual, olfactory, and tactile sensations are used to recreate the desert. The installation encourages viewers to feel the place where every being standing on the red earth under the blue sky co-exist peacefully.

Photography: Jaebum KIM  
Supported by ARCO & Art and Tech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64

A 2F 4



Photography: @STUDIO CHICCO

대화의 풍경 #10

Scenery of Dialogue #10

2022

나무, 철, 모터 Wood, Steel, Moter  
230×230×600cm

<대화의 풍경>은 작가가 자신의 배우자와 집에 대한 이상적인 풍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이해, 대화의 과정을 설치로 풀어낸 작업이다. 벽지의 색과 가구의 모양, 소품에 대한 서로의 취향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달랐던 경험이 반영된다. 이렇듯 양정욱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삶의 일화를 작품에 담아냄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킨다.

*Scenery of Dialogue #10* is an installation that represents the process of misunderstanding, understanding and dialogue the artist and his spouse underwent as they worked to create an ideal home. The work reflects their seemingly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tastes in wallpapers, furniture and interior accessories. Rooted in YANG's personal everyday story, it gives us a new lens to view life with.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65

A 2F 4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2022

재활용 나무, 판지, 카펫, 흙, 벤자민 나무, 식물램프, 콘크리트, 석탄, 빗물떨이 가방, 튜브  
Recycling wood, Cardboard, Carpet, Soil, Benjamin tree, Plant lamp, Concrete, Coal,  
Rainwater dropper bag and tube  
300×610×360cm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그린 설치 작품이다. 작품의 겉모습은 내부의 실상과 시각적이나 경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육면체의 구조물은 흡사 대피소나 해상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데, 둘 다 임시적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명과 음향, 촉각의 균형과 거리가 바뀌는 달라진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두 개의 대조되는 현실이 결합되는 독특한 경험을 안겨준다. 작품명은 독일의 중국학자 리하르트 빌헬름이 번역한 중국의 도교 경전 『태음금화종지』의 영문 제목을 빌렸다.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environ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The appearance of the installation and the internal reality do not synchronize with each other, they are visually and experientially separate from each other. The appearance is a visual mix of a shelter and a sea container, both of which are temporary spaces. Inside the installation, the light, acoustics, haptic balance and distances feel different. At its best, the work can offer a viewer an experience that creates a unifying synthesis between these two realities. The title of the work is borrowed from the book “Yijing”, Chinese book of life translated (and westernized) by Richard Wilhelm.



맹목 (1)

Unconditionally (1)

2022  
실, 3D 프린트 Thread on 3D print  
106×60×47cm

이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맹목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작업에서 서로 다른 신체의 일부분이 합쳐져 하나의 인체를 형성하거나 인연을 상징하는 실이 신체를 잇는 모습은 부모와 자식,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한다. 불완전한 신체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상징하며, 개인은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Drawing from her personal experience, LEE focuses on the need for unconditional love between individuals. Cross-sections of different bodies are combined to form a single body, and figures are interconnected with a thread. These represent the powerful bond seen in various types of relationships, including those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nd between lovers. The incomplete bodies stand for room for acceptance, suggesting that one should learn to embrace others to build a community.



메모리얼 안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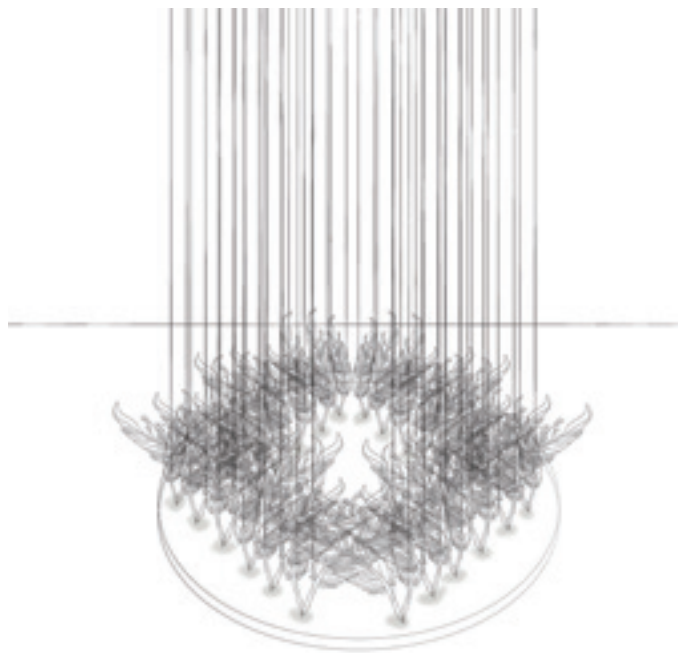
Memorial Antenna

2011~

사진, MP3 플레이어, 헤드폰, 혼합재료  
Photographs, MP3 players, Headphones, Mixed media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백정기는 이번 전시에서 <메모리얼 안테나>와 신작 <능동적인 조각>을 선보인다. <메모리얼 안테나>는 야외에 놓인 동상을 라디오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안테나로 이용하는 장소 특정적이고 한시적인 프로젝트이다. 동상을 구성하는 주요요소로서 상징성(의미)과 물질성(재료)을 설정하고, 안테나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여, 동상에 입혀진 강렬한 상징성 뒤편에 침잠되어 있던 물질적인 속성을 표면화시킨다. 이 작품이 동상을 안테나로 이용해서 무작위의 라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작품이라면, <능동적인 조각>은 임의의 동상을 제작하고 이를 안테나로 이용해서 라디오 신호로 '송신'하는 작품이다. 송신되는 라디오 신호의 사운드는 잠음과 오래전에 송신된 듯한 끊기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로 들려주는 정체불명의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다. 두 작품 모두 동상에 내재된 잠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진다.

BEAK has submitted two pieces for this exhibition - *Memorial Antenna* and *Active Statue*. *Memorial Antenna* is a site-specific, temporary project that uses an outdoor statue as an antenna to receive radio waves. The artist assigns key elements of representation (meaning) and materiality (material) to the statue. By endowing it with a new function as an antenna, he brings to the fore the material properties that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due to the strong representation of the statue. While the former turns a statue into an antenna to 'receive' random radio signals, *Active Statue* is designed to 'transmit' radio signals with a randomly created statue that works as an antenna. Transmitted radio signals feature old voice recordings with static and other background noise, as well as ambiguous words and sentences the voice utters. Both installations reveal the inherent potential of a statue.



구름의 흔적

Clouds: Leave a Trace

2022

깃털, 초크, 끈, 진동모터장치,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공급장치 외 기타  
Feather, Chalk String, Motor, Microcontroller, Power supply etc.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신승연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인상적인 찰나의 장면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그것은 신체적이고 촉각적인 경험인데, 특이점으로 남은 기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름의 흔적>은 기억의 지속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줄을 따라 바닥에 놓인 깃털까지 전달된다. 한없이 가벼운 깃털의 진동은 천장에서 바닥에 이르는 높이만큼 흔들림이 커지며 공간 전체에 떨림을 가시화한다.

SHIN focuses on the lasting impact of memorable moments in everyday life. Memories that remain as a physical and tactile experience continue to make impressions. *Clouds: Leave a Trace* highlights the continuity of memory, as small vibrations travel along the string from the top to reach feathers on the floor. The movement of lightweight feathers is amplified to fill the entire space from the ceiling to the floor.





The Gene of Cities

2022

단일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8분 44초 8min. 44sec.

도시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빚는 플랫폼이다.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적 구조로부터 비롯된 도시는 인간만큼이나 복잡해졌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돈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 후기자본주의 사회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

자본 중심적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이익 추구가 최우선시된다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삶과 가치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까? 작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현 도시구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한다.

We use cities as platforms that shape our lives and our environment. Growing up as a giant living organic structures, cities became as complex as human themselves. In this complex environment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s inextricable from the dynamics of post capitalistic society, where money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ment standard.

What would happen to the present and future of 'moneyfold' complex contemporary society if everything become commercialized and the desire to pursue money is put first? Does that mean that rich and diverse ways of life and values are elimin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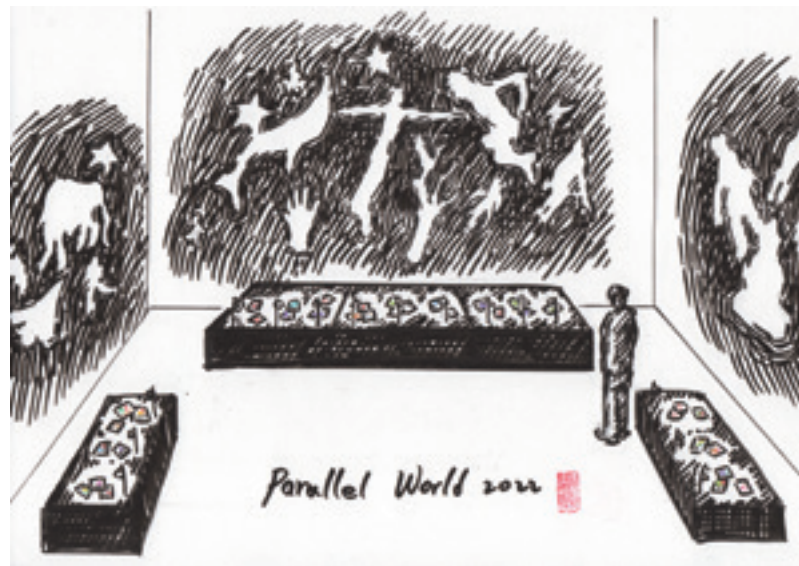
Project is investigating 'How human beings become isolated feeling suffocating by themselves or society for economic reason and pressure from current urban structure into next decades.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70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71



평행세계

2022

거울, 유포지프린트, LED조명, 좌대  
Mirrors, Yupo print, LED lightings, Pedestal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이창원의 <Parallel World>는 서로가 타자인 두 세계의 인과성을 보여 준다. 작품을 보러 암실에 들어간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벽에 비친 빛의 실루엣이다. 동화책에 나올 법한 빛의 형상들은, 먼 옛날의 동굴 벽화를 연상시키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실루엣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오려서 만든 것이다. 사진들은 재난, 전쟁, 정치적 분쟁 등 어두운 현실의 장면을 담는다. 작가는 그런 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자리에 거울을 붙이고 빛을 반사시켜 벽 위의 형상을 연출한다. 그럴 때, <Parallel World>의 두 축인 벽의 이미지와 사진 속 장면은 서로 평행이다. 둘은 물리적으로 빛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대립하며, 따라서 그 사이에는 서로를 가리키는 연결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Parallel World by Changwon LEE shows the causality between two worlds that are "the other" to each other. The first encounter visitors experience when entering the dark room is a group of silhouettes on the wall. The shapes of light look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book, reminding viewers of mysterious ancient cave paintings. But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e silhouettes are made of cut-outs of photos from newspapers or the Internet. These photos unveil the dark side of reality, such as disaster, war, and political conflict. A mirror is placed on the cut-out part of the photos to reflect the light and project images on the wall. When that happens, the image on the wall and the photo — the two key axes of the work — form a parallel relationship. The two are connected by light, yet their meanings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is produces a link and a perennial gap in between.



From Synapses to Free Will

2022  
직물 또는 종이 위에 혼합매체  
Mixed media painting installation on fabric and paper  
200×600×450cm

〈From Synapses to Free Will〉은 인체의 신경 시냅스(신경세포 연결부)를 묘사한 회화 설치 작품이다. 막대에 걸린 대형 회화들은 한데 모여 연속적인 패브릭 월을 이룬다. 마치 나선형의 미로 같은 가상의 브레인맵을 오가며 그 안에서 신경세포 이미지를 관찰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3차원 브레인맵을 바탕으로 구현된 천 위의 이미지는 뇌를 둘러싼 과학적 인식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물리화학을 전공한 작가는 신경다양성의 계층적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인맵들을 작품에 녹여낸다.

My plan is to create From Synapses to Free Will, a painting installation depicting our neuronal synapses. The installation is made of a set of large paintings that hangs on light rods adjacent to each other, creating a continuous fabric wall. This "wall" configures a spiral path through an imaginary brain map, leading the viewer to walk into and observe the neuronal images from within.

The painted based on the current online available three-dimensional brain maps. concentrates on the vulnerability of our scientific perception of the brain. With my background as an artist and physical chemist, I distill the available brain maps into art, following personal family connections to the layered effects of neurodiversity.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72

A 2F 6



무엇임

ti

2021  
레진 Resin  
19×15×15cm

김범수의 〈무엇임 ti〉은 초현실주의 작가 막스 에른스트의 물라주 소설 『백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에 실린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조각, 사진으로 제작한 연작이다. 작가는 의학적 도식과 삽화, 신체의 부분 사진을 참조하여 서로 다른 몸들이 결합된 작품을 제작한다. 형용할 수 없는 상태의 형상은 시각적인 강렬함을 주는 한편 불확정적인 상태가 일으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시하게 만든다.

The ti series is a collection of sculptures and photographs inspired by *La femme 100 têtes* (*The Hundred Headless Woman*), a collage novel by surrealist master Max ERNST. KIM refers to medical diagram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s to create figures with randomly put together body parts. The indescribable forms lend striking visual appeal, while shedding light on the fear and anxiety caused by uncertaintie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73

A 2F 6



Sounding Waters: Nakdong River, South Korea

2022

장소특정형 오디오 Site-specific audio (8-12 channel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작가는 인간 활동과 비인간 활동의 복잡한 집합체를 가청화하고, 다들여지지 않은 수중 세계의 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낙동강의 통일된 ‘목소리’에 대한 추상적 해석으로 발전시킨다.

낙동강은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산업발전, 야생생태계, 인간활동의 버팀목이 되어 한국의 지형 및 역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이다. 작가는 작품 제작을 위해 낙동강 자전거길을 심분 활용했다.

The installation makes audible the complex assemblage of human and nonhuman activities and sweeps gradually from a non-stylized sonic representation of the river's subsurface, to a more abstracted interpretation of the unified "voice" of Nakdonggang.

Nakdonggang is the longest river in South Korea: "its waters" support a diverse range of industry, wildlife, and human activity, and have been central in shaping Korean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The river"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untry. Production of this project "was done using" Korea's impressive bicycle path system running long the banks of Nakdonggang.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74

A 2F 6



Circle of Amphisbaena

2022

밧줄, 쇠파이프 Rope, Carbon steel pipe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정순호는 기계적이거나 자동화된 힘이 아닌, 작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이 사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밧줄을 이용하여 철제 캐비닛이라는 단단하고 견고한 공산품을 변형시켜 와이어에 걸어 본래의 성질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제본된 책을 서로 엮갈려 쌓아 나감으로써 종이라는 물성이 가진 힘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사물이 기존에 가진 물성과 변화된 물성 사이의 과정을 유추하며 거기에 개입된 작가의 신체와 힘을 상상해볼 수 있다.

JEONG is fascinated by the impact his physical force (not mechanical or automated) has on an object and the change it brings about. A sturdy metal cabinet is hammered into sheets of steel and hung on the wire to weaken its original properties. Binded books are stacked unevenly to reinforce the physical properties of paper. Viewers are able to navigate the changes in properties, while imagining the artist's force involved in the proces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75

A 2F 7



오솔길 - 내적 갈등

Path - Inner Conflict

2022

전자부품, 라디오 Electronic components, FM radio

250×350×210cm

작가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오래된 라디오를 분해하고 이를 고인돌 형상을 연상시키는 입체 형태로 재조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오래된 기억과 시간을 현재로 소환한다. 고인돌이라는 고대의 유산에 비해 현대기술의 하나인 라디오 파동은 순간적이다. 관객이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소리를 내는 이 작품은 삶과 죽음, 기억과 덧없음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The artist disassembled an old, used radio and reassembled it into a three-dimensional dolmen structure. This process brings an individual's long-held memories to the present. Contrary to ancient megalithic monuments, the sound waves of radio, one of the modern day technologies, are momentary. The sculpture makes a sound every time someone passes by it, reminding them of the transience of life, death, and memories.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76



사유의 공간

Space of Thought

2022

혼합매체 Mixed media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77

현대인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를 겪으면서도 내면의 빈곤과 소외를 경험한다. 인간은 이러한 빈곤과 소외, 그로 인한 공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 강주연은 우리 선조의 민간신앙에 기반을 둔 성황당의 오색천, 어선의 만선기, 장례 행렬의 만장기에서 영감을 얻어 사유의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Despite the modern conveniences and material abundance that surround us, we still feel hollow and alienated inside. We try different ways to escape from the resulting emptiness. GANG has created a space of thought, inspired by elements of Korean folk religions, from five colored strips of cloth found in a village shrine, and a "good haul" flag fluttering on a fishing boat, to an elegy banner carried in a funeral procession. The space is meant to soothe and comfort the minds of visitors.





You Are Now Leaving...

2022

금속 도로 표지판 Metal road signs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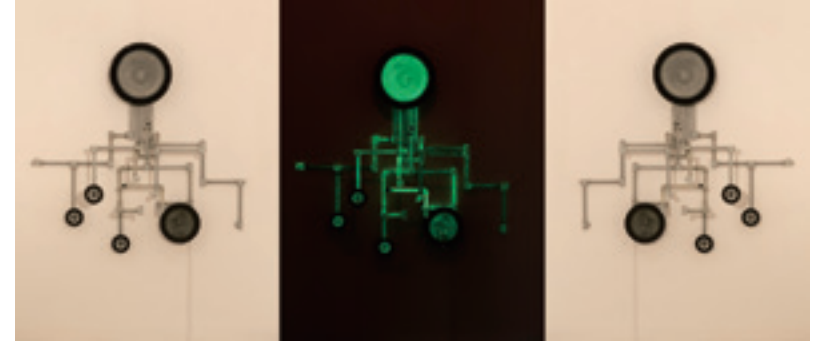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작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쫓기듯 고향을 떠나며 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해당 지역을 빠져나감을 알리는 경계 표지판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표지판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등겨야 했던 수많은 고향을 상징한다.

On 24th of February Russia started the full-scale war against my home country Ukraine. Millions of people including myself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Driving away by car the last thing that they see before they leave their home city, town or village — are the road signs *You Are Now leaving...* In my work these signs symbolise hundreds of cities, towns and villages that Ukrainians had to leave without any clue when they would be able to come back — and if they would be able to come back at all.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78

A BI Lb



순환의 소음

Noise of Circulation

2022

철파이프, 철판, 스피커, 사운드시스템, 조명시스템  
Steel pipe, Steel plate, Speaker, Sound system, Lighting system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79

A BI 8

<순환의 소음>은 실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인 '이명'을 작가가 경험하면서 구상하게 된 작품이다. 심준섭은 소리의 왜곡이 공간의 왜곡으로 감각될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소음이라는 차원으로 증폭, 변조된 신체내부의 소리가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암전된 공간에서 파이프에 칠해진 야광 빛의 라인 드로잉과 파이프 연결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와 심장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과 환영을 오가는 듯한 미묘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

*Noise of Circulation* was conceived when the artist personally experienced tinnitus, or ringing in the ears, which is the perception of sound with no external source. Having learned firsthand that sound distortions can be perceived as spacial distortions, SIM intends to show that amplified and altered inner body sounds allow us to experience another dimension of space. Coupled with pipelines that glow in the dark, the intermittent sound of breath and heartbeat gives off an uncanny feeling, leaving viewers caught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DISPUT

2016(2022)

확성기, 앰프, 플레이어, 나무  
Loudspeaker, Amplifier, Player, Wood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DISPUT〉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대조한 설치작품이다. 단조로운 울조림은 명상 효과를 내고 유사한 음성이 끝없이 울려 퍼진다. 실제로 연기자들은 ‘예’와 ‘아니오’라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어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음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한국어로 ‘예’는 ‘네’, 독일어로 ‘아니오’는 ‘Nein(나인)’이다.

작가는 요제프 보이스의 〈Ja Ja Ja Nee Nee Nee〉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같은 언어로 소통해도 들리는 것과 의미하는 것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 상황들을 떠올리며 작품을 구상했다.

*DISPUT* is a work that exposes phonetic similarities across language boundaries as contrary content. The monotonous sound quickly has a meditative effect. The uniformity of the phonetics seems to point into the endless. After a closer examination of the work, one finds that the performers throw “yes” and “no” at each other. This contrast is created by the similar sound of the words, which conveys a unison. (for example: Korean Ja = Nee , German Nein = Ne) etc.

The work *Ja Ja Ja Nee Nee Nee* by Joseph BEUYS has had an initial impulse on *DISPUT* Another impetus was various political situations that present the dual conflict between what is heard and what is meant, even within the same language understanding.



현실 위의 인위\_공생양육

Artificiality above Reality\_Symbiosis Nurture

2022

3D projection, 각파이프, 아크릴, 오로라필름  
3D projection, Square pipe, Acrylic, Holographic vinyl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한국에 거주하는 정혜경은 적도에 위치한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키토 사길데벳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양육 교류를 시도한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작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자 예술가로서 언택트 사회에서의 생존 장소인 메타버스에서 미시적으로 공생해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실제 개인서사(고민, 갈등, 경험 등)를 공유하여 캐릭터를 재현하는 한편, 실제 이야기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아바타의 시선에 투영해봄으로써 진정한 양육공동체의 삶과 양육연대에 질문을 던진다.

*Artificiality above Reality\_Symbiosis Nurture* is a collaboration between two artists — one in Korea, the other in Ecuador — that documents their exchange on parenting on a metaverse platform. As artists and mothers, JUNG and SAGILDEBEOT visualize the process of microscopic symbiosis in the metaverse which is being sought as a place of survival in a so-called “contactless society.” Personal narratives including concerns, conflicts, and experiences are shared among avatars in an online space where anonymity is guaranteed. These real stories are interpreted from an anthropological standpoint and an avatar’s perspective to question what it takes to cultivate a parenting community and ensure solidarity in childrearing.

기술자문 : 훈아트, 한국융합과학기술교육원  
기술: 유정현  
제페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창원조각비엔날레' 검색 > 플레이

Technical advice: Hoon Art, 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Technician: Jeonghyeon YU  
Download the ZEPETO application > Search f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 Play



CLAMS

2022  
혼합재료 Mixed media  
500×5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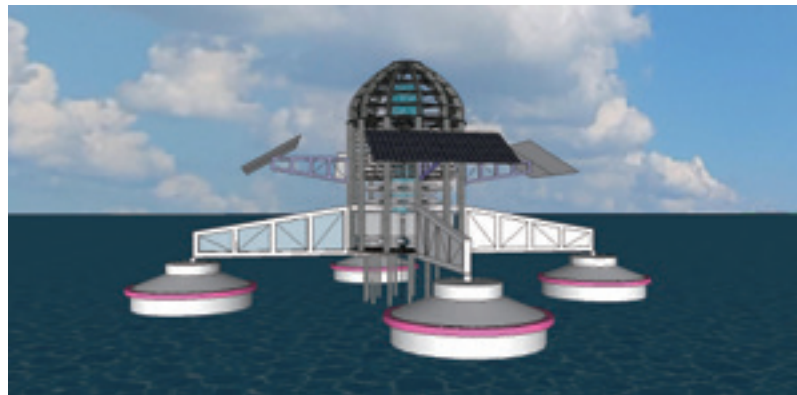
<CLAMS>는 수질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소리와 움직임으로 전환한 키네틱 사운드 조각작품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조개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미분음적 사운드스케이프는 껍데기를 여닫는 섬세하고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수질센서는 마산 서항지구에 설치되며, 수질변화에 따른 센서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사운드가 생성된다.

작가는 조개 모형을 통해 미디어 아트, 데이터 청각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CLAMS is a collection of kinetic sound sculptures which convert data from water quality sensors into sounds and movement. Each 'clam' is constructed from recycled waste plastic and contains a loudspeaker. The microtonal soundscape gives each shell a subtle, life-like opening and closing action. Prerecorded readings from a water purity sensor placed in the Masan West Port District form the basis for the music, which is generated through a constantly shifting process based on water quality levels over time.

Clams invite the audience to draw connections between media art, data sonific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화의 비밀 J-7

2022  
철, 스테인리스 스틸, LED, 태양광시스템  
Steel, Stainless steel, LED, Solar system  
650×650×500cm

The Secret of Evolution J-7

김진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과 기계 발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재고하는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진화의 비밀 J-7>은 마산 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체가 지구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에서는 우주보다도 더 무한한 세계를 찾기 위해 해수어의 형상을 먼 탐사선이 만들어진다는 설정으로 모형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현생 인류가 앞둔 미래를 상상하기를 제안한다.

KIM's installation works reflect on the impac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on mankind, based on a specific hypothetical scenario. *The Secret of Evolution J-7* assumes that an unidentified object found off the coast of Masan has contributed to the Earth's evolution, while *Searching the Unknown World* imagines a space probe in the shape of saltwater fish with a mission to discover the infinite world beyond our universe. The artist invites viewers to envision the future that lies ahead of u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소리-Bruit

Sounds-Br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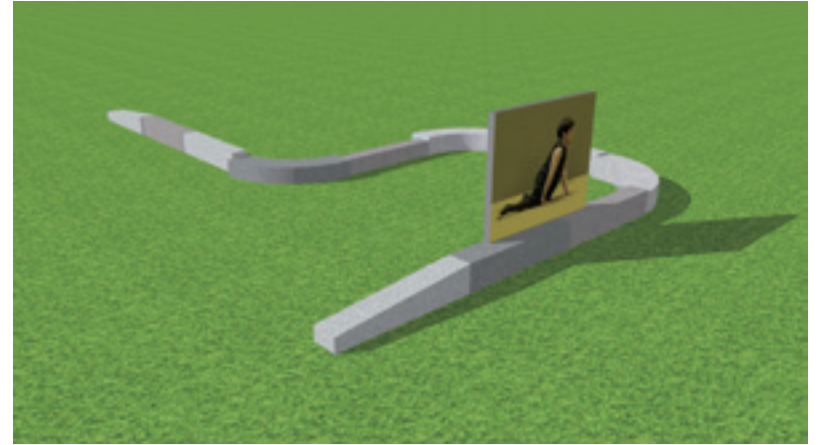
2022  
혼합매체 Mixed media  
1000×310×110cm

임형준은 비가시적인 소리를 사물에 투영하여 가시화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가는 피아노의 건반, 축음기의 나팔, 바이올린 등의 형상을 통해 소리의 정서적 울림을 표현한다. 이 소리에는 개인 내면의 소리, 잊혀진 시간 혹은 소외된 삶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 <소리-Bruit>는 10여 미터에 달하는 바이올린의 형상에 네온을 설치하여 야외 공간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LIM visualizes invisible sound by projecting it onto an object. Shapes of piano keys, phonograph horns, and violins are used to deliver the emotional resonance of sounds, including one's internal dialogue and voices from forgotten time and marginalized groups. *Sounds-Bruit* features a gigantic 10-meter tall violin lined with neon lights for a striking outdoor presenc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84



그린 스테이지

Green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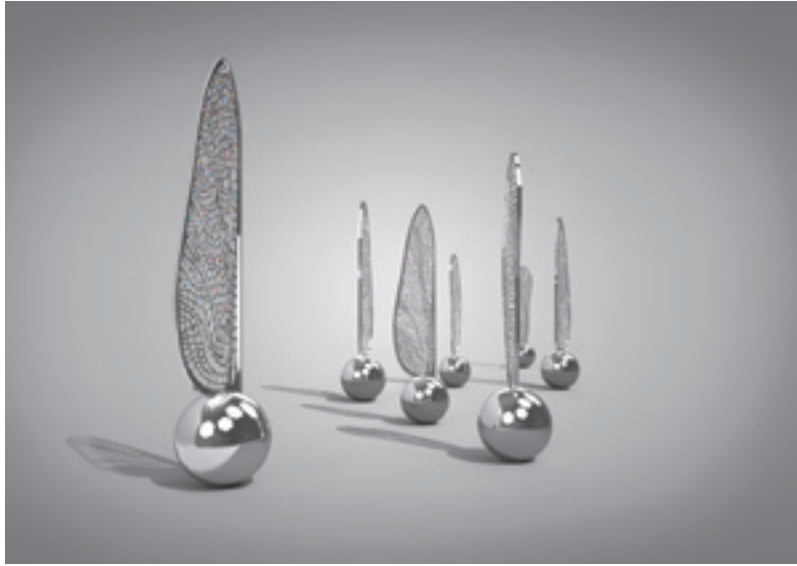
2022  
경계석, 잔디, 전광판 Boundary stone, Grass, Electric sign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장애는 언제나 타자이며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예외 상태로 자리를 지킬 때 존중 받는다. 그 존중의 결과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듯하지만, 정상계도로 불리는 이곳은 빈틈없이 빠르게 돌면서 선뜻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린 스테이지>는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 안으로 장애를 편입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 안에 있었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정상, 비정상 그 너머의 영역으로 향하고자 한다.

Disability is always otherized and only respected when remained as an exception without crossing the boundaries. Tolerance is offered in the name of “barrier-free,” but opportunities are rarely presented on this so-called “ordinary path.” This work is not intended to “include” disabilities into a non-disabled-centered social structure. It is to find the original place in the structure from the beginning.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85



자연의 소리

Sound of Natur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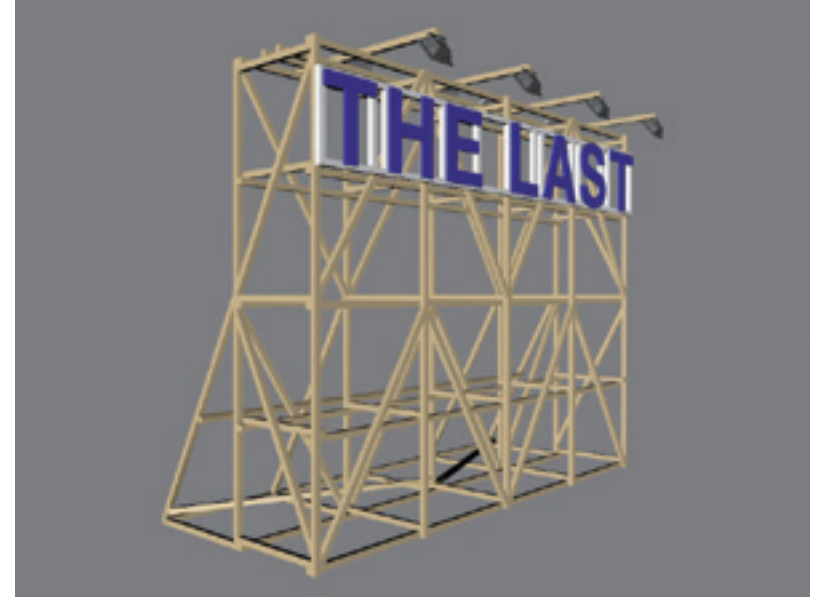
스테인리스 스틸, 스팅글 Stainless steel, Spangle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자연의 소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레이저커팅으로 섬세하게 잠자리 날개의 그물망 구조를 표현한 작품이다. 자연광에 반짝이는 은색 날개는 탄생을 암시하는 청아하고 맑은 구와 함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잠자리의 연약한 날개는 숨과 희망, 자연을 뜻하는 메타포로, 인간 문명과 대비되며 어림과 강함, 하찮음과 소중함, 파괴와 보존 등의 상반된 관계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삶을 표현한다.

In *Sound of Nature*, LEE takes advantage of laser-cut stainless steel to render the delicate patterns of dragonfly wings. The visually-engaging silver wings shine in natural light, merged with an elegant metal ball that represents birth. The fragile wings are a metaphor for breath, hope and nature. Standing in stark contrast to human civilization, they facilitate an exchange of opposing ideas, such as weak vs. strong, trivial vs. significant, and destruction vs. conservation. The work expresses a commitment to reversing the loss of nature and building a world where nature and man live in harmony.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86



마지막

THE LAS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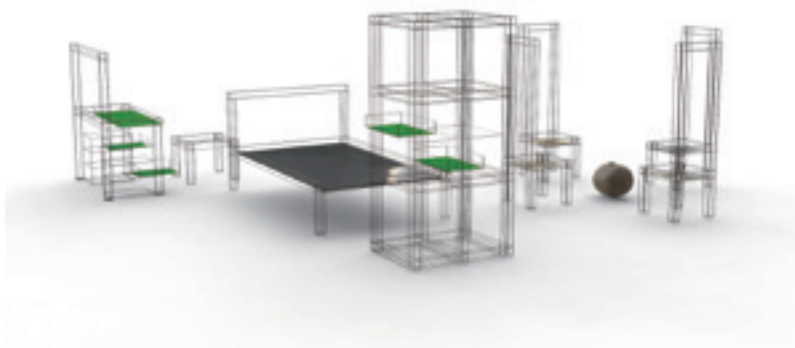
방부목, 태양광 투광등 Preserved wood, Solar lamp  
288×350×195cm

이문호는 ‘THE LAST’ 라는 텍스트를 일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형태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THE LAST’는 저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관람자에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치, 사회, 관계 등 우리의 삶을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LEE installs a sign that reads “THE LAST” in public spaces. The text’s interpretation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 encourages viewers to reflect on their own lives, including what they pursue in life, their values, society and relationships.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87



집을 그리다

Drawing a House

2018, 2022

각철, 에폭시, 잔디, 나무 Iron, Epoxy, Grass, Wood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하석원은 머릿속에 맴도는 공간과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공간을 다룬다. <집을 그리다> 시리즈는 심리적 공간을 가시화한 작업으로, 집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침대, 의자 등을 철제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피가 없는 형상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오브제들이 모여 개별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 공간이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로 결합된다. 오브제에 식재된 식물과 물 등은 작품에 시간성을 더하며 물리적,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HA's work captures his interest in a space that keep lingering in his head and everyday life that surrounds him. The *Drawing a House* series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a psychological space where everyday household objects, including a bed and a chair are recreated with iron bars. As these volumeless objects come together to form an individual piece, the entire space morphs into one big chunk. Plants and water found inside the objects instill a sense of temporality in the series, mirroring the ever-chang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landscap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88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89



은빛 물고기

Lux Fish

2022

광섬유, 목어 Fiber optics, Wooden fish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옥현숙 작가는 광섬유와 목어(木魚)의 결합을 통해 장자의 하루하루 삶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소요유(逍遙遊) 정신과 깨어 있는 삶을 제안한다. 코발트 블루의 목어는 광섬유와 함께 실내공기의 미동에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보석 같은 빛을 만들어 낸다. 관객은 마치 한 마리의 자유로운 물고기처럼 빛의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감각각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빛으로부터 기쁨을, 목어로부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빛의 바다에서 우리는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바다가 되고, 개인의 독립된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의미망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The artist relies on a combination of fiber optics and her iconic "wooden fish"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iving an awakened life, as well as Chinese philosopher Zhuang Zhou's teaching that one should be grateful in everyday life. A school of cobalt blue colored fish sways with gentle breeze along with fiber optics, sparkling like jewels. Viewers can indulge themselves in the multi-sensory experience of swimming freely in the sea of light. The light symbolizes joy, while the wooden fish represents hope. In the sea of light, small lights merge together to create an ocean, and individual memories are combined to form a semantic cluster.



사변(思辨)의 숲에서

In the Forest of Speculation

2022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3D Computer Animation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가상은 동시대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변적 시뮬레이션의 공간이다. 작가는 연산장치와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불완전한 사물을 가상공간에 놓아두고 랜덤 생성 노이즈 데이터를 사용하여 운동성을 주입한다. 생성된 형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으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가상에 적용된 수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기이한 이미지-물질이다.

The "virtual" is a space of speculative simulation enabled by contemporary technology. Incomplete objects created by computational devices and algorithms were placed in a virtual space. Then they were instilled with a sense of mobility using randomly-generated noise data. The result is a mysterious image or substance derived from a physical space but is unlikely to exist and subject to change based on number inputs.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90



보여지는 바람

Wind to Show

2022

자연석, 철, 스테인리스 스틸 Natural stone, Steel, Stainless steel  
600×400×400cm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91

진해 중원로터리에 설치된 김근재의 <보여지는 바람>은 6미터 길이의 파이프를 원형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연석을 설치한 야외 설치 작품이다. 지나가는 바람은 작품 상단의 자연석에 닿아서 흔들린다. 속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의 비물질적인 움직임이 물질적인 매체를 매개로 하여 가시화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재고하게 만든다.

Wind to Show is an outdoor installation found at Jungwon Rotary in Jinhae. The work consists of six-meter steel pipes arranged in a circle with natural rocks attached at the top, which move as the wind passes. The immaterial movement of the wind with unpredictable speed and direction changes is visualized by a material medium, inviting us to revisit the environments and conditions surrounding us.





바람둥이X

The Windy X

2022  
스테인리스 스틸, 선풍기, 페인트  
Stainless steel, Fan, Paint  
270×270×60cm

<바람둥이 X>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바람을 조각적으로 경험하고자 시도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8개의 길을 연결하는 중원로터리에 X자 형태로 바람을 일으키는 작품을 통해 한시적인 경험의 장을 만든다. 제목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바람’을 일으키는 자 혹은 ‘바람’을 피는 자라는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 정형할 수 없는 공기의 흐름으로 바람의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어쩌면 실패를 전제할 것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을 환기시키고 일시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관객에게 새롭고 유쾌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The Windy X is an attempt to present invisible, immaterial wind as a sculptural experience. An X-shaped wind-generating structure is installed at Jungwon Rotary where eight roads intersect to enable this temporary experience. The title of the work in Korean (Baramdungi X) is a play on words that could mean both “someone who creates the wind” and “someone who cheats on their partner.” Creating the shape of wind with an unstructured flow of air is perhaps an experiment based on the premise of failure. But it still offers a new take on the physical space and delivers an entertaining and refreshing experience to viewers.*



거침없이 외쳐라

Shout with no Hesitation

2021  
질구이 재벌, LED 램프 Teracotta, LED lamp  
80×28×18cm

광복 후 1955년 문을 연 흑백다방은 진해 문화예술인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하며 현재까지 지역예술인이 사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주호는 50여 년 전 진해 해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받았던 경험과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느꼈던 주관적인 감회를 바탕으로 테라코타, 오브제 및 평면 작품을 제작하였다. 웃음이 가득한 친근한 표정과 테라코타의 따스한 표면, LED 램프의 불빛이 파장이 되어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Black and White Coffee Shop opened its doors in 1955,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then, it has become a beloved cultural space frequented by local artists in Jinhae. A series of terracotta sculptures, objects and two-dimensional pieces are a personal reflection of KIM's experience with the Korean Marine Corps Training Center in Jinhae 50 years ago, as well as key mom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A combination of a big, friendly smile, the warm texture of clay, and an LED lamp offers a peace of mind.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과테말라 출생  
현,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거주 및 활동

레히나 호세 갈린도

(1974, 과테말라)

A B1 Lg E



Tierra

2013

단체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33분 28초 33min. 28sec.

과테말라는 36년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렀고, 내전기간 동안 집단학살로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부는 반군세력을 도왔다는 이유로 마야 원주민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다. 자기도취에 빠진 과두 지배세력은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조국의 적'인 원주민 공동체를 초토화시켰다. 이는 당시 과테말라의 무력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군부와 민방위 단체들은 원주민 마을을 공격해 식량과 옷, 곡물, 가옥, 동물을 닦치는대로 파괴하고, 방화, 강간, 고문, 살인 등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원주민들의 시체가 버려진 집단 무덤은 대량학살의 증거 중 하나이다.

Guatemala lived for 36 years one of the bloodiest wars. A genocide, this left more than 200,000 dead. The army that fought against the insurgency defined as internal enemies to the natives claiming that they sympathized with the guerrilla and during bloody periods it was dedicated to persecute them. With the intention of staying with the lands (under the complacent gaze of the national oligarchy) and the justification that the natives were enemies of the homeland, the State put the land in ruins. This was a common and characteristic practice of the Guatemalan armed conflict. Troops of army soldiers and civil defense patrols came to the indigenous communities and destroyed anything that might be useful for their survival: food, clothing, crops, houses, animals, etc. It burned everything. He raped, tortured. Murdered. Many bodies were buried in mass graves that are now part of the long list of evidences that confirm the fact.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97



홈페이지 디자인: 김규호  
Homepage Design: Kyuho KIM

본전시2는 온라인전시로 QR코드로 접속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Main Exhibition 2 is an online exhibition which access with a QR code.

Born in Guatemala  
Lives and works in  
Guatemala city, Guatemala

Regina José GALINDO

(1974, Guatemala)



Entanglemen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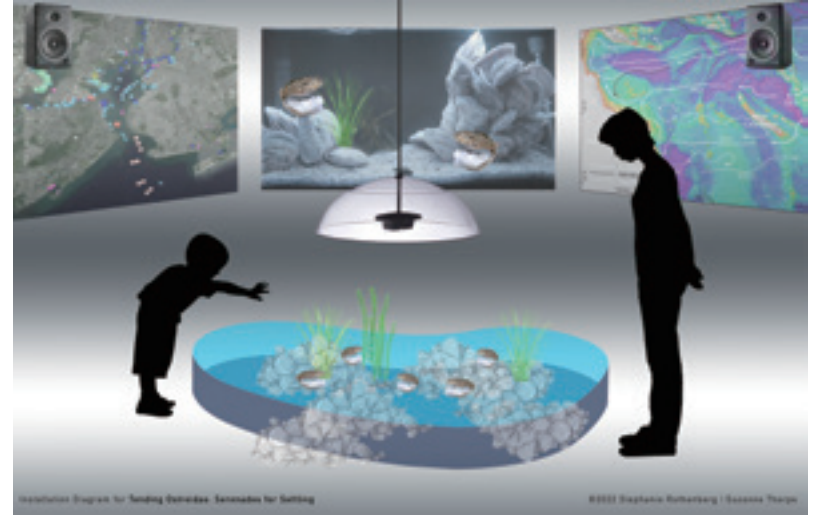
혼합매체, 거울 관 Mixed media, Mirror plate

100×500×200cm

〈Entanglement〉는 거울 표면에 놓인 서로 관통하는 두 개의 형태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오팔색 소재로 만들어진 두 개의 타원형 형체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파동-입자 이중성’을 상징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 대상은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단 상호교환성과 상호관계성에 근거하여 다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얽힘은 단지 두 가지의 양자 대상이 아닌 훨씬 복합적인 관계를 함축하게 된다. 두 형체의 아래에는 역시 타원형인 거울이 있는데,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표면(실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한다. 현실을 반영하는 본래 기능과 달리 거울은 절대적인 관점을 비틀어서 현실을 깨뜨리고 현실에 대한 시선을 바꿔놓는다.

The sculptural installation consists of two interpenetrating elements placed on a mirrored surface. The two oval shapes that make up the sculpture are made of opalescent material and represent the duality of matter: wave / particle. Quantum physics tells us that two related objects together have more characteristics than two separate objects. The entanglement is therefore not a relationship of two but it is a three, four, five etc....

At the base of the two elements there is a mirror, also oval, which highlights and testifies to the correlation that has been created between the two surfaces (entities) in connection. Furthermore, the mirror, reflecting reality, breaks it and changes its point of view by modifying the classic idea of the absolute point of view. The transparency of the material creates an additional interaction with the context.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2022

단채널 비디오, 혼합매체 Single channel video, Mixed media

2분 15초, 2분 38초, 37초 2min. 15sec, 2min. 38sec., 37sec.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은 굴의 청각 기관에 대한 사색적인 오페레타이다. 굴은 소리를 탐지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찾는다. 작가들은 인간과는 다른 정보 감지 방식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몰입형 시청각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선박 임출항 및 수중 사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활동과 굴의 웰빙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찰한다.

이 작품은 굴 개체수를 회복하려는 시민과학 사업인 ‘빌리언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뉴욕항의 붐비는 수로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헤너가 굴을 파고 있는 마산만 돌섬 앞바다와 주변 생태계의 고요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상상한다.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is a speculative operetta focused on the listening body of the heroic oyster. The oyster finds suitable habitats for settlement by sensing sound. Designed as an immersive audio-visual installation, the artwork creates an environment for reflecting and responding to other-than-human modes of sensing information. Building on soundscape studies, the project leverages data of harbor port movement and local underwater sounds to query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ctivity and the wellbeing of oysters.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e artwork begins in the busy waterways of New York City’s harbor where oysters are being repopulated through the citizen science efforts of the Billion Oyster Project. The artists imagine the soundscape of the serene ecosystem of Dotsoem Island in the Masan Bay where Haenyos (female divers) catch and harvest these magical organisms.



Cosmic WildflowAR

2022  
웹 AR WebAR

코스모스는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연대감, 평화, 평온, 무한성을 상징하는 꽃으로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링크에 접속하여 화면을 탭하면 주변을 코스모스로 꾸밀 수 있다. 관객이 만든 정원은 관객이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공간이다. 디지털 침입자들이 정원을 구경하러 오거나 관객을 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작가는 잔잔하게 노래하는 꽃들이 가득한 꽃길을 걸어볼 것을 제안한다.

Cosmos flowers are known to thrive in many climates. As symbols of kinship, peace, tranquility and infinity, they invite us to push past perceived limits and signal that change is possible. Tap your screen to place Cosmos flowers in your surroundings. The garden you create is temporal, existing only while you are willing to give it attention. Digital interlopers will visit and enjoy your garden (and may even take you for a flower). Tune in and attune yourself as you wander about a chance composition of humming flowers.



Friends

2019~  
인터넷 기반으로 설치된 인터페이스 모바일 앱  
Mobile App as interface for net-based installations

엔비디아는 지난 2018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작가는 이 기술에서 영감을 얻어 인공지능이 만든 대량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몰입형 경험을 선사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얼굴들이 관객을 쳐다본다. 실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합성한 사진들이다.

NVIDIA shook 2018 the world by showing how easil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reate ultra-realistic portraits of people who do not exist. Friends leverag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offers an immersive experience experimenting with the massive amount of AI-generated content. By using a mobile phone, count-less faces are generated and stare at the user from any direction. All the ordinary looking portraits of people are fake: they are randomly generated by AI.

입체적인 공간에 투영된 얼굴들은 관객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계속 회전하는데, 마치 SNS 프로필 사진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SNS 플랫폼이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시킬 수 방법을 모색하며, 가짜 프로필을 무한정 생성해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속이고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portraits are projected into a navigable 3D environment and rotate so that they are constantly looking at the user, to reference social media profile images. How can we better understand – and thus potentially withstand – how these systems influence who we are and what we do? What are the techniques of resistance? Should we spam our profiles with continuously changing fake content to manipulate their algorithms?



미국 뉴욕 출생  
현, 미국 컬럼버스  
거주 및 활동  
미국 치코 출생  
현, 미국 컬럼버스  
거주 및 활동

## 켄 리날도 & 에이미 영

(1958, 미국)  
(1968, 미국)



### The Farm Fountain 4

2008, 단채널 비디오, 혼합재료(아쿠아포닉스 정원, 물고기, 식용채소, 알루미늄, 수조, 마이크로컨트롤러, 펌프, LED 조명)

Single channel video, Mixed media (Aquaponics garden, Living fish, Bacteria, Edible vegetables, Aluminum, Acrylic fish tank, Microcontroller, Water pumps, Low power LED grow lights)  
300×200×200cm, 4분 20초, 반복재생 300×200×200cm, 4min. 20sec., Continuous

〈Farm Fountain Four〉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실내 생태계에서 식용 및 관상용 어류와 식물을 키우는 설치 작품이다. 공중에 떠있는 분수 모양의 조형물은 펌프와 중력을 이용하는 아쿠아포닉스\*를 기반으로 한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분해과정을 거쳐 식물 뿌리에 영양분으로 공급되며, 식물과 박테리아가 정화시킨 깨끗한 물은 물고기에게 되돌아간다.

이 작품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수경재배 및 재활용을 아우르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2리터 플라스틱 음료병은 화분으로 사용되고, 물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되면서 식용 식물과 어류, 탈질균, 인간 간의 공생관계가 구축된다.

*Farm Fountain Four* is a system for growing edible and ornamental fish and plants in a constructed, indoor ecosystem. Based on aquaponics, this hanging garden fountain uses a pond pump and gravity to flow the nutrients from fish waste through the bacteria and plant roots. The plants and bacteria in the system serve to cleanse and purify the water for the fish.

This project is a natural solution to local, sustainabl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recycling. It utilizes 2-liter plastic soda bottles as planters and continuously recycles the water in the system to create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edible plants, fish, denitrifying bacteria, and humans.

\* Aquaponics = Aquaculture + Hydroponics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방법, 친환경 농법이다

Born in New York, USA  
Lives and works in Columbus, USA  
Born in Chico, USA  
Lives and works in Columbus, USA

Ken RINALDO &  
Amy YOUNGS

(1958, USA)  
(1968, USA)

싱가포르 출생  
현, 미국 브루클린 거주 및 활동

## 아델린

(1982, 말레이시아)



### Animal Crossing BLM Protest

2021

실시간 이벤트 기록, 비디오 리믹스  
Video remix of live event documentation  
6분 4초 6min. 4sec.

코로나 팬데믹과 흑인인권운동(BLM-Black Lives Matter)이 한창이던 2020년, 미국에 살고 있던 작가는 침묵하는 것이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동조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봉쇄조치로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동물의 숲』 게임 속에서 인종차별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을 기리는 추모관을 만들어 가상시위와 기부모금 행사를 주도했다. 오프라인 시위 참여가 어려운 격리자, 미성년자나 해외거주자 등 여러 유저들이 시위대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가상공간에 모였고, 총 1만1,000달러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가상 시위대는 억압을 상징하는 비좁은 공간을 한 줄로 이동하며 추모관에 입장한다. 이들은 함께 모여 앉아 한 시간 가량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구호를 외친다. 분노, 절망, 침묵이 이어지지만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and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2020, we (USA) were learning that to stay silent was to be complicit in the structures that are built to oppress. Indoors and isolated, I turned to a familiar game, Animal Crossing, to build a memorial for black lives lost, which led to a protest and fundraiser. We raised \$11,000 USD, whilst giving those isolated in quarantine, too young to protest or overseas, a way to show up in solid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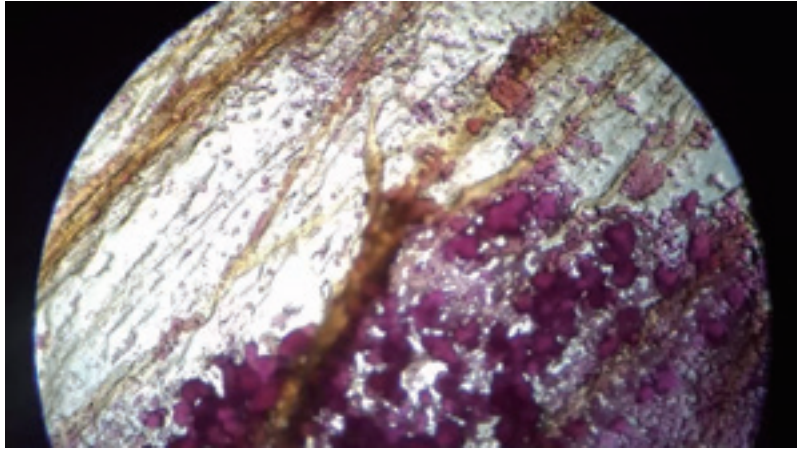
Protestors arrive, walking single-file through a narrow enclosed section, embodying feelings of oppression, before reaching the memorial. Together we sat, usually for an hour, shouting and emoting, until we felt catharsis. There was rage, despair, silence, yet closeness, as we held space for each other and the rest of the movement.

Born in Singapore  
Lives and works in Brooklyn, USA

Adelle LIN

(1982, Malaysia)





Necrobiopsi 11-2021

2021

단체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10분 10min

우리는 왜 지구가 인간을 보살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이 병든 자연을 치유한다고 지레 짐작하는가? 인간은 오로지 균형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생성하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지구는 변이하고 재적응한다. 원시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낸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인체 생리학상의 질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과 몸 속에 있는 미생물 등 미시세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인간의 생존 기반이 확보된다.

Why do humans presume to cure a sick earth? Why do they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vision of a planet taking care of us? Only equilibrium makes the survival of humans possible. We humans do not destroy the earth. It is our way of life that generates large quantities of waste changing our planet. The planet mutates. It readapts. From all its cycles. From our cyanobacterial ancestors that generated an atmosphere with oxygen, to a pulmonary asphyxy of the human physiology. We undervalue the invisible micro-world, organisms that surround us, that we are and have in our bodies, and whose balance creates the conditions for our survival.



ANU

2010

플라스틱 인형 머리,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범람기 구리선  
Plastic doll head, Stainless steel rod, Copper wire recovered from a transformer

49x12cm

「ANU」는 깊은 차원의 프로세스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권의 위, 아래, 낯설음, 매력, 진실과 아름다움의 메신저에 대한 작품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개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 개체를 자신에게 통합시킨다.

전시장소인 주남저수지의 광활한 습지는 작가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일랜드의 풍경을 많이 닮았다. 아일랜드 시인인 세이머스 히니가 말한 것처럼 습지는 데이동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모든 역사의 보고일지도 모른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습지의 끝없이 깊은 중심부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식도 흐른다. 습지는 작가가 자신의 상상을 키우고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기도 하다.

This work is concerned with processes at a deep level and the messengers of up, down, strangeness, charm, truth and beauty, from the entangled realm of living things. Any one entity incorporates into itself in some sense all the other entities in the universe.

The choice of an extensive wetland mirrors in many respects, the Irish landscapes in which I have simultaneously known and lost time. These wetlands are scenes of great migrations and the repository for all history perhaps, as Seamus Heaney wrote. Deep in their wet bottomless centres knowledge is transmitted across time, to paraphrase his words. Here is where I would gravitate to in the region to nourish and forge and protect my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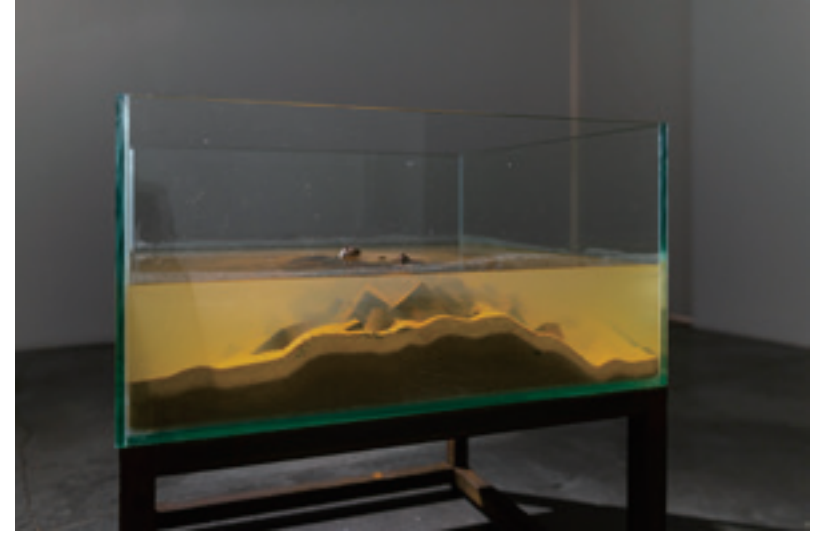
Water is Life

2022

3D 디지털 렌더 이미지, AR  
3D digital render, Augmented Reality

<The Water is Life>는 인위적 정동(晶洞), 물보진, 소비재 업사이클링에 대한 은유적 담화에서 비롯된 <Water Projects> 연작 중 하나이다. 연작은 유리판과 수지층으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자동차 전면 유리의 업사이클링, 수자원 정치에 대한 토템, 생명인 물, 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사용, 막대한 양의 공공용수 공급이 필요한 채굴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조망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한데 모여 후대를 위한 인류세의 토템을 만들어낸다.

*The Water is Life* artwork is part of a series of works, *Water Projects*, that are inspired by a metaphorical conversation on anthropogenic geodes, water conservation, and upcycling of consumer commodities. Specifically, the series is investigating; the use of upcycling automobile windshields, a difficult to recycle product as it's often a composite of glass and resin; making a totem to water politics, water is life, and in our modern world, it is increasingly being privatized and commodified, witness single use plastic water bottle consumption, extraction economies requiring vast amounts of public water, etc; and finally, all these things combined to produce a totem to the Anthropocene for a future audience to discover.



Respiration

2019

모래, 물, 철조각 Sand, Water, Iron  
40×80×60cm

<Respiration>은 모래, (모래로 만들어진) 유리, 물, 금속조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수조 안에는 살아있는 생물 대신 금속 블록들이 쌓여있다. 블록들이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미시 지형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작품은 생물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 그 자체로 볼 때 겉과 속의 차이를 두는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 산업생산의 잔재물인 금속 블록은 산업현장에서 가져왔다. 중공업 현장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블록들은 환경문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품명인 '호흡(respiration)'은 기계의 핵심소재인 금속이 산화된 결과이다. 작가는 지난 2002년 수질악화로 폐쇄되었다가 하수처리 정비사업 이후 재개장한 광암해수욕장에서 영감을 얻었다.

*Respiration* consists of sand, glass (which is a different form of sand), water and metal. There are metal cubes in the aquarium, which are usually filled with living organisms. Rusting occurs as these cubes breathe. Rust changes the color of water and sand, and directly "makes" the atmosphere of this micro-geography. The work invites us to rethink our model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when we look at living things as the environment itself, not as parts of it. The metal cubes, which are remnants of industrial produc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dustrial site. In addition to heavy industry's memories, they carry environmental relations as well. "Respiration" is the result of oxidation of iron, which is the primary component of machines. Through this work, we draw inspiration from Changwon-si beach, which was polluted in 2002 and later subjected to a different feedback chain with sewage treatment.



Game of Six S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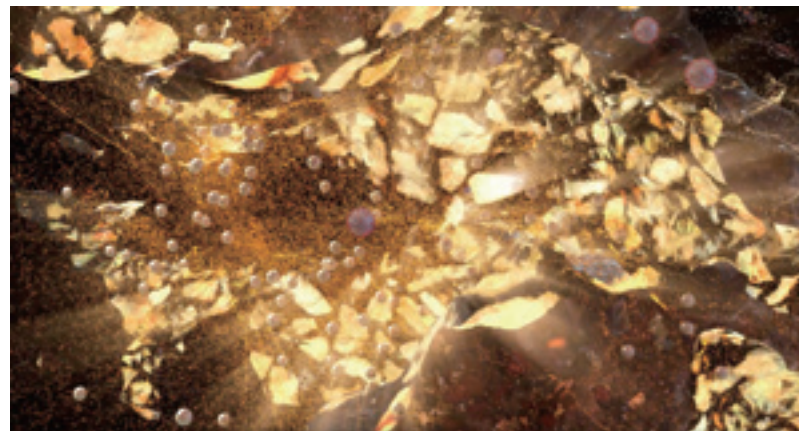
2022

참여형 온라인 게임

Participatory work, An online game

작가는 뫼비우스의 띠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사유한다. 뫼비우스의 띠는 이중성, 연결성, 시공간 연속체, 복잡성, 안팎의 구분, 자기와 타자, 이동, 생활주기, 재활용, 유동성 등의 개념을 아우르는 도형이다. <Game of Six Senses> 최신작은 이들 주제를 살펴본다. 먼 옛날 지구가 탄생한 이야기부터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과학과 예술의 무한한 잠재력까지 떠올려보며 금세기 끝없이 발생하는 위기를 세계가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인간이 복잡성을 규명하고 미래를 그리며 현재에 기여하고 과거에 대처하며 타 존재들을 존중하고 현실을 만들어가며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The symbology surrounding the Moebius strip keeps coming back to my attention by chance. In a simple way, this form works quite well to represent duality, connection, space-time continuum, complexity, relationships between outside and inside, self and others, transfer, life cycles, recyclability, fluidity. In the new version of *Game of Six Senses*, we will visit these work themes together. From all the ancient tales about how the world comes to be to the vast potentials of science and art to keep us alive, how will the world bounce back from so many crises we are experiencing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2020

단채널 비디오, AR 업서

Single channel video, Augmented Reality (AR) postcards

7분 22초 7min. 22sec.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는 7개의 운석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강타한다는 내용의 몰입형 증강현실 작품이다.

우주진(宇宙塵)은 굵기가 인간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일일 70-100톤에 달하는 양이 지구로 유입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엌 바닥에서 우주의 먼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일상을 살아간다. 외계의 신호가 인간의 소음에 의해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작품의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는 우주의 신호에 인간이 내는 소음과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믹싱하였다. 여러 겹으로 쌓인 사운드는 공간을 에워싸며 관객의 경험을 극대화시킨다.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is an immersive projection / AR artwork that focuses on seven meteorites falling on every continent on our Planet Earth.

Star dust is as small as 1/10th of a width of a human hair but 70-100 tons of this extra-terrestrial material falls on Earth every single day. Most go about their daily life without being aware or ever thinking about the extraterrestrial dusts that could be on their kitchen floor, right here on Earth. The alien signal is lost in the human noise.

Audio is a critical part of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 layers of signals from space mixing with human made noise and melodies of various cultures envelop the space further amplifying the experience of the dust complexity.





SLOOT

2015

단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14분 22초 14min. 22sec.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활동에서, 특히 <SLOOT>\*에는 'sympathetic vibration'의 개념이 짙게 배어있다. 영상이 촬영된 네덜란드 호로닝언의 전원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내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은 인간의 과도한 토지이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작가는 전원지역의 배수로에서 생명과 생물다양성으로 가득찬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수중경관 속 미생물들의 원시적인 형태는 호로닝언의 고대 문화경관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 네덜란드어로 '도랑'을 뜻하는 'sloot'은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 유량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 구조물이다. 유수 흐름을 위해 매년 준설작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With my work in general and the participating film *SLOOT* in particular, I endorse the idea of Sympathetic Vibration. The Netherlands, and the countryside of Groningen where this film was shot is almost completely cultivated. Every square meter seems to serve the people who live there. alarm bells have been ringing for years that our intensive use of the land is destroying all biodiversity.

The Film *SLOOT* dives into the ditches of this Countryside, it is in this underwater landscapes where we find a whole other world, full of life and diversity. The 'micro' organisms that life in the ditch tell a story that connects the ancient cultural landscape of Groningen with primordial nature.

\* A Slood is a man made waterway a ditch essential for water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To guarantee the flow of water in the ditches, they are required to be dredged clean every year. Creating a apocalypse and genesis.



Beyond the Horizon

2022

청동, 나무받침대 Bronze, Wooden pedestal

22×50×30cm

내륙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바다 끝에 서 있는 자신을 가끔 상상한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작가는 휴일이 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광암해수욕장 같은 해변을 찾곤 한다. 해변은 물질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이 온전한 심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다.

<Beyond the Horizon>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수평선 너머를 동경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찾으려는 이의 대조를 통해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ometimes, I imagine myself in a margin of a sea. I'm from a landlocked country; however, I used to imagine, gazing over the horizon, in a search of my "own."

Like Gwangam Beach, Sea beaches are favourite place to hang-out with friends, family, to spend holidays, to enjoy. but far from these materialistic and momentary happiness the beaches are blessed with deep spiritual values too where we can discover absolute joy for our soul.

I wished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spirituality in my work which can lead us towards the absolute happiness. In my work, a group of bounded people are being busy enjoying this materialistic world but at the other end a person is searching for his "own" world gazing beyond the horizon...



Inner Horizons

2019

단채널 비디오, 멀티채널 버블 시스템,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 시스템, LED, 전자기기, 마이크로컨트롤러, 유압장치, 밸브, 공기펌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트리, 튜브시스템, 3D프린터 제조 부품, 글리세린 오일  
Single channel video, **Multichannel bubble system**, Soundscape, Sound system, LEDs, Electronics, Microcontroller, Hydraulics, Valves, **Air pumps, Plastic, Stainless steel, Tubing, 3D printed components, Glycerin oil**  
201.9×91.3×105.1cm, 1분 38초 201.9×91.3×105.1cm, 1min. 38sec.

〈Inner Horizons〉는 물방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작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양수에 잠겨있는 자궁 속 태아부터 심연과 우주의 깊이까지 어찌 보면 우주는 하나의 큰 물방울이다. 작가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창동예술촌 골목에서 마치 물방울 안을 탐구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꼈다.

What would it sound and feel like to be inside of a bubble? Step inside a deceptive, **inner landscape** of a scale that we, as humans, cannot usually physically experience ourselves. From our first experiences submerged in the womb, to the depths of the abyss and outer space - is the universe one big bubble?

*Inner Horizons* is connected to the Art Center in Changdong Art Village, because like stepping inside of a bubble, it captures the immersive experience and atmosphere of the Changdong Art Village, dur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112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 B1 Lg E



vorstellen.network

2020~

웹 퍼포먼스, 예술기반 연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Web performance, Online platform for artistic research

2020년 팬데믹 초기 봉쇄조치 하에서 작가는 우편예술 기법을 빌려 디지털 세계에서 운문형식으로 지식을 나누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상업적 이익이나 시장경제 틀 밖에서 예술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었다.

〈vorstellen.network〉는 디지털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시작 서술을 담은 수행 톨로 제작되었다. 이 플랫폼이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가 되어 하나의 스크린에서 다른 스크린으로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

During the first shut down in 2020, inspired by various technique used in mail art, we decided to create a situation in the digital realm where the sole purpose is sharing knowledge in poetic forms. We were interested in developing an online tool that could canalise artistic exchange outside of corporate interests and market driven economies.

*vorstellen.network* is a platform where artists can support new modes of interaction through digital writing. It is intended as a performative tool for poetic narrations. We long for it to create a living network that can flourish and illuminate from one screen to the other.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113

A B1 Lg 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냐루카 출생  
현, 노르웨이 오슬로  
거주 및 활동

## 다미르 아브다직

(1987, 노르웨이)



### Prolazi Izmedju 1980~2021

2021

단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32분 41초 32min.41sec.

<Prolazi Izmedju 1980-2021 (Passages between 1980-2021)>에는 어린시절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한 5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의 전후상황을 담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증언들을 시간 순으로 낭독한다. 낭독 중에는 서로 끼어들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공통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이 작품은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숨쉬고 있는 공간인 마산의 국립 3-15 민주묘지에 전시된다.

In *Prolazi izmedju 1980-2021 (Passages between 1980-2021)* Avdagic works with five people who came to Norway as child refugees in the 1990s during the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They perform testimonies from the period 1980-95 that chronologically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and which stem from members of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generation. During the presentation, the participants interrupt their roles and alternate between languages. They explore the history they have in common by sharing experiences regarding to national, political and social affiliation. The work is presented in March 15th National Cemetery, as it brings up themes of commemoration and how past events continue to echo in the present.

Born in Banja Luka,  
Bosnia & Herzegovina  
Lives and works in Oslo, Norway

*Damir AVDAGIC*

(1987, Norway)

튀르키예 오르두 출생  
현, 튀르키예 오르두 거주 및 활동

## 알페 아이딘

(1989, 튀르키예)



### Breath Project

2018~

나무 테이블, 흙, 나트륨 등, 고무호스, 물, 식용 식물

Wooden Table, Metal, Soil, Sodium vapor fluorescent Lamp, Plastic hose, Water,  
Variable varies of edible plants

178×150×100cm

<Breath Project>는 산소를 흡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숨으로 식용식물을 키우는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식물에 불어넣는 자신의 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즉 인간이라는 상태를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인간의 신체상으로도 볼 수 있다. 종모양의 유리병 속에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채소가 인간의 숨과 물로만 자라나고 있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입되며, 인공조명은 하루 12시간 동안 점등되고, 나머지 12시간은 소등된다. 유리병의 크기는 안에 담긴 식물의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다. 작가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자연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새로운 자연을 일구고자 한다.

With this project, Alper AYDIN is trying to grow edible plants with the human breath using the process of absorbing the oxygen that gives life to the body and turning it into carbon dioxide. The breath that emerges from the body in the work is what makes the artist feel his own existence and hence the condition of being human. In this sense, the project takes place as a body image against the human being. In the project, basic vegetables necessary for human life are grown in the bell glasses using air from human breathing and water. Carbon dioxide is given as needed in intervals based on observation, and the room that they are in is 12 hours night and 12 hours day, illuminated with artificial light. The size of the bell glas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lants. While asking the question of whether he can create nature from his own body through human action, Aydin tries to create a new nature where he can meet his own needs to replace the nature he has destroyed.

Born in Ordu, Türkiye  
Lives and works in Ordu, Türkiye

*Alper AYDIN*

(1989, Türki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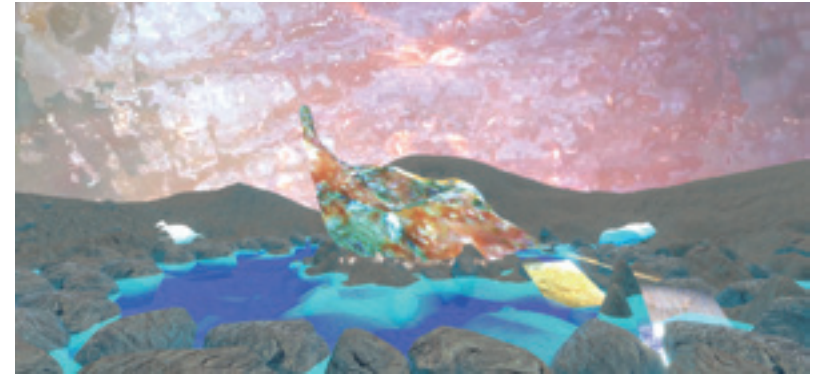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2021

단채널 비디오, 주물 유리, 석기 Single channel video, Cast glass, Stoneware  
243×548×365cm, 18분 10초 243×548×365cm, 18min. 10sec.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은 코랄프로젝트의 수중 에코현대미술 전시에 대한 배경정보와 마산만 돌섬 해안에서 전시회 개최를 제안하는 영상 콜라주 작품이다. 영상에는 돌섬 해안과 연계될 친환경적이고 해양친화적인 수중 작품 스케치안이 담겨 있다. 제안된 조형작품은 해수면 위에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뿐만 아니라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굴과 홍합 개체군을 지원한다. 석기와 유리로 구현된 조형물에는 현지 지표종이 유리로 주조되어 있으며 흡사 영사기의 빛에 타버린 낡은 필름조각을 방불케 한다.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is a video collage of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Coral Projects' underwater eco-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a proposal of a site for the show in the Masan Bay along the shore of Dot Island. The proposal will include sketches of my proposed eco-friendly and ocean-friendly underwater artworks for the site. The artworks will also be visible above the sea level. The eco-contemporary art sculptures are proposed sites for supporting new oyster and mussels populations, which are excellent water purifiers, as well as homes for other sea life. The sculptures are ceramic stoneware and glass, resembling enlarged and ossified film pieces burned in a projector's lightfall with cast glass elements of local indicator species embedded on them.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2021

단채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6분 30초 6min. 30sec.

<Episode 1: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는 매력적이고 관능적이지만 동시에 그로테스크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피부결과 무정형의 신체로 이루어진 가상세계를 그린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피부를 그 동안 살아온 흔적과 축적된 기억의 커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흔적과 기억은 피부라는 영역의 지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변화시킨다. 자연을 닮은 인간의 피부는 식민지배로 인한 이종교배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억압과 회복의 역사 또한 안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막인 피부는 지리적 장소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지형인 셈이다. 이 작품은 중원로터리에 설치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중원로터리 일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픈 역사가 건축물과 지형 곳곳에 서려있다. 몽환적인 느낌의 이 가상 작품은 그 특이성과 정체성이 물리적 형태 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장소이자 몸이다.

*Episode 1: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is a virtual world that presents a landscape made up of skin textures and amorphous bodies, both alluring and sensuous, yet grotesque and uncanny. This work explores skin as a territory, composed of layers of lived experiences and accumulated memories which continuously shape and transform its topography. Our skin, similar to the natural landscape, bears the marks of the crossbreeding processes of colonialism, as well as histories of both oppression and resilience. This living membrane is then a terrain in itself, which transforms and adapts over time like a geographical ground. This piece takes a special meaning being placed at the Jungwon Roundabout, as this is a place with layers of colonial history and dramas, all invisible now but encompassed in its architecture and topography. This space-like the virtual piece- is at once a site and body that carries its idiosyncrasy and identity in its physical features.



Untitled (Mammoth Video)

2022

단체널 비디오, 머신러닝 사운드

Single channel video, sound generated with machine learning

11분 11min.

작가는 인터넷에서 찾은 매머드에 대한 오래된 영상과 다큐멘타리를 AI 머신비전 기반 영상편집 툴인 RunwayML을 사용하여 조작하였다. 파운드푸티지(found footage)\*에 등장하는 매머드를 없애고 대신 영상 배경을 합성해 넣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만여 년 전 초기 인류가 도구와 기술을 이용해 사냥에 나서며 매머드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처럼 작가도 디지털 방식으로 이를 재현해 본다.

To make this video first I found old videos/ documentaries about mammoths on the internet, then using RunwayML, I digitally manipulated this found footage — RunwayML is a machine-learning based video and animation tool that use AI — enhanced machine vision to quickly mars and manipulate footage. I used this tool to digitally remove mammoths from the found footage, creating synthetic video landscapes (but without the mammoths that were previously there) For me this gesture mirrors early humans using tools and technology to hunt mammoths and remove them from the landscape 40,000 years ago, I did the same, only digitally.

\* 페이크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의 일종



The Matter of the Sou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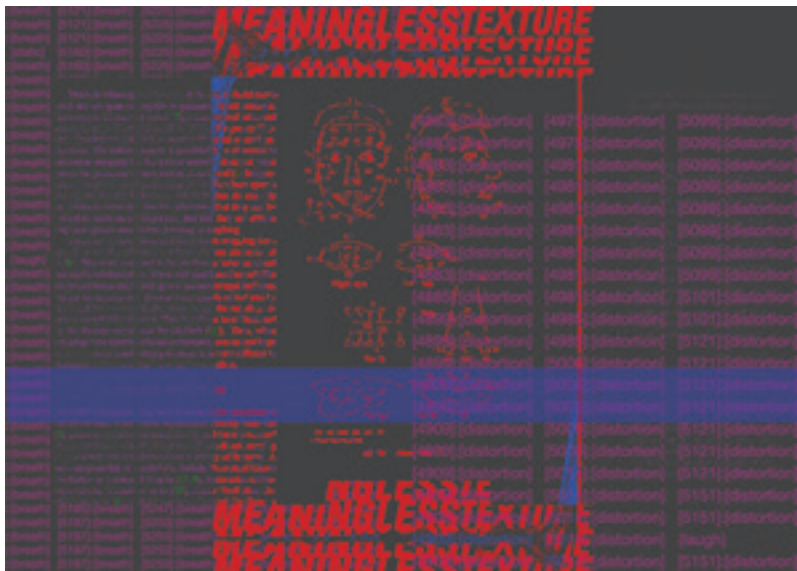
단체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60분 60min.

<The Matter of the Soul>은 북극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적 공감을 다룬 사운드와 영상이 결합된 음악조형 작품이다.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음악은 4개 악장으로 이뤄진 북극을 위한 심포니로, 빙하침식을 비롯하여 산업화와 세계화가 지역적,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에 가져온 변화를 그린다. 심포니에는 캐나다 북극의 누나부트 지역에서 채집한 현장음과 관계자 인터뷰, 물의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과학장비를 해킹하여 만들어낸 악기의 사운드가 어우러진다. 작가는 직접 제작한 이 악기를 사용하여 북극의 물을 라이브로 연주한다.

*The Matter of the Soul* is a musical, video and sonosculptural work by Kat Austen, exploring human empathy with the process of dispersal in the Arctic in a time of climate crisis. The music at the heart of the work is composed as a four-part symphony for the Arctic as ice floes and glaciers in the region melt; as industry and globalisation changes regional, societal and individual identity. The symphony includes field recordings from the Canadian High Arctic Nunavut region, interviews and sounds from instruments made from hacked scientific equipment that measure chemical properties of water. Austen plays Arctic water live using these instruments during perform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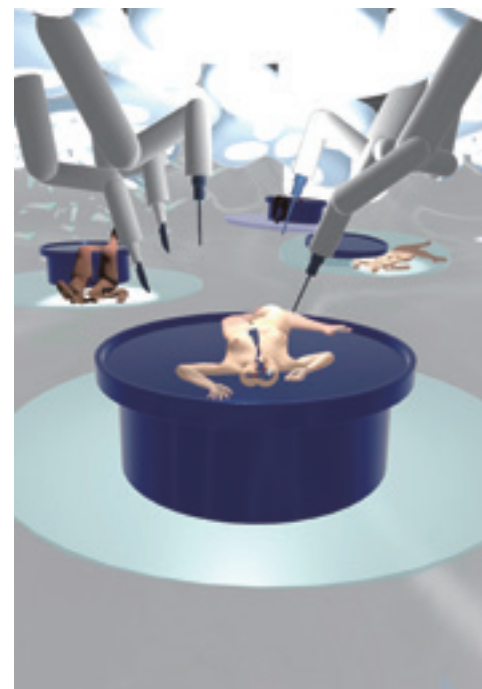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

2019

바이노럴 사운드 에세이  
Binaural sound essay

독일 정부는 2017년부터 국적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의 국적 판독을 위해 ‘방언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는 이 기술의 작동원리를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에세이 작품이다. 청취 및 녹음 행위와 식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장기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작업은 소프트웨어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기본 아카이브로 삼는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잡음’으로 인식하여 무시한 음성 특성에 주목하는데, 기침, 웃음, 더듬거림 등의 유사언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작가는 음성과 요식 행위로 구성된 자신만의 반아카이브(counter-archive)를 구축하고자 한다. 음성에 대한 정서적인 교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이 작품은 관객이 접속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분류, 유형화, 측정의 개념에 대항하고 초월한다.

This interactive sound essay interrogates the workings of the so-called "dialect recognition software" in use since 2017 for cases of undocumented asylum seekers in Germany. Part of a long-term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stening, recording practices, and colonialism, it treats the training datasets of this software as a rudimentary form of an archive. However, by focusing on speech traits that are annotated to be ignored by the software as "noise" – for examples paraverbal sounds such as coughing, laughing, hesitation, etc – it seeks to create its own counter-archive of voices and bureaucratic documents. With that, the essay radically shifts the affective connection to and with voice, working to constantly undo and redo them with each access and interaction, always against and beyond classification, taxonomization, or measurement.



Ambiguous Lucy

2021

비디오 게임, LCD 모니터, 컨트롤러, 전자기기  
Video game, LCD monitor, Controller, Electrical appliances  
300×250×3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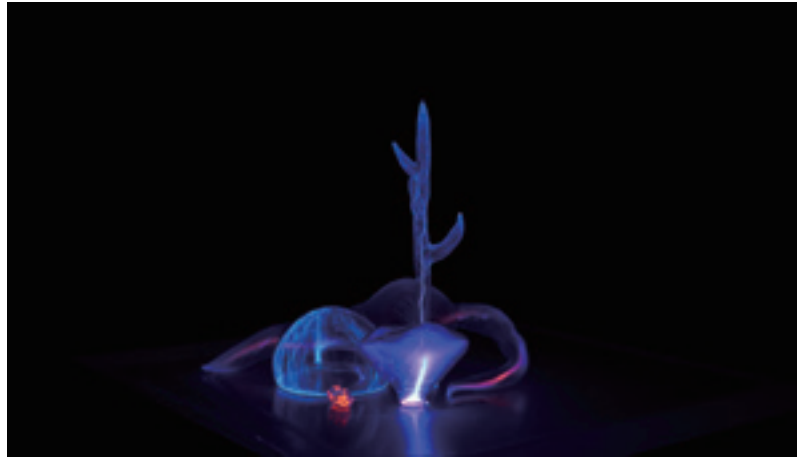
작가는 인간과 동식물, 기계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한다. 루시\*가 지금의 껍데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성별이나 인종 같은 꼬리표를 달아 분류할 수 없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존의 피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몸을 찾아 나선다. 창원 장미정원의 꽃내음을 맡으며 식물과 하나되는 자신을 그린다.

This is a world where humans, animals, plants and machines melt and fuse into one an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Lucy\* had a reason for choosing the flesh that she has. She wanted to be a lump of flesh that won't be categorized by factors such as sex and race. She shed her skin and began walking in search of a new body. Smell the flowers in Changwon Rose Park and think about combining with the plants.

\* 루시는 318만여년전 살았던 여성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추정되는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다.

\* Lucy the name given to a 3.18 million-year-old fossil skeleton believed to be of an early female Australopithecus.





ZORYAS

2019

단채널 비디오, 유리, 비활성 기체, 전자기기, 라이브 데이터  
Single channel video, Glass, Noble gas, Electronics, Live data  
3분 4초, 가변크기 3min. 4sec., Variable installation

납작한 원반의 중앙에 놓인 여섯 개의 형체는 아르곤, 네온, 크립톤, 크세논, 질소 등 우주를 구성하는 가스로 채워져 있다. 이들 가스는 태양처럼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제 4의 물질 상태'로 알려진 플라즈마는 눈으로 보이는 우주의 99%를 이루고 있다.

원반을 둘러싼 외부 링에 팔뚝치를 괴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와 진동이 느껴지는데, 진파 망원경으로 감지된 태양 진파 자료를 기반으로 구현한 것이다. 전체 작품은 태양 진파 강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Six forms in the centre of a flat disc are filled with gases that compose the interstellar environment: argon, neon, krypton, xenon, nitrogen... They are woven with the same matter as the sun : plasma. Plasma is the fourth state of matter, it composes 99 % of our visible universe but none of the 100 % of the one we evolve in.

As we place our elbows on the external ring, we feel the solar activity as if it comes from inside our body. These sound and vibrations are the translation of the electromagnetic activity of the sun that is continuously sensed by a network of radio telescopes . The entire installation pulses to the rhythm of the sun's electromagnetic activity.



Body of Work

2015

단채널 비디오, 사진, 아카이빙 자료  
Single channel video, Still image documentation of 3 week durational interactive performance artwork  
2분 10초 2min. 10sec.

케이스 젠킨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주간 자신의 노동력과 육체를 대중에게 파는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보수는 다른 국가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시급 수준에 따라 매일 다르게 책정되었다. 작가는 고용주가 시키는 작업이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자청하며, 대신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1. 작업은 갤러리의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2.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3. 작가의 신체를 다루는 경우, 보호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4. 작업 종료 후에는 고용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작가의 신체를 반납해야 한다.
5. 고용주는 작업을 지시하고 떠나거나 작가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단, 작업공간에는 고용주만 출입이 가능하다.

작업공간은 대중에게 항상 공개되었고 CCTV로 녹화되었으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은 금지되었다.

For a period of 3 weeks from 9-5 daily I will be offering my untrained labour, my body, my life for hire by the hour to the general public. I will be available for hire at rates that will change daily and will be commensurate with the approximate hourly wages received by other specific labourers around the world. I will perform any task set by the employers with 5 stipulations:

1. The labour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set gallery work-space
2. I will not perform labour that causes direct harm to others
3. If my body is handled protective gear must be used
4. My body must be returned at the end of the employment period in the same general condition in which it was hired
5. The employer can leave set tasks or interact with my body directly but only the employer will be permitted within the work-space

The workspace will be open at all times to the general public and will be recorded using CCTV but no other recording devices will be permitted.



To Fall with Grace

2022

단체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10분 18초 10min. 18sec.

큰 호수를 품고 있는 용지공원은 작가의 영상 작품을 전시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물의 도시화, 육지생물과 바다생물, 인공자연 간의 공존 같은 주제를 반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To Fall With Grace>는 인간이 주변환경을 구축하느라 천연자원을 고갈시켜 메탈라버린 미래를 조망한다.

The Yongji Park is the perfect place to show the video work, as it is a park that hosts a huge lake, thus it makes the element of water present and it is the perfect location to discuss subjects such as urbanisation of water, coexistence of creatures of the land and water and of course the artificial nature. I find it a perfect place to show *To Fall With Grace* as the video focuses on a dehydrated future where humans have used all natural resources to buil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124

본진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 B1 Ig E



Thwack Thwack Thud

2015

단체널 비디오, 나무, IR 센서, 모터, 기타 도구

Single channel video, Trees, Infrared sensors, Off-the-shelf tools, Motor

2분 23초, 가변크기 2min.23sec., Variable installation

「伐木丁丁(벌목정정) 鳥鳴嚶嚶(조명앵앵)  
出自幽谷(출자유곡) 遷于喬木(천우교목)」 — 나무 베는  
소리가 청정하거늘 새 울음소리는 영영하하니, 깊숙한  
골짜기로부터 나와서 높은 나무에 오르도다.

『시경(詩經)』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나무 베는 소리에  
놀란 새들이 숲을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나무는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과 나무와의 관계는 때로는 가깝지만 때로는  
적대적이다. <Thwack Thwack Thud>에는 센서로  
작동하는 벌목장치가 등장한다. 시끄러운 기계음과  
그림자의 떨림, 위태로운 묘목의 모습은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On the trees go the blows *chǎng-chǎng*, And the birds  
cry out *yīng-yīng*. One issues from the dark valley, And  
removes to the lofty tree.”

Here’s a snippet from *BookOfPoetry*, describe the  
sound of deforestation, The birds in the woods  
therefore migrate. “Trees” play many roles in the human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rees  
is sometimes close and sometimes antagonistic. The  
work *Thwack Thwack Thud* uses a sensor to drive a  
mechanical device that chops down trees. The sound  
produced and the shaking shadow, and the real response  
of the saplings, try to arouse people’s thinking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125

A B1 Ig E



Future of the Delta

2020

단체널 비디오, 드로잉, 사진

Single channel video, Drawings, Photographs

2분 2min.

〈Seaweedsuit〉는 시온 칼헤스와 사회학자인 다르코 라구나스, 마르텐 클라인한스 지리학 교수가 북해보호단체인 북해대사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현장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업이다. 북해대사관은 북해의 목소리와 정치문화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10개년 연구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예부터 잦은 홍수에 시달렸던 네덜란드는 국가 곳곳에 댐과 제방을 쌓았다. 작가는 해류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해조류의 특성이 인간을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작가가 수트를 시험 착용했던 삼각주의 앞바다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작품이 전시되는 마산의 돌섬과도 이어져 있다.

A first test of the Seaweedsuit, as part of the fieldresearch Darko Lagunas (sociologist) Maarten Kleinhans (professor of geography) and myself Theun KARELSE (artist) are doing on invitation of the Embassy of the Northsea, which is looking for ways in which the sea could be better protected. The Embassy has set out a 10 year research trajectory to find new ways of political and cultural representation of the sea, and for the voice of the sea to be heard. Our history is full of disastrous floods and we have placed dams and dikes between us and the sea. The Seaweedsuit is inspired on the amazing grace with which seaweed adapts to any movement of the water. Maybe it can be a guide towards a more harmoniou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sea. The waters around the island where I tested it stretch all across the globe and to Dotseom, so it seemed a great location to show it.



Give Water to Life

2019

단체널 비디오, 베를린 장벽 파편, 금속 구조물, 버드나무, 김장항아리, 흙, 콘크리트, 물  
Single channel video, Interactive, longterm installation piece of Berlin wall, Metal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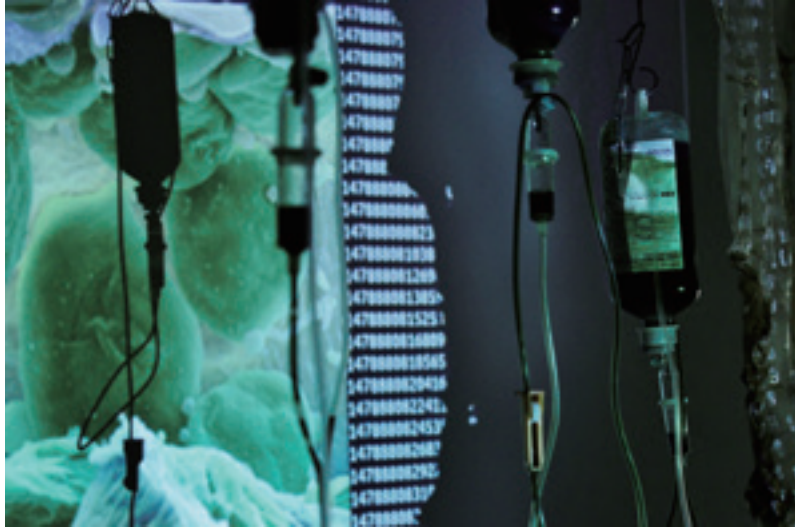
Willow tree, Kimchi pot, Earth, Concrete, Water

7분 50초 7min. 50sec.

나무에 물을 주면 계속 자라서 생명을 이어간다. 시간이 흐르면 베를린 장벽 조각에 금이 가게 할 만큼 단단해질 것이다. 작가는 〈Give Water to Life〉를 두 번째 장기 설치할 장소로 도심 속에 자리한 창동에술촌을 선택했다. 오가는 시민들이 물을 주며 잘 가꾸면 작품의 상징성이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다. 작품에 사용된 김칫독은 한반도 분단 이전에 만들어졌다. 베를린 장벽 조각은 인공적인 장벽의 덧없음과 함께 시간의 흐름, 대중인식의 변화, 마음챙김에 따라 분단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y giving water to the tree, he will continue to grow and exist. With the time passes he will become strong enough to crake the piece of Berlin Wall. The Changdong Art Village, with its alternative urban structures of a modern Korean city, seems to me a perfect place to place a second long-term installation. There it can be watered and maintained by its population, so that its symbolism is brought to life. The Kimchipot is older than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piece of Berlin Wall points to the transience of man-made walls and divisions that can be peacefully overcome with time, awareness and mindfulness.





Trans\*Plant :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2017

단체널 비디오, 사진 Single channel video, Photograph

16분 15초 16min. 15sec.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는 2016년부터 시작된 생명시스템과 자가실험 기반의 초학문적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식물화'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에 출품된 영상은 연구의 핵심부분으로 지난 2017년 카펠리카 갤러리에서 염록소 주사를 인체에 최초로 투여하는 행위에술을 담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생태의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질 기반의 정체성에서 관계 기반의 정체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염록소 정맥투여를 포함한 인간의 식물화 과정과 그 과정이 야기하는 환상, 두려움, 비판은 정체성 시스템 논란의 물꼬를 튼다. 꿈을 현실로 만든 키메라 로사가 그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소로 진헤드림파크만한 곳이 있을까.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is a transdisciplinary project, initiated by Quimera Rosa in 2016, based on living systems and self-experimentation. It is a process that engages a body in a "human > plant" transition and uses various formats for this. The video presented here condenses the research to realize the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in human body and the performance realized in Kapelica Gallery in 2017.

In order to be able to think a non-anthropocentric ecology, we need to move from essence-based identities to relationship-based identities. A process of human > plant transition that includes a chlorophyll intravenous protocol, and through the fantasies, fears and judgments that this generates opens the debate about the identity system that is at stake. We had a dream. And we made it real. So what's better place than Jinhae Dream Park to share it with you?



Holier-Than-Thou

2022

단체널 비디오 Single channel video

5분 59초 5min. 59sec.

2021년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가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작가는 예수와 유사하게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 가나인, 흑인, 성소수자를 기리며 십자가 책형을 재현한다. 작가는 가나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소수자와 비(非)성소수자 대상 폭력 사태에 대해 기독교계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반추와 공감,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호소한다. 성소수자나 도둑, 마녀로 내몰려 폭행당하거나 돌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길 바란다.

On Easter Friday 2021, (Good Friday), as Ghanaian Christians mourn and celebrate the death of "a Lord" that was brought us by the "slave masters", I reenacted a crucifixion in remembrance of those Ghanaians, blacks and queers who suffered similar violence and death. I wanted this performance to remind the Christian community of their contribu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ongoing violence suffered by both LGBTQIA+ and non LGBTQIA+ persons in Ghana. It is a call for reflection, empathy, compassion and unconditional love. May the souls of all queers, alleged thieves, alleged witches and many others who were lynched, beaten and stoned to death rest in perfect peace.



김바브웨 하라레 출생  
현, 영국 런던, 노샘프턴셔  
거주 및 활동

## 레이첼 펴

(1984, 영국)



The Garden of The Net-work of 2020

2020

단채널 비디오, 리넨 자수 Single channel video, Linen on linen embroidery  
43초, 30×30cm 43sec., 30×30cm

리넨에 수놓인 문양은 작가가 특정 식물에 대한 이야기나 움직임에 탐구할 때 배경이나 상징적 패턴으로 즐겨쓰는 모티프이다. 모티프는 다섯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삼은 마름모꼴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식물원이나 농장의 사각 배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브라운의 1658년작 『사이러스의 정원』에 등장하는 삽화를 빌렸다. 책에서는 예술이나 의학뿐 아니라 식물의 프랙탈 구조에서도 신성시되는 숫자인 '5'를 강조한다. 오늘날 식물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진기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 자행된 채집의 잔인한 흔적 역시 담고 있다. 전시장소인 창원수목원은 관상 및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 식물 표본을 제배하고 거래해온 역사를 소환한다. 제국주의의 영향을 상징하는 마름모꼴은 동시에 생물의 치유능력과 상호연결성을 연상시킨다.

The motif featured on this linen embroidery is often used by the artist as a backdrop or symbolic pattern to explore the stories of specific plants and their movement. The image depicts the layout of a botanical garden or plantation in lozenge shape sections each with five points-the centre and four corners. It traces a drawing from *The Garden of Cyrus*, 1658, by English philosopher Thomas BROWNE. The book explores the sacred number five in art, medicine and fractal patterns of plants. Botanical collections today hold both the wonder of plants from across the globe, but also the often brutal effects of each acquisition, often for the benefit of empire.

Locating this work at the greenhouse at Changwon Arboretum acknowledges histories of plant specimens cultivated and traded throughout the world for ornamental and useful purposes. a reminder of both the reach of the power of empire but also the healing beauty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living things.

Born in Harare, Zimbabwe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Northamptonshire,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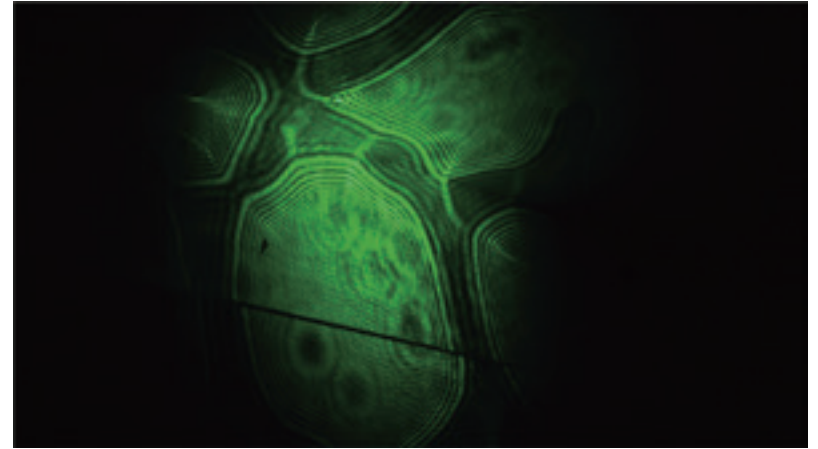
## Rachel PIMM

(1984, UK)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출생  
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 및 활동

## 이반 헤이케스

(1978, 브라질)



Microscope Light Machine

2013~

멀티미디어 설치  
Multimedia installation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백만 종의 생물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이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 존재조차도 가늠하기 어렵다. <Microscope Light Machine>에서 물방울은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확대경으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플랑크톤, 요각류, 규조류, 조류, 수생식물, 어류, 소형 갑각류 등 수생 미생물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살고 있으며, 서식지인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이다. 용지호수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관객에게 호수와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관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Millions of living entities surround us all the time and are vital to our well being and also for life in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y exist in such a mode of being that not only many of their behaviour escape human perception, but their presence all together. With the work *Microscope Light Machine*, a droplet of water becomes a lens magnifying this amazing biodiversity of microorganisms presented inside of a small droplet.

This work is a step further in a research about the huge biodiversity of microorganisms which lives in water as phytoplankton, copepods, diatoms, algae, water plants, fish and small crustaceous. All of these life forms lives in symbiotic relationship, and their medium, the water, is a vital element for all the lives on earth. In Yongji Lake it wouldn't be different. I invite you to look at the lake, and observe biodiversity that is existent.

Born in Rio de Janeiro, Brazil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 Ivan HENRIQUES

(1978, Brazil)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Special Exhibition 1

D1 1

구역 (32p 참조)      번호  
Area (Refer to page 32)      Number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작업실 위치를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locations of the studios are checked on Naver Map via QR code.

1  
D1  
화 L  
2  
F2  
우 R

## 감라영

(197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감라영은 회화 작가로 선과 면, 색채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자신에게 일으키는 감응을 포착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담아낸다. 작가는 언어화되지 않는 불분명한 감정과 지나간 일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재의 순간에 소환하여 과거를 곱씹어본다.

#회화 #창원 #강렬한색채 #원찬날개짓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칠주로 851-22

As a painter, KAM captures the reaction that an image comprised of lines, shapes, and colors evokes in herself, projecting her inner feelings onto canvas. She brings to the present the past and associated feelings that cannot be expressed in language, reminiscing every moment.

#painting #changwon #IntenseColors  
#PowerfulWingFlap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5, Korea)

Rayoung K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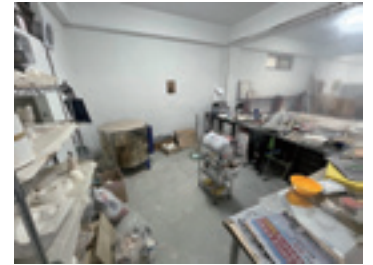
## 강나현

(1994,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1년 기준 1448만가구라고 하며 매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느새 페코노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들에 비해 저조한 사회규정과 느린 인식 전환으로 사회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가는 한 명의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의 학대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의 불편했던 감정을 계기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가는 소중한 생명들이 시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도예로 빚어낸다.

#도예 #창원 #반려동물 #돌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99번길 32-18

The number of Korean households with companion animals is on the rise, reaching 14 million in 2021. The term “pet economy” was coined to reflect the significant impact pets have on the owner’s lifestyle. However, there have been growing social issues involving pets, driven by the lack of rules, regulations, and awareness on responsible pet ownership. As a pet owner herself, KANG remembers the uncomfortable feeling she had when she came across reports of domestic animal abuse. Her carefully crafted pottery pieces reflect the hope that precious furry friends are appreciated and treated with respect.

#pottery #changwon #CompanionAnimal #care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94, Korea)

Nahyun KANG

# 강천석

(196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강천석은 이성적, 감성적 자아에 대비되는 비인칭성, 익명적인 자아에 관심을 가진다. 익명성의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회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회화 #창원 #익명 #자아



경남 창원시 위창구 용지로 293번길 10

KANG is interested in exploring impersonal and anonymous ego which draws contrast to rational and emotional ego. His paintings reveal the process where the anonymous ego is built to create new room for interpretation.

#painting #changwon #anonymous #ego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7, Korea)

Cheonseok KANG

# 강화자

(1955,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강화자는 글씨 교정을 위해 서예를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서화가 어우러진 문인화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년이 지났다. 작가는 인생의 회로에락을 무향에 담아낸다.

#문인화 #창원 #회로에락 #무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법원로 130번길 15 (중앙동)

The artist initially took up Korean calligraphy to improve her handwriting. Some 30 years have passed since her first experiment with literati painting, an ancient form of art that blends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She portrays th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our lives through delicate brushwork and subtle washes of ink.

#LiteratiPainting #changwon  
#JoyAngerSorrowPleasure #DelicateBrushwork  
#InkWashes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5, Korea)

Hwaja KANG

# 권순화

(1976,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권순화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포착한다. 삶에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행복을 추구하며 평범한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회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 덕분에인지도 모른다.

#회화 #창원 #행복 #기록



경남 창원시 위창구 명지로 129번길 24(영서동179) SOONASOO ATELIER (수나수아틀리에)

KWON celebrates fleeting moments of happiness in everyday life. Life isn't always rainbows and butterflies, but she believes in the power of finding and capturing happiness hidden in everything. This may have to do with her childhood memories of growing up in a not well-to-do but happy, close-knit family.

#painting #changwon #happiness #documentation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6, Korea)

Soonhwa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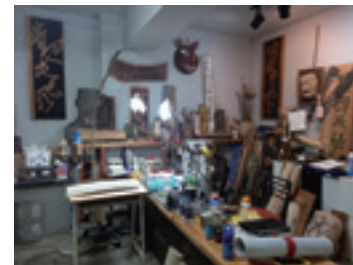
# 김기주

(1960, 한국)

한국 경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기주는 현대 서각 작가로, 다양한 서체와 색채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 현대인에게 즐거움과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각 #창원 #전통과현대 조화 #즐거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3-4

KIM is a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er who experiments with a diverse range of script types and colors to express the meaning of a word or convey his intentions. He hopes the exquisitely carved forms will bring people joy and inner peace, contributing to social integration and growth.

#CalligraphyCarving #changwon  
#TraditionMeetsModern #joy

Born in Gy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0, Korea)

Giju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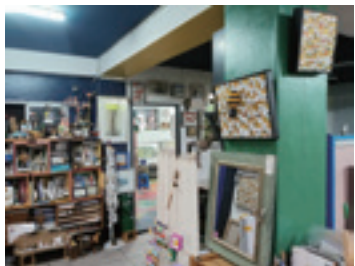
# 김덕천

(1967,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작가는 친숙하지만, 회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인 나무로 회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쪼개기를 반복하고 이를 다듬어서 그 위에 아크릴로 색을 입히는 것을 반복하여 캔버스에 붙여 나간다. 각기 다른 출처와 사연을 가진 나무는 작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는다. 작품은 가까에서 보면 하나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뒤에 물러서서 보면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듯이 개별의 나무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회화 #창원 #나무조각 #공동체



경남 창원시 창이대로 344번길 13 지하 김덕천화실

KIM primarily works with the familiar, yet unlikely medium of wood to create a painting. He cuts down a log into small strips, coats them with acrylic paint, and places them on canvas one by one. Trees from different sources and stories are given a second life through the hands of the artist. A closer look at the work reveals the distinct shapes of each wooden piece. But from a few steps back, it looks almost unrecognizable, like abstract art. Small pieces of wood are combined to produce an artwork, just as individuals come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and a world.

#painting #changwon #WoodenPieces #community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7, Korea)

Dukchu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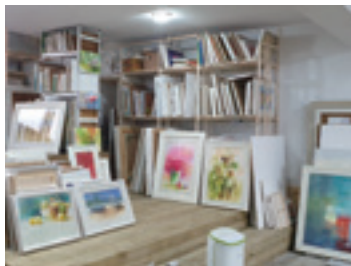
# 김미경

(196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작가는 작가가 동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 - 꽃과 나무, 한적한 시골풍경과 바닷가에 배가 있는 풍경 - 를 주요한 소재로 삼아 수채화, 아크릴, 유화 등 다양한 평면 작업으로 담아낸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상과 변화된 관계 속에서 작가는 회화 화면에서의 색과 구성의 조화를 통해 잃어버린 유대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회화 #창원 #풍경 #어울림



경남 창원시 신원동 644번지하

The artist's subject matters range from flowers and trees, and serene rural landscapes, to fishing boats on the coast. What they share in common is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her admiration. She translates these impressive imagery into two-dimensional works, such as watercolor, acrylic, and oil paint. In the midst of changes in life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KIM hopes the harmony of colors and composition found in her paintings will help restore the lost ties.

#painting #changwon #landscape #harmony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5, Korea)

Mikyeong KIM

# 김민성

(1972, 한국)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민성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 식물 등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이를 대상이 놓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엮어낸다. 작가는 대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포착한다. 작가는 이를 사유조형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자연의 본질과 순수성에 다가가려는 조형적 탐구의 결과물이자 존재의 본질, 생성과 소멸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담아낸다.

#조각 #창원 #사유조형 #자연의본질



경남 창원시 외창구 북면 철주로 851.22

KIM presents simplified versions of everyday objects or plants by integrating them into the time and place where they belong. The artist reflects for an extensive period of time on where the object came from and how it disappears, capturing the intuitive feelings from such observation. He calls the result "contemplative formative art." It is the outcome of a formative exploration into the essence and purity of nature and a manifestation of his take on the essenc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a being.

#sculpture #changwon  
#ContemplativeFormativeArt #EssenceOfNature

Born in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2, Korea)

Minsung KIM

# 김성희

(1960,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성희는 서각 작가로, 서각의 정교함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서각은 재료 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형문자와 다양한 서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 문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서각 #창원 #전통의맥 #독창성



경남 창원시 성안구 불모산동 67

KIM is committed to raising awareness on the exquisiteness and ingenuity of calligraphy carving.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ing pursues diversity in materials and seeks a fine balance between common characters and various script types to achieve aesthetics.

#CalligraphyCarving #changwon  
#CarryingOnTheLegacy #ingenuity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0, Korea)

Sunghye KIM

7 F2 화 L F2 우 R

9 ID1 화 L ID1 우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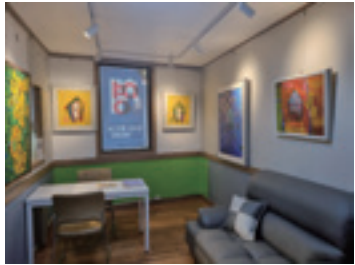
# 김은주

(1962, 한국)

한국 합천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작가는 인류발전을 위해 회생되어 온 자연을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회화의 주된 색상으로 삼아 캔버스를 채워 나가면서 후세대에 회복된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을 새긴다.

#회화 #창원 #초록 #환경



경남 창원시 남양동 11동 302호

For centuries, development has come at the expense of nature. The artist approaches nature from a female perspective and is interested in the restoration and conversation of ecosystems. She usually works with the color green, the symbol of nature, in hopes of passing on restored nature to future generations.

#painting #changwon #green #environment

Born in Hap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2, Korea)

Eunju KIM

# 김재호

(1969, 한국)

한국 하동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재호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울림을 포착하기 위해 추상적인 시각 언어를 창조하고 자유로운 드로잉과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다. 경쾌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붓질이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근원과 본질을 추구한다.

#회화 #창원 #변화무쌍한자연 #움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남로 190번길 6

KIM develops an abstract visual language to describe the ever-changing aspects of nature and echoes of life, combining it with free drawing and dripping techniques. A harmony of a vibrant color palette and rhythmical brushwork helps further his quest into the very origin and essence of nature.

#painting #changwon #EverChangingNature #dynamic

Born in Had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Jaeh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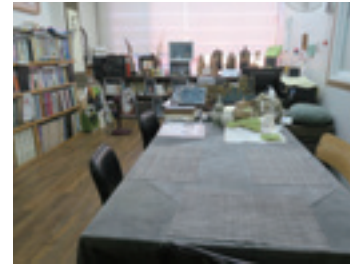
# 김화문

(1960,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화문은 오랫동안 고전 서예를 공부하며 문인화, 전각, 서각, 캘리그래피까지 관심 분야를 확장하였다. 작가는 고유한 생각을 바탕으로 글꼴이 가진 잠재력을 가시화하고 재료와 구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에 걸쳐 있는 글씨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예 #캘리그래피 #창원 #글씨문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유남상가 4층) 경상서예 캘리그래피연구소

KIM studied classic Korean calligraphy at length and expanded her interest to literati painting, calligraphy carving, seal carving, and modern calligraphy. She experiments with a range of materials and compositions to visualize the potential of lettering styles and render visually engaging designs. With a great interest in unique hand lettering cultures across the world, she is committed to upgrading the status of Korean calligraphy.

#KoreanCalligraphy #calligraphy #changwon #handlettering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0, Korea)

Whamo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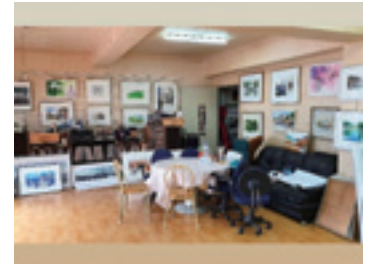
# 김희곤

(1967,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희곤은 길을 거닐면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스치게 되는 풍경을 포착한다. 자신에게 낯설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적인 장소일 수 있는 곳을 그려냄으로써 풍경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고자 한다.

#회화 #창원 #길위의풍경 #시선이머무는곳



경남 창원시 사림동 63-14번길 김희곤 아트스튜디오

KIM's paintings document random scenes he comes across on the street. By depicting an unfamiliar place that may be familiar to someone, he hopes to leave his trace upon it.

#painting #changwon #StreetScene #WhereEyesRest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7, Korea)

Heegon KIM

# 박유중

(1973, 한국)

한국 양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박유중은 드리핑 기법을 활용한 회화 작업을 주로 한다. 동심(童心)을 가진 순수했던 유년 시절과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청년 시절, 현재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의지를 작업에 담아낸다.

#회화 #창원 #드리핑 #순수와열정



경남 창원시 위창구 봉곡동 161-11번지

PARK primarily paints using a dripping technique. He likes to portray the innocence and purity of childhood, the energy and passion of youth, and a commitment to the present and dreams of the future.

#painting #changwon #dripping #PurityAndPassion

Born in Yang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3, Korea)

*Youjong PARK*

# 송광욱

(1966,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송광욱의 분청은 자연과 삶의 흔적이 담긴 토속성과 현대적 조형성이 만나 빛어내는 결정체이다. 작가는 현대 회화 기법인 스크래치를 도자에 접목하여 회화적 표현양식을 수용하면서도 동양의 절제미학을 드러낸다.

#도에 #창원 #분청 #절제미학



경남 창원시 김산구 비음로 12(사파동 20-1)번지 송광욱 도예연구실

SONG's grayish blue buncheong celadon pieces represent the interplay of indigenesness of nature and life and contemporary formative elements. He incorporates the scratch painting technique into and embraces a painterly expression, while practicing the Eastern art of moderation.

#ceramics #changwon #BuncheongCeladon #ArtOfModeration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6, Korea)

*Kwangok SONG*

# 송명주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송명주는 수채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뿌리고, 흘리고, 적고, 번지기 등 다양한 비구상적이면서도 즉흥적인 기법을 한 화면에 담는다. 이를 통해 압울하고 단절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다.

#회화 #창원 #즉흥성 #일상의기쁨



경남 창원시 위창구 사림동 17-8 송명주 화실

SONG's watercolor paintings offer a realistic portrayal of a subject, based on a range of non-figurative and spontaneous techniques, including spritzing, dripping, dabbing, and wet-on-wet. They are an appreciation of the small joys in a socially and physically isolated everyday life.

#painting #changwon #improvisation #JoyInEverydayLif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Myeongjoo SONG*

# 신은순

(197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신은순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을 색과 실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름답고 정교하면서도 다양한 색을 조화시킨 특유의 매듭은 자연과 풍경을 섬세하면서도 다채롭게 보여준다.

#공예 #창원 #색감 #정교함



경남 창원시 김산구 장어대로 707번길 26-13 신은순의메듭제작

SHIN uses a combination of colors and strings to express emotion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Delicately-woven knots with vibrant colors are inspired by nature and landscapes.

#craft #changwon #colors #delicat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7, Korea)

*Eunsoon SHIN*



# 안령희

(1957,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안령희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란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 왔다. 전통적인 소재인 모란을 회화의 주제로 삼아 전통이 동시대의 예술과 호흡하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에는 ‘모란과 달항아리’, ‘新(신)모란도’ 등으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회화 #창원 #모란 #전통과현대의조화



경남 창원시 장산구 비음로 14(사파동 27-7번지) 안령희 갤러리

Peonies have become an iconic subject in AN's oeuvre since 2009. The artist chose the traditional subject matter in hopes of integrating past traditions into contemporary art. She is now experimenting with a broader subject, such as "peonies and a moon jar" and "new peony painting."

#painting #changwon #peony  
#TraditionMeetsModern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7, Korea)

Yeounghee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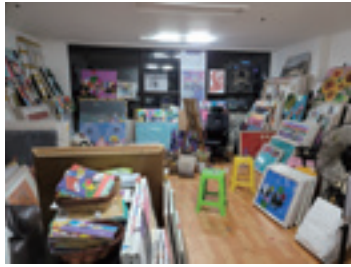
# 이소정

(1961, 한국)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소정은 각각의 오브제가 모여 하나의 화폭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색, 표현, 느낌은 다르지만 각자 가진 온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했음을 보여준다.

#회화 #창원 #연결 #여정



경남 창원시 장산구 중앙대로 55, 현대오피스텔 816호 이소정 아틀리에

LEE juxtaposes on canvas different objects with varying colors, textures, and feels. These seemingly random elements come together to form the whole, demonstrating their mutual indispensability.

#painting #changwon #connection #journey

Born in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Soj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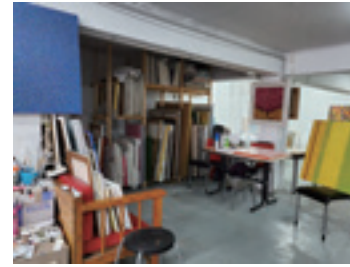
# 이정희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정희는 기억의 모습을 상상하며 캔버스에 직선을 반복하여 쌓아 나간다. 마르면서 생겨나는 패턴은 강력한 형태로 시각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에 반해 통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점은 순환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하고, 다양한 색채는 생명성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회화 #창원 #겹 #에너지



경남 창원시 봉곡동 101-8번지 이정희 아틀리에

LEE visualizes the shapes of memories as a pile of straight lines. As the paints dry, intricate patterns appear, creating visual tensions. On the contrary, uncontrolled, free-floating points reveal the flow of energy, while the rich color palette represents vitality and dynamics.

#painting #changwon #layers #energy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Jeonghee LEE

# 이현동

(1962,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현동의 서각은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에 칼과 끌을 사용하여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글 작품과 그림 같은 상형 한자로 만들어낸 입체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서각의 세계를 알리고자 한다.

#서각 #창원 #무궁무진 #생각의분출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560-1

LEE's calligraphy carving involves carving raised Korean letters or Chinese hieroglyphics in wood or other materials using a knife and a chisel to give a three-dimensional effect. With easy-to-relate messages, the artist hopes to bring viewers closer to the world of calligraphy carving that has endless possibilities.

#CalligraphyCarving #changwon  
#EndlessPossibilities #VentingOutIdeas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2, Korea)

Hyundo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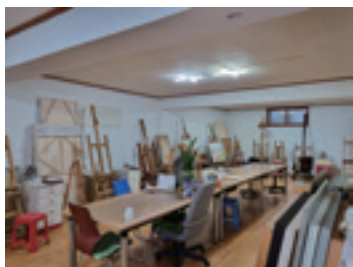
# 임덕현

(1969,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임덕현은 아교와 명반, 먹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기법으로 자연의 색감을 구현한다. 신비로운 자연을 단순히 보고 그대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인상주의 미학을 수립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화 #창원 #자연의생동감 #독창성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81번길 24(사림동)

LIM mirrors the rich colors from nature's palette by relying on his own technique using animal glue, alum, and an ink stick. Instead of simply documenting the mystery of nature, he has developed his own impressionist style with Korean elements, which lends originality to his works.

#KoreanPainting #changwon #VitalityOfNature #originality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Deokhyun LIM

# 임채섭

(1969,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임채섭의 연꽃을 주요한 소재로 삼는다. 연꽃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과 가능성에 매료되어 이를 수십 년째 연구하면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회화 #창원 #연꽃 #정화



경남 창원시 정산구 신월동 67-16

The lotus flower is a recurring subject in IM's art. Fascinated by its formative elements and purifying function, he has studied and painted the plant for decades.

#painting #changwon #LotusFlower #purifying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Chaeseop IM

# 장선자

(1961, 한국)

한국 사천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장선자는 오랫동안 꽃의 유려한 곡선과 대쪽같은 직선에서 힘과 가능성을 보며 추상과 비구상 작업을 해왔다. 현재는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등 다양한 관계와 연결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있다.

#회화 #창원 #꽃 #연결



경남 창원시 정산구 상남로 216번길 21 경아드리에

Flowers had long been a principal subject matter for JANG's abstract and non-figurative paintings. She saw both power and possibilities in their straight lines and elegant curves. Her more recent works explore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between objects or people.

#painting #changwon #flower #connection

Born in Sa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Seunja JANG

# 장인석

(1969, 한국)

한국 충북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장인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는 서각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목공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서각 #창원 #목공과의결합 #실험



경남 창원시 정산구 안민로 117번길 24 안민북합상가 3층

JANG's works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alligraphy carving, marrying design and woodwork to add a new dimension to the traditional art.

#CalligraphyCarving #changwon #DesignMeetsWoodwork #experiment

Born in Chungbuk,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Inseok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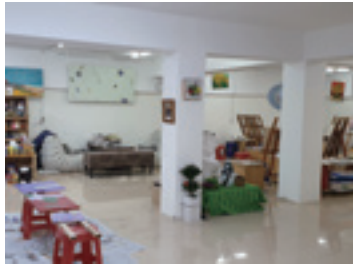
# 정혜연

(1961,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정혜연은 타인과 소통하는 일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과 기억되고 남는 것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남긴다. 기록된 일상은 화면의 반짝이는 색깔로 남아 오랫동안 각인된다.

#회화 #창원 #기록 #고차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67-17

JUNG's paintings shed light on the interface between everyday memories that disappear and those that remain. Once documented, fleeting moments turn into sparkling colors, leaving a lasting legacy.

#painting #changwon #documentation #interface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Hyelyun JUNG

# 최미정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도예가인 최미정은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흙작업을 통해 느긋함과 휴식을 선사하고자 한다. 취미이자 놀이로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예의 매력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한다.

#도예 #창원 #흙작업 #취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1948 다미공방

Ceramic artist CHOI believes clay work helps people find inner peace and tranquility in this fast-changing world. She is committed to making the art of ceramics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s a hobby.

#ceramics #changwon #claywork #hobby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Mijung CHOI

좌 R F2 28  
좌 L F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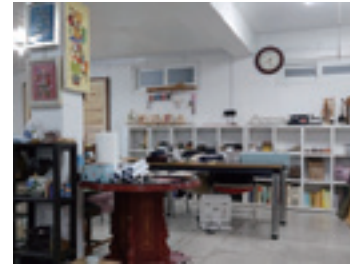
# 최선희

(1965, 한국)

한국 함양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최선희는 삭막한 사회에서 서로의 웃는 모습을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의 화려한 자태를 화폭에 담아 우리의 부귀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기원한다.

#민화 #창원 #모란 #태평성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89번길 8 (진그림 숲)

CHOI's works feature sumptuous depictions of the peony, "the king of flowers" to wish for wealth, prosperity, and happiness in an increasingly isolated society.

#FolkPainting #changwon #peony #TimesOfPeace

Born in Hamya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5, Korea)

Seonhui CHOI

좌 R D3 30  
좌 L F2 29

# 김명련

(1968, 한국)

한국 남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명련은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주변의 안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화를 그린다. 누군가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노력에도 커다란 응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민화 #마산 #안경 #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3 예원 민화교실

KIM paints folk art to wish for the well-being of those around us whom we often take for granted. She hopes we will be able to root for seemingly small, yet meaningful efforts by someone.

#FolkPainting #masan #wellbeing #RootingForYou

Born in Nam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8, Korea)

Myeongryeon KIM

# 김영관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영관은 현대 서각 작가이다. 다양한 서체를 활용하는 현대 서각은 서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와 색채를 활용한다. 작가는 글자가 가진 뜻을 입체적인 구조와 색채에 실어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창작을 통한 즐거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서각 #함안군 #정신적풍요로움 #미적구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인면 임곡길 285-44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ing experiments with a broad array of script types, materials, and colors to communicate a message. KIM relies on a combination of relief carved letters and different colors to reflect the meaning of the text and promotes joy and spiritual growth through creative expression.

#CalligraphyCarving #hamangun #SpiritualGrowth #AestheticStructur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Younggw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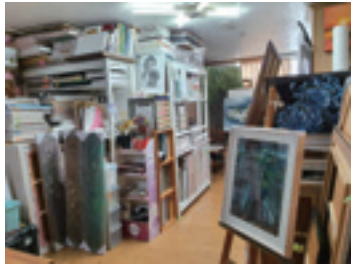
# 김옥숙

(195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작가는 자연이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한국화로 담아낸다. 작품은 정지된 화면을 담아내지만 구름과 강은 흐르고, 꽃은 매순간 모습이 바뀌며 새와 나비는 잠시도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작가는 잠시도 멈춤이 없는 생명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한다.

#한국화 #마산 #생명의흐름 #지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67 M오피스텔 1102호 기삼아트리에

The artist interprets the various sides of nature through the language of Korean painting. The subjects in her paintings are caught in a paused moment. But the cloud fleets, the river flows, the flower blooms, and the birds and butterflies continue to flap their wings. She intends to highlight the constant flow of life.

#KoreanPainting #masan #FlowOfLife #now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7, Korea)

Oks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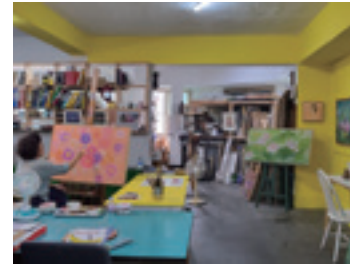
# 김옥자

(1955,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옥자는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를 주제로 하여 회화 작업을 한다. 때로 꽃처럼 화려한 시절이나 정다운 사람들과의 추억은 인생사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잊혀진다. 작가는 우주적인 시간에 비해 찰나와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회화 #마산 #화양연화 #찰나 #만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사4길 9 지하2층 9호 갤러리 맥아지문집 김양화집

KIM's paintings explore the theme of "hwa yang yeon hwa," meaning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 in life. More than often, glory days and fond memories with people we love are forgotten during rough patches of life. Life is a moment in space. The artist vividly captures fleeting, yet significant memories in our momentary life.

#painting #masan #HwaYangYeonHwa #花樣年華 #momentary #encounter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5, Korea)

Okja KIM

# 김은진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작가는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작가 자신만의 주제인 '보리'를 설정하여 달항아리, 막사발, 생활도자기, 평면 등 공예와 회화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꾸준하게 작업을 해오고 있다. 보리는 자연으로의 회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 등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공예 #마산 #보리 #자연으로의회귀 #깊어지는사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사4길 38 창동예술회관 보리공방

The artist is best-known for her iconic "barley" series which features the grain repeatedly across different mediums from ceramics to painting. The image of barley appearing on a moon jar, porcelain bowl, everyday earthenware, and a two-dimensional surface represents a return to nature, deepening love over time, and inner beauty.

#craft #masan #barley #ReturnToNature #DeepeningLov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Eunjin KIM

# 김준희

(1990,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준희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최근에는 실험적인 영상과 사진에 집중하고 있다. 고향인 마산의 풍경이나 소도시가 가진 특수성을 카메라에 담아낸 바 있으며 현재는 보다 보편적인 주제 - 사랑과 죽음 - 에 관심을 가진다.

#영상 #마산 #지역문화 #보편성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웅동거리23, 미디어 mov

Former film and documentary producer KIM focuses on experimental video and photography projects. His previous works depict landscapes of his hometown, Masan, and the distinctiveness of the small city. He now addresses the more universal theme of love and death.

#video #masan #LocalCulture #universality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90, Korea)

Junhee KIM

# 김현숙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유년 시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에 둘러싸여 자란 작가는 자연을 통해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연에서 따온 형상을, 사유를 의미하는 보라빛 색채로 화면에 채어나간다. 이를 통해 현실을 초월한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회화 #마산 #보라빛 #숲으로의초대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16, 2층 김현숙 아틀리에

Growing up in a rural town surrounded by mountains and the sea, KIM had plenty of time as a child to meditate in nature. Her work consists of shapes borrowed from nature painted in purple, the color symbolizing contemplation, to unveil an ideal world beyond the present one.

#painting #masan #purple #InviteToAForest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1, Korea)

Hyeonsook KIM

# 남동화

(1954,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남동화는 작은 톨날이 달린 목공장비인 스크롤쏘를 활용하여 자동차, 명화, 자화상을 모티프로 하여 순수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만의 도안을 적용한 휴대폰 거치대, 도마,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목공예 #마산 #쏘잉마을 #스크롤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5, 스크롤쏘잉마을

NAM uses a scroll saw, a woodworking tool with a small blade to cut intricate designs, to craft original artworks inspired by automobiles, celebrated paintings, and self-portraits. He also organizes woodworking classes for locals on a regular basis. Participants are invited to work with wood to build everyday objects, such as a mobile phone stand, a cutting board, and a toy, based on their own designs.

#woodcraft #masan #SawingVillage #ScrollSaw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4, Korea)

Donghwa 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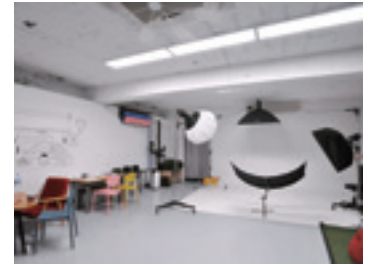
# 라상호

(1974,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라상호는 인상사진과 상업사진 등 다양한 사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갤러리/스튜디오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가 수집한 클래식 카메라를 구경할 수 있다.

#사진 #마산 #사진술 #수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641 창동갤러리/스튜디오

RA has operated a gallery and a photography studio in Chang-dong Art Village for a decade, with an interest in different areas of photography including portrait and commercial. He teaches photography classes for amateurs. The gallery features several exhibitions, including the artist's own collection of vintage cameras.

#photograph #masan #photography #collections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4, Korea)

Sangho RA



# 류정림

(197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류정림은 달귀진 펜으로 나무, 한지, 가죽, 천 등을 태워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전통화 기법 중 하나인 인두화를 활용한 회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화면의 바탕이 되는 나무를 점의 연속으로 태워 나가면서 생명의 선이자 수행의 선을 화면에 담는다. 이를 통해 작가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정제하고 '인간은 자연을 닮고, 자연은 사람을 닮는다'는 작가의 주요한 지향점을 추구하고자 한다.

#회화 #마산 #선 #자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6 GOLMORGIIL

RYU practices the art of pyrography where designs are burned into the surface of wood, Korean traditional mulberry paper, leather, or fabric with a heated pen. A succession of burn points creates a burn line, which symbolizes meditation and life. This process helps the artist unwind and untangle her mind and stay close to her motto, "People resemble nature, and nature embraces people."

#painting #masan #line #natur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7, Korea)

Jeongrim RYU

# 박순흔

(1941,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박순흔은 50여 년간 회화를 그려왔다.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했으며 작품이 어디에 있는 자신과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회화 #마산 #50년 #연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안관광로 460번지 박순흔 갤러리

PARK has dedicated himself to painting for the past 50 years. It takes an effort to lead a balanced life between being a professional painter and a housewife. She has produced over 500 pieces of work and thinks she is deeply connected with her paintings wherever they are.

#painting #masan #50years #connection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41, Korea)

Soonheun PARK

# 박재철

(198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박재철은 도자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2대째 도자를 전공하고 있다. 전통도예와 현대도예를 접목하여 다복과 다산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물고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도에 #마산 #물고기 #전통과현대의조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호산정길로 160 단비도예

PARK is a second-generation ceramic artis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is mother. His works are marked by a fine blend of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with a focus on diverse representations of fish, which symbolizes fertility and happiness.

#ceramics #masan #fish #TraditionMeetsModern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81, Korea)

Jeachul PARK

# 서지희

(1974,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서지희는 사회적인 사건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낸다. 작가는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을 내면의 언어를 발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듯, 관람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

#회화 #마산 #일상 #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16-15 상가 102호

SEO's paintings explore both social and everyday issues in a process she describes as an expression of inner language. She prefers to leave the subject matter open to interpretation, inviting viewers to explore i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ainting #masan #EverydayLife #perspective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4,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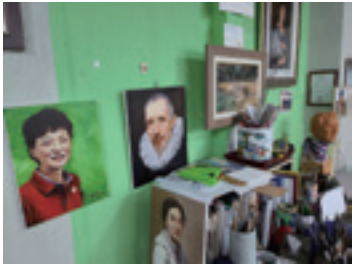
Jihoe SEO

# 송창수

(1943, 한국)

한국 홍남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송창수는 신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가 지니고 있는 심상을 표현하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회화 #마산 #초상화 #심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동 642 송창수 화선

SONG focuses on depicting the beautiful images of human beings, whom he believes are the most wonderful of God's creations.  
#painting #masan #portrait #image

Born in Heungnam,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43,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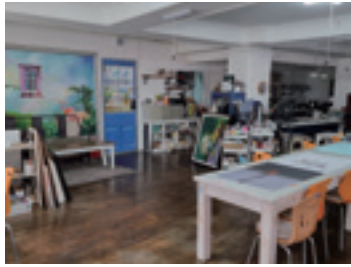
Changsoo SONG

# 안옥희

(1965,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안옥희는 심정의 변화로 인하여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물과 종이배의 관계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회화 #마산 #종이배 #바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동거리길 40, 4층 드로잉미술

AN compares the impact of emotional changes on the surroundings to a paper boat on water being swayed by the wind.  
#painting #masan #PaperBoat #wind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5,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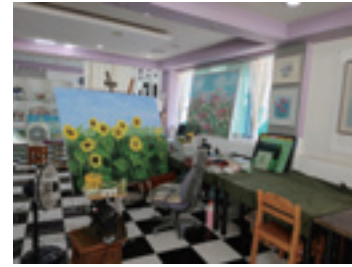
Okhee AN

# 윤복희

(1948, 한국)

한국 안면도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윤복희는 정원에 피어난 꽃부터 길에 피어난 들꽃, 잡초에 이르기까지 꽃의 다양한 색채와 형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과거에는 전통기법의 수묵산수화를 기반으로 작업했으나, 최근에는 변화하는 자연의 다채로움을 포착하기 위해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로 야외 사생을 즐기기도 한다.  
#회화 #마산 #실경 #꽃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동거리길 27번지 3층 윤복희 아트리에

YOUN is interested in depicting flowers in various colors and shapes, from garden blooms to wild flowers and weeds on the roadside. Her recent works are a departure from her earlier ink and wash landscape series, as she often works with quickly drying acrylic paints to capture the vibrant changes of nature in the open air.  
#painting #masan #RealWorldLandscapes #flower

Born in Anmyeondo,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48,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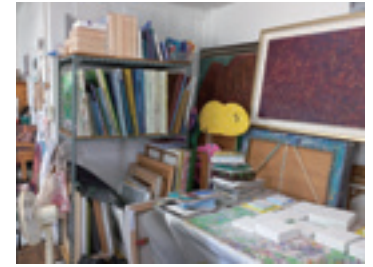
Bockhee YOUN

# 이혜경

(1963,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혜경은 자연을 재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연에서 받은 감동과 울림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하게 색채 실험을 하고, 화면에서 전체의 균형을 잡아 자연의 깊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화 #마산 #자연 #울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38 2층 이혜경 아트리에

LEE goes beyond simply recreating scenes from nature. She experiments with creative color combinations to describe the emotions and impressions evoked by nature and reconstructs its depth with a balanced composition.  
#painting #masan #nature #impressions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3, Korea)

Hyeky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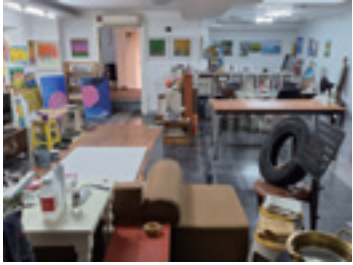
# 전귀련

(1958,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전귀련은 현대사회의 개발과 난립 속에서도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자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제로 작업한다. 희망과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냄으로써 또 다른 희망을 암시하고자 한다.

#회화 #마산 #자연 #희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8 2층 (전귀련 갤러리)

JUN focuses on the power of nature to support life against the odds, as well as the endless creations and destructions by nature. Her spirited portrayals of nature on canvas instill a sense of hope.

#painting #masan #nature #hope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8, Korea)

Gwilyeon JUN

# 전창환

(1963,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전창환은 기쁨, 사랑, 열정, 부귀, 영화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 모란을 주요한 주제로 삼아 회화를 그린다. 그는 대상의 모사에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응을 담아내는 독자적인 표현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화 #마산 #모란 #상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0길 74 4층 전창환 화실

JEON's paintings feature the peony as the main subject matter, a flower that is tied to multiple meanings, such as joy, love, passion, wealth, and prosperity. They embody the artist's response to the subject and their rich meanings.

#painting #masan #peony #symbol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3, Korea)

Changhwan 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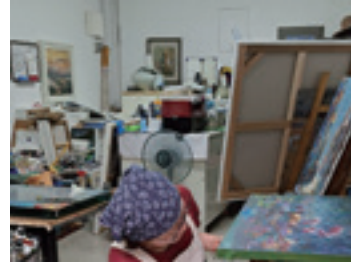
# 정순옥

(1959,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정순옥은 고향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내면서 일상에서 겪었던 일, 만났던 사람과 풍경을 자신만의 색채로 그림에 담는다.

#회화 #마산 #일상 #풍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16 정순옥 아트스튜디오

JEONG was born and lives and works in Masan. She highlights events, people and scenes of everyday life through her own lens.

#painting #masan #EverydayLife #scene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9, Korea)

Soonok JEONG

# 정재훈

(1968,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정재훈은 친환경 공예 작가이다. 주재료는 친환경 종이밴드인 '에코크래프트'이다. 얇은 종이실 끈 12개를 붙여서 만든 밴드로 이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어서 바구니, 가방 소품 등을 만든다.

#공예 #마산 #에코크래프트 #생활소품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7 에코크래프트 공방

JEONG is an eco-friendly craft artist specializing in "Eco Craft" which is recycled pulp tape made of 12 paper strings lined next to each other. The tape is cut, pasted, and weaved together to make baskets, bags, and other accessories.

#craft #masan #EcoCraft #HomeAccessories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8, Korea)

Jaehoon JEONG

47 D3 48 49

158

특별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49 D3 50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 정현숙

(1966, 한국)

한국 함평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정현숙은 드리핑 기법을 활용하여 캔버스에 물감을 쏟아내면서 정서의 진폭을 크게 올리는 향수를 주제로 한 회화를 그린다. 쌓인 물감이 만드는 음영과 글썽은 농경문화의 질방석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회화 #마산 #향수 #드리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 16길 38 2층

JUNG employs a drip technique of splashing paint onto canvas to communicate the theme of nostalgia in an emotionally resonating way. The distinctive patterns and textures of layered paint remind of straw cushions used in traditional rural homes.

#painting #masan #nostalgia #dripping

Born in Hamp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6, Korea)

Hyunsook JUNG

# 조영희

(195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조영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는다. 여행지, 동네골목, 찻집 등의 장소를 편안한 감성으로 담고, 거기에 작가 자신의 색채를 담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화 #마산 #장소 #나다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4-2

CHO turns snapshots of everyday life into paintings. Her works are typified by soothing and peaceful depictions of familiar places such as tourist spots, neighborhood alleys, and cafes and the use of a distinct color palette.

#painting #masan #places #BeingMyself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9, Korea)

Yeonghui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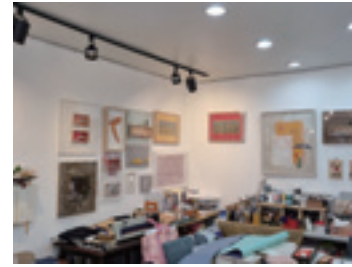
# 조은교

(1970,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조은교는 책을 회화의 소재로 삼아 평면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현대인이 가진 저마다의 마음을 책에 빚댄다. 각자의 고독한 마음과 삶이 담긴 책을 열고 타인과 교감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칼질로 잘라낸 책의 단면과 풍경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한다.

#회화 #마산 #책 #현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 24-2 조은교 화실

JO creates two-dimensional works on the theme of "book." The artist compares different minds to different books. She hopes people will open up the book that contains their loneliness and lif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 mix of a cross-section of a book and a landscape is intended to give viewers a peace of mind.

#painting #masan #book #ModernMan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0, Korea)

Eungyo JO

# 조지은

(1980,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조지은은 새를 주된 소재로 삼아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전된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회화 #마산 #새 #현대사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3길 13

Best-known for her paintings of birds, CHO questions how man and nature can live in harmony in a world where the convenience of mankind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She invites viewer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what really matters in this fast-changing age.

#painting #masan #bird #ModernWorld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80, Korea)

Jieun CHO



# 주상완

(1966,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주상완은 가장 멀고 대립되어 보이는 색채를 가진 검은 먹과 하얀 종이 만나서 조화의 상생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한다. 숙련되고 세련된 필치, 꾸밈과 기교를 뒤어넘어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고 생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시에 #마산 #조화의상생 #생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봉곡정길 2-1 2층 삼전서예학원

JOO works with a visually-opposing pair of black ink and white paper to achieve a delicate balance. He considers the art of calligraphy the ultimate state of harmony that goes beyond sophisticated brushwork and skilled techniques.

#KoreanCalligraphy #masan  
#HarmonyAndCoexistence #liveliness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6, Korea)

Sangwan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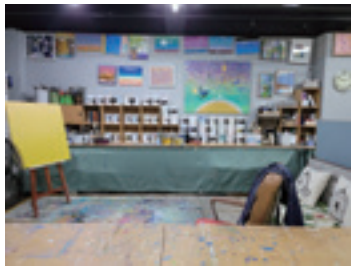
# 허은주

(1974, 한국)

한국 강원도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허은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자연의 색을 포착하고 금색과 은색을 수채에 겹쳐 넣어 자연의 풍속과 같은 편안하고 깊은 생명에너지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연의 힘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회화 #마산 #자연 #생명에너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20 백로상가 604호 허은주 갤러리(화실)

HEO paints multiple overlays of gold and silver colors against a background of natural colors extracted from the four seasons to capture the deep and comforting feeling of life energy and celebrate the power and dynamics of nature.

#painting #masan #nature #LifeEnergy

Born in Gangwondo,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4, Korea)

Eunju HEO

162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주 R C2 56  
좌 L D3 55  
좌 L 55

# 곽순희

(1967,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곽순희는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풍경과 모티프를 캔버스에 담아낸다. 캔버스에 색을 입히고 칠할 뿐만 아니라 실로 감고 바느질하기도 한다. 한 줄의 실은 약하지만 한데 모으면 강한 힘을 발휘하듯이, 캔버스에 빚어내는 붓질과 바느질이 모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회화 #진해 #바느질 #여행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KWAK sees life as a journey and renders onto canvas the landscapes and motifs she sees around her every day. Besides painting, she also experiments with threading and sewing. A single strand of thread is weak on its own, but is powerful when woven with other strands. Brushstrokes and stitches together deliver a powerful message.

#painting #jinhae #sewing #travel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7, Korea)

Soonhee KWAK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주 R E3 58  
좌 L E3 57  
좌 L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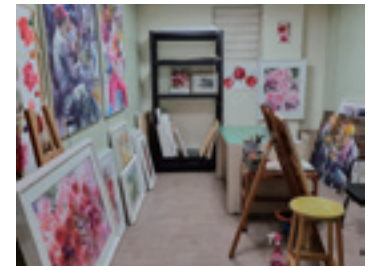
# 김미성

(1966,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미성은 뜨거운 여름 녹음이 우거진 숲, 익숙한 물내음을 가진 강가의 잠자리와 참나리, 빛나는 쪽빛 바다 위의 작은 배 등 자연에서 목격한 아름다운 장면이나 몸으로 기억된 경험을 회화로 담아낸다. 작품은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한 아름다움부터 어떤 의지를 느껴지게 하는 장면,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등을 보여준다.

#회화 #진해 #풍경 #조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KIM draws her inspiration from stunningly beautiful moments she witnesses in nature, such as a forest with lush summer foliage, dragonflies and tiger lilies by the river with a familiar water smell, and a tiny boat on glassy indigo water. She is also inspired by physical experiences engraved in her memories. Her paintings capture, among others, the random beauty of nature, a commitment to a cause, and a harmony between nature and man.

#painting #jinhae #landscape #harmony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6, Korea)

Miseo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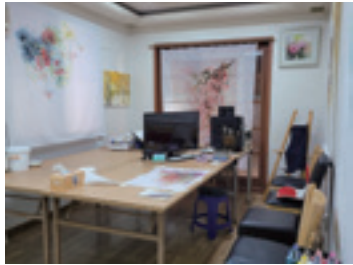
# 김시윤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시윤은 오랫동안 의류, 침구류, 벽지 등의 패턴을 디자인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컴퓨터 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현재는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천이나 종이 등에 꽃이나 나무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회화 #진해 #순맛 #번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무로 589번길 18-1

KIM was a long-time textile designer who developed patterns for apparel, bedding, and wallpapers before she grew skeptical of an increasingly digitalized approach to design and turned to painting. Her work features natural elements, such as flowers and trees, on paper or fabric.

#painting #jinhae #HandPaintFeel #WetOnWet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9, Korea)

*Siyun KIM*

# 김임숙

(1953, 한국)

한국 고성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논어에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 好之者 好之者 不樂之者)’라는 가르침이 있다. 작가는 이를 문인화에 대입한다. 시를 창작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림에도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고자 한다.

#문인화 #진해  
#지지가불여호지자호지자불여락지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Confucius said, “Knowing it is not as good as loving it; loving it is not as good as delighting in it.” KIM incorporates the Chinese philosopher’s teaching into her literati painting. Composing a poem, writing letters, and painting figures are a creative process that requires patience and perseverance, but she strives to love and delight in them.

#LiteratiPainting #jinhae  
#KnowingItIsNotAsGoodAsLovingIt #LovingItIsNotAsGoodAsDelightingInIt

Born in Gos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3, Korea)

*Imsuk KIM*

# 김정희

(1962,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정희는 의상학을 전공하고 현재 정취공예연구소 대표로서 작품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전통천연염색 기법과 유화, 포크 아트 등 현대기법을 융합하는 한편, 전통적인 민화 도상을 활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만의 섬유채색과 장르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예 #진해 #천연염색 #섬유채색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2번길 35-1 정취공예연구소

KIM majored in fashion design and now produces original artworks and offers teaching programs in her capacity of President of the Jeonghui Craft Institute. Her work is typified by a blend of traditional dyeing techniques and modern folk art elements and designs, in pursuit of her own fabric painting genre.

#craft #jinhae #NaturalDyeing #FabricPainting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2, Korea)

*Jungheu KIM*

# 김형집

(1966,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김형집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화를 그린다. 누군가가 자신의 작업을 보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만의 기억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한국화 #진해 #감정 #현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71 (2층 김형집 화실)

KIM believes in the power of art as a tool to share his emotions with others. He hopes an encounter with his Korean paintings will help viewers understand his emotions and leave them with lasting memories.

#KoreanPainting #jinhae #emotions #hierophany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6, Korea)

*Hyeongjip KIM*

# 문현주

(1960,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문현주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의 손이 만들어내는 먹선에 매력을 느끼면서 서예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작가는 여전히 화선지에 채워지는 먹빛에 매료되어 있으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붓에 먹을 찍고 있다.

#시에 #진해 #먹선 #먹빛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MUN first took up Korean calligraphy, after being fascinated by the bold, lively ink lines in his grandfather's work. The subtle variations of gray filling the paper still captivate him, as he picks up a brush every day.

#KoreanCalligraphy #jinhae #InkLines  
#VariationsofGray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0, Korea)

Hyunju MUN

# 박남순

(1962,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친구의 권유로 서예를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박남순은 어느새 20여 년 동안 꾸준히 수묵화를 해오고 있다. 작가는 아직도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수묵화 #진해 #정진 #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PARK started Korean calligraphy as a hobby at the recommendation of her friend. Almos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but she still approaches ink and wash painting with humility and commitment.

#InkAndWashPainting #jinhae #commitment  
#hope

Born in Changn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62, Korea)

Namsoun PARK

# 박배덕

(1948,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박배덕은 디지털 이미지의 얇은 표면과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할 수 없는 평면 작업에 대해 고민하면서 입체회화라는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평면에서 위로 솟아올라 다섯 면을 가지는 회화는 사진 이미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섬세한 질감과 형태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회화 #진해 #입체회화 #다섯면의회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62-19번지 박배덕 마당갤러리

PARK questions the meaning of the thin surface of digital images and looks for two-dimensional works that cannot be facilitated with digital images. He specializes in the experimental art of three-dimensional painting that consists of five planes. His work captivates viewers with delicate texture and shapes that are hardly captured in photographic imagery.

#painting #jinhae #3Dpainting  
#PaintingWithFivePlanes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48, Korea)

Baedeog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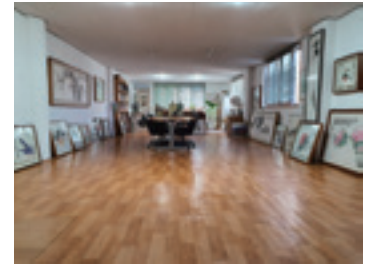
# 박선동

(195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박선동은 사군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청아하고 맑은 심신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면서 감동이 있는 예술을 관객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사군자 #진해 #현대와의조화 #맑은심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633-1

PARK keeps alive the legacy of the Four Gracious Plants (plum tree,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that represents the virtues expected of ancient Korean scholars, while integrating them into the modern world. She starts each painting with a pure, clear mind and body, as if in meditation, in hopes of leaving a deep impression to viewers.

#TheFourGraciousPlants #jinhae  
#BalanceOfTraditionandModern  
#ClearMindAndBody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5, Korea)

Sundong PARK

# 이지영

(1970,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지영은 도시는 숲으로 꽃나무는 창으로 비유하여 현대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같은 공간에 현대의 이두움과 꽃나무의 따뜻함을 대비시키며 도시인의 삶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한국화 #진해 #숲 #꽃나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경로 575-3 (봉오동, 무신종합상가 404호 영아드라이)

LEE compares a city to a forest, and a flowering tree to a window to highlight the duplicity of the modern world. A juxtaposition of the darkness of the urban landscape and the warmth of flowering trees represents the life of a city-dweller.

#KoreanPainting #jinhae #forest #FloweringTree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0, Korea)

Jiyoung LEE

# 이태호

(1971,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이태호는 비오는 날에 대한 각기 다른 추억을 주제로, 우산 속 모습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유추하여 한지에 수묵으로 담아낸다.

#수묵화 #진해 #비 #추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762 1층 원웅화실

Inspired by memories of a rainy day, LEE's ink and wash paintings open the viewer's imagination to the stories behind his protagonists under umbrellas.

#InkAndWashPainting #jinhae #rain #memories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71, Korea)

Taeh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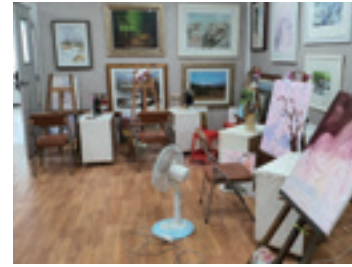
# 최대식

(1957,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최대식은 늘 변함없이 해마다 그대로 주는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과도 같은 색깔들을 사용하여 늘 변함없는 자연을 한 폭의 그림에 녹여낸다.

#회화 #진해 #변함없는자연 #사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47-1(봉화동 6-1)

CHOI's works are a celebration of his fascination with nature which always gives. His extensive use of natural colors brings out the permanence and invariability of nature.

#painting #jinhae #NatureRemainsTheSame #love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1957, Korea)

Daesig CHOI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Art Salon without Borders*



특별전 2는 온라인 운영을 통해 개인 스튜디오와 레지던시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특별전 2는 레지던시 개념과 변화, 팬데믹 이후 새롭게 부각된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개인 작가 스튜디오를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본다. 특별전 2는 해외 오프라인 레지던시와 온라인 레지던시의 대표와 큐레이터의 인터뷰 영상, 작가 스튜디오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내 미술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온라인 레지던시 운영 사례 자료와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개인 작가 스튜디오의 아트 프로젝트를 인포사이트로 만날 수 있다.

- \* 오프라인 레지던시(offline residency)에서 온라인 레지던시(online residency)로
- \* 일상의 작업실을 창작과 교류(국내외)의 플랫폼으로
- \* 교류와 협력, 그리고 체험

Special Exhibition 2 questions the concept of a studio and a residency through experimental web-based, virtual, and online residency program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it studies the emerging trend of virtual residency programs in the wake of the pandemic and examines whether an individual artist's studio can serve as a platform of both creation and exchanges. The exhibits include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curators of offline and online residencies overseas and Korean art professionals with a fresh perspective on a studio, as well as infosite of online residencies's case studies and art projects which work on a private artist's studio as a platform of creation and exchanges.

- \* From an offline to online residency
- \* From an everyday studio to a platform of creation and exchange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 \* Exchanges, cooperation, and experience

후원 및 협찬  
크레딧  
전시장 정보

*Sponsors*  
*Credit*  
*Exhibition Venue*

2022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 경남지역 재투자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늘 든든한 지역의 동반자로  
지역과 고객을 위해  
경남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란?**

-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 평가항목은 지역 내 자금, 공공,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점포수 등 인프라,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 전략

주최  
창원특례시

주관  
창원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메세나협회

메인 협찬사  
BNK 경남은행

협찬사  
라쉬반, 네오룩, 범한산업(주), 에이티미디어랩

Hosted by  
Changwon City

Organiz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yeongsangnamdo,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Korea Mecenat Association

Main Supported by  
Kyongnam Bank

Supported by  
Lashevan, Neolook, Bumhan Industry, ATMEDIALAB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균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구진호  
추진위원: 성보빈, 황무현, 이상현, 전진수, 이강석, 김형집, 최태만, 김이순, 김성호, 김정희, 김정혜, 윤형근

총감독  
조관용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총괄: 이차균 부장  
기획운영: 조수경 대리  
예산 및 회계: 최선정 창원특례시 지방행정주사보  
홍보마케팅: 김지수 대리, 이진아 사원  
전시장 운영 지원 : 박한라 대리, 양혜주 사원

비엔날레 학예팀  
수석큐레이터: 이태훈  
큐레이터: 남효진, 유은순  
객원큐레이터: 차상민  
코디네이터: 김동영, 이다솔  
테크니션: 김민성, 조동국

도슨트  
정유미, 진다인, 김다영, 김상미, 김정삼, 도미영,  
안소연, 이미화, 이선주, 이에림, 조인경, 조혜숙,  
홍미옥

Mayor of Changwon City  
Nampyo HONG (Chairperson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CEO,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Ungkyun YIM

Steering Committee Members  
Chairperson: Youngho KIM  
Vice-Chair Person: Jinho KOO  
Member: Bobin SUNG, Muhyeon HWANG, Sangheon LEE, Jinsoo JEON, Kangseok LEE, Hyeongjip KIM, Taeman CHOI, Yisoon KIM, Sungho KIM, Junghee KIM, Junghye KIM, Hyunggun YOUN

General Director  
Kwanyong CHO

Chanwon Sculpture Biennale Department  
Executive Director: Chagyun LEE  
Management and Operation: Sookyeong JO  
Adminstration: Seonjeong CHOI  
Public Relation: Jisu KIM, Jina LEE  
Exhibition Hall Support: Hanra PARK, Hyeju YANG

Biennale Curatorial Team  
Chief Curator: Taehoon LEE  
Curator: Hyojin NAM, Eunsoon YOO  
Guest Curator: Sangmin CHA  
Coordinator: Dongyoung KIM, Dasol LEE  
Technician: Minsung KIM, Dongguk JO

Docent  
Yoomi JEONG, Dain JIN, Dayeong KIM,  
Sangmi KIM, Jeongsam KIM, Miyoung DO,  
Soyeon AHN, Mihow LEE, Sunjoo LEE, Yerim LEE,  
Inkyung JO, Hyesuk JO, Miok HONG

## 전시장 정보

창원문화재단 & 성산아트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진해 중원로터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 3

진해 흑백다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57

마산3.15해양누리공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1가 47-4

창동아트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24  
창동예술촌

주남저수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101번길 32

Seongsan Art Hall  
181, Jungang-dae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Jinhae Jungwon Rotary  
3, Daecheon-dong,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Jinhae Black & White  
57, Baekgu-ro,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3-15 Nuri Marine Park  
47-4, Wollam-dong 1(il)-ga,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Chang-dong Art Center  
24, Odongseo 6-gil,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Junam Reservoir  
32, Junam-ro 101beon-gil, Dong-eup,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발행처  
창원문화재단

발행인  
창원문화재단 이사장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instagram. @changwonbiennale  
cwsbiennale@naver.com  
www.changwonbiennale.or.kr/2022

인쇄  
에드플러스

디자인  
오혜진(오와이이), 임하영

번역  
워드토피아

Publish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

Chairperson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181, Jungang-dae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instagram. @changwonbiennale  
cwsbiennale@naver.com  
www.changwonbiennale.or.kr/2022

Printer  
ADplus

Design  
Hezin O(OYE), Hayoung Im

Translation  
Wordtopia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 Particle Duality

